



## 제61회 전국역사학대회 자유패널 한국구술사학회

◎ 주제: 말하기의 정치와 듣기의 윤리 - 4.16 구술 연구

◎ 일시: 2018년 10월 20일(토) 오전 10:00 ~ 오후 6:20

|  |   |
|--|---|
| <p>■ 10:00 ~ 10:20 등록 및 개시<br/>10:20 ~ 10:30 인사말: 한국구술사학회 회장 윤택림</p> |   |
| <p>■ 제1부: 구술증언 배경과 시각<br/>사회: 이용기(한국교원대)</p>                         |   |
| 10:30<br>~11:00  | <p>말하기의 정치와 듣기의 윤리: 애도로서의 4.16 구술증언<br/>발표자: 이현정(서울대)</p> |
| 11:00<br>~11:30  | <p>4.16의 기억과 '침묵'이 말하는 구술<br/>발표자: 김익한(명지대)</p>           |
| 11:30<br>~12:10  | <p>제 1 부 토론<br/>토론자: 김 원(한국학중앙연구원), 유해정(성공회대)</p>         |
| 12:10<br>~13:30  | <p>점 심 식 사</p>  |
| <p>■ 제2부 : 구술 채록과 재현의 방법론<br/>사회: 김영미(국민대)</p>                       |   |
| 13:30<br>~14:00  | <p>4.16 구술증언 채록의 윤리적 질문들<br/>발표자: 김향수(서울대)</p>            |
| 14:00<br>~14:30  | <p>4.16 구술증언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재현<br/>발표자: 강재성(서울대)</p>  |
| 14:30<br>~15:10  | <p>제 2 부 토론<br/>토론자: 이호신(한성대), 소현숙(한양대)</p>               |
| 15:10<br>~15:30  | <p>휴식 및 총회</p>  |

|   |   |
|---|---|
| <b>■ 제3부: 구술증언록에 나타난 유가족 부모의 경험과 그 의미</b><br>사회: 허영란(울산대) |   |
| 15:30<br>~16:00   | 구술증언록을 통해서 본 4.16 유가족 부모가 경험한 상실의 의미<br>발표자: 이예성(서울대) |
| 16:00<br>~16:30   | '세월호 유가족'이 된 엄마·아빠의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br>발표자: 김아람(연세대)     |
| 16:30<br>~17:10   | 제 3 부 토론<br>토론자: 김기영(한양대), 노용석(부경대)                   |
| <b>■ 제4부: 종합토론</b><br>사회: 김귀옥(한성대)                        |   |
| 17:20<br>~18:20   | 종합토론<br>발표자 전원  |



# 목 차

## ■ 제1부

말하기의 정치와 듣기의 윤리 - 애도로서의 4.16 구술증언 / 이현정(서울대)

4.16의 기억과 ‘침묵’이 말하는 구술 / 김익한(명지대)

제1부 토론 / 김 원(한국학중앙연구원), 유해정(성공회대)

## ■ 제2부

4.16 구술증언 채록의 윤리적 질문들 / 김향수(서울대)

4.16 구술증언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재현 / 강재성(서울대)

제2부 토론 / 이호신(한성대), 소현숙(한양대)

## ■ 제3부

구술증언록을 통해서 본 4.16 유가족 부모가 경험한 상실의 의미 / 이예성(서울대)

‘세월호 유가족’이 된 엄마·아빠의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 / 김아람(연세대)

제3부 토론 / 김기영(한양대), 노용석(부경대)



## ■ 제1부 ■

- \* 말하기의 정치와 듣기의 윤리 - 애도로서의 4.16 구술증언

이현정(서울대)

- \* 4.16의 기억과 '침묵'이 말하는 구술

김익한(명지대)

- \* 제1부 토론

김 원(한국학중앙연구원), 유해정(성공회대)



---

2018년도 전국역사학대회 한국구술사학회

# 말하기의 정치와 듣기의 윤리 : 애도로서의 4.16구술증언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 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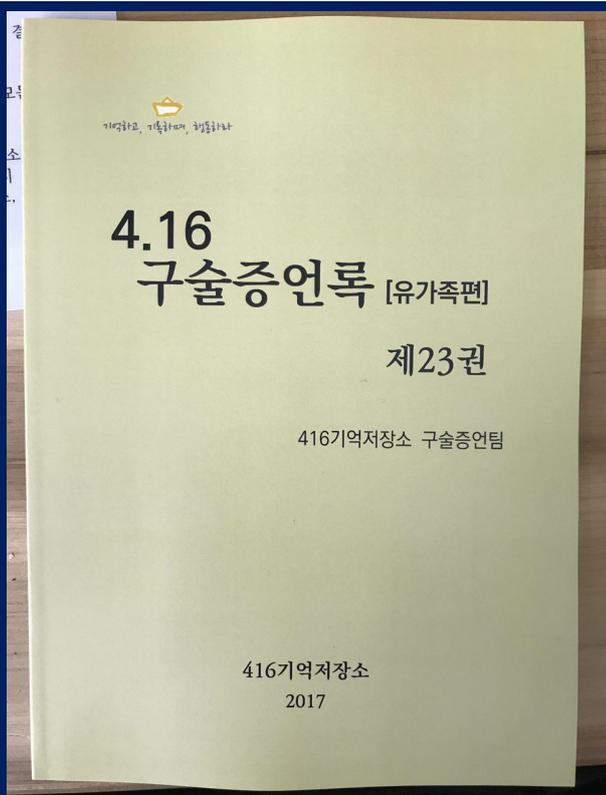
1. 들어가며
2. 4.16구술증언사업의 배경과 진행 과정
3. 말하기의 정치와 듣기의 윤리
4. 나가며: 애도로서의 4.16구술증언

# 4.16구술증언록

2018.10 현재 총 125 명 구술채록

유가족 부모, 형제자매, 생존자, 잠수사, 활동가, 변호사, 기자, 동거차도 주민 등

2016년과 2017년 각각 10권과 15권의 자료집 발간



416기억저장소  
2017



## 4.16구술증언사업의 배경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 침몰 및 참사와 관련된 정부와 언론의 사실 왜곡 및 은폐
- 2014년 5월, 두 개의 기록운동 출발: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안산)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진도)
- 2014년 6-7월, 시민기록위원회의 학자기록단의 구술 채록 시도
- 2014년 8월, 두 단체 '4.16기억저장소'로 통합
- 2015년 4월, 김익한 교수로부터 기억저장소 동참 요청
- 2015년 5월, 김종천 사무국장의 제안에 따라, 기록학, 역사학, 씨네송이, 인류학, 네 개 분과를 중심으로 한 구술팀 구성
- 2015년 6월, 세 차례에 걸친 구술팀 회의를 통해 기본 진행안 마련
- 2015년 7월, 구술면담 시작
- 2016년부터 아름다운가게와 역사문제연구소의 예산 지원

## 4.16구술증언사업의 취지와 목적

- 구술증언은 소외된 집단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사회운동이자, 밑으로부터 역사쓰기의 주된 방법
- 4.16관련 기억을 소환하고 기록하여, 이후 진상규명 및 역사기술에 기여하려는 목적
- 필요 공감대에 기초한 구술연구자의 자발적 참여 방식
- 다양한 분야 구술연구자들의 학제 간 협업 형태 (인류학, 역사학, 기록학, 여성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등등)
- 구술증언 자료는 4.16가족협의회 기억저장소 기록관리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 열람
- 구술자와 4.16기억저장소가 공동 저작권을 소유 (면담자 제외)

## 4.16구술증언사업 진행 방식

- 기간: 2015년 7월부터 면담 시작
- 대상: 4.16세월호참사 유가족(부모와 형제자매), 생존자, 잠수사, 활동가 및 주요 관련자 중 본 사업에 개인적으로 동의한 자
- 장소: 안산시 글로벌 다문화센터, 세송빌라, 안산정부합동분향소, 기억저장소 사무실 등등
- 진행 방식: 매회 1.5-2시간씩 총 3차례에 걸쳐, 음성녹취와 영상촬영을  
 동시 진행
  - 1차: 4.16 이전의 삶, 팽목항과 진도에서의 경험, 아이에 관한 기억
  - 2차: 4.16 이후 2년 간 가족들의 투쟁 및 공동체 활동 경험
  - 3차: 지난 2년 개인과 가족 삶의 변화, 깨달음, 아이의 현재적 의미

## 4.16구술증언사업 자료정리 및 후속 과정

- 자료 정리와 보관: 영상자료는 파일로, 녹취자료는 파일과 전사자료로 416기억저장소에 보관 (전사본/검독본은 내부에서 마련한 '전사 검독 지침'에 따라 진행)
- 공개/비공개 작업: 내부에서 마련한 '공개본 지침'을 통해 개별 면담자가 구술자와 직접 만나서 진행 (불확실한 항목은 소위원회가 결정)
- 자료집 발간, 다큐멘터리 제작, 연구팀 활동 등

## 4.16구술증언사업팀 내부 조직

- 집행부: 책임자, 팀장, 섭외담당, 기록물관리담당 총 4-5명  
시기별 기획, 구술대상 선정, 질문지 초안 작성, 예산신청 및 결산, 긴급사안 처리
- 공개/비공개 소위원회: 책임자, 각 시기 팀장, 김익한 교수, 이호신 교수  
공개/비공개 기준 검토 및 판단
- 워크숍: 면담자들의 경험 공유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 구술연구팀: 2017년 10월부터 (팀장: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이예성)  
다학제간 구술 '연구' 및 사회적 공유 방식의 모색  
인류학, 역사학, 여성학, 기록학

## 4.16구술증언사업 제1차 (2015년 6월-2016년 4월)

- 팀장: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수료 김향수
- 기록관리담당: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권용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문민기
- 섭외: 4.16기억저장소 김종천 사무국장, 임기현 기록팀원 외
- 유가족 중심 + 활동가 약간 명
- 동거차도 유가족 집단구술 (2016년 2월)
- '동거차도, 마음의 기록' 다큐멘터리 제작

07

## 4.16구술증언사업 제2차 (2016년 5월-2017년 10월)

- 팀장: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수로 김향수(2016년 8월까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연세대 사학과 박사과정수로 이봉규
- 기록관리담당: 한성대 문헌정보학과 석사수로 김솔 (2017년 2월까지)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강재성
- 섭외: 재강엄마 양육자 외
- 유가족 + 잠수사 + 활동가 + 생존자
- 동거차도, 팽목항, 제주도 출장 구술

※ 2016년 8월 도연엄마 이지성이 4.16기억저장소 2대 소장으로 취임

11

08

## 4.16구술증언사업 제3차 (2017년 11월-2018년 10월 현재)

- 팀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연세대 사학과 박사과정수로 이봉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익한 (2018년 6월부터 공동)
- 기록관리담당: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강재성
- 섭외: 재강엄마 양육자 외
- 유가족 (부모, 형제자매, 가협 임원진) + 유가족 단체 집단구술
- 전사본 재검토 및 변경된 공개/비공개 기준에 따른 공개본 작업
- 2019년 출간 준비

12

## 4.16구술증언사업 현황 (2018.10)

〈표1〉 구술 진행 요약

| 시기별                 | 완료  | 진행 | 중단 | 총계  |
|---------------------|-----|----|----|-----|
| 1차(2015.7-2016.4)   | 47  | 0  | 2  | 49  |
| 2차 (2016.5-2017.10) | 53  | 1  | 2  | 56  |
| 3차 (2017.11-현재)     | 14  | 3  | 0  | 9   |
| 총계                  | 114 | 7  | 4  | 125 |

〈표2〉 구술자 집단별 구성

| 구분 | 단원고<br>학부모 | 형제<br>자매 | 생존자 | 잠수사 | 활동가 | 변호사 | 기자 | 동거차<br>주민 | 총계  |
|----|------------|----------|-----|-----|-----|-----|----|-----------|-----|
| 완료 | 83         | 0        | 1   | 3   | 9   | 1   | 4  | 12        | 106 |
| 진행 | 0          | 3        | 0   | 1   | 0   | 0   | 0  | 0         | 4   |
| 중단 | 3          | 0        | 0   | 0   | 0   | 1   | 0  | 0         | 4   |
| 총계 | 90         | 3        | 1   | 4   | 9   | 2   | 4  | 12        | 125 |

## 4.16구술증언사업 참여연구자 (총23명)

이현정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책임)  
 강재성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권용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  
 사수로  
 김세림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김솔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과정  
 김아람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김익만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  
 수(3차 팀장)  
 김태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김향수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1.2  
 차팀장)  
 문민기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박여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졸업  
 손동유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원장  
 유은주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윤보라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이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졸업  
 이영룡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석사졸업  
 이에성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연구팀장)  
 이봉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2,3차 팀장)  
 이호신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  
 임광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장미현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장원아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정수아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졸업

## 4.16구술증언사업 장면들

## 4.16구술증언사업의 특징

1.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구술연구자의 정치적인 연대활동의 성격

기존의 구술사업이 대체로 연구자나 연구소가 주체로서 발의되어 진행되었다면, 본 구술사업은 당시 국가와 언론의 사실 왜곡에 직면한 시민 지지자들의 진실에 대한 열망과 기록의 필요성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에서 시민기록위원회를 꾸려 온 지역 활동가 김종천의 발의를 통해 시작.

'4.16구술증언사업'은 처음부터 그 성격이 학문적인 필요 속에서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구술연구자의 정치적인 연대활동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함.

## 4.16구술증언사업의 특징

### 2. 절대적으로 유가족의 뜻을 우선 존중하고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원칙

동의 과정과 절차, 저작권 문제, 공개/비공개 기준 등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적이고 학문적인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참사 피해자 유가족의 뜻을 우선 존중하고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원칙을 따름.

또한 일반적으로 구술 채록 과정에서의 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사실상 개인 주의적인 권리 관념에 기초하고 있지만, 본 구술사업에서는 구술자 개인을 넘어서 '유가족 집단'(가족협의회)의 뜻과 이익을 정치적인 판단 속에 추가로 고려.

## 4.16구술증언사업의 특징

### 3.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다학제적 실천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성장

다양한 학문 분과에 속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됨에 따라, 갈등과 시너지가 동시에 존재. 인류학, 역사학, 여성학, 기록학 등, 각 분야는 모두 구술연구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관점이나 구술 채록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 이러한 차이가 우열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이자 능력이며 자기 성찰의 요소로서 인정되기까지는 신뢰와 협업의 시간이 필요.

그러나 서로 다른 분과에서 참여한 연구자들의 갈등과 시너지의 원인은 모두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남다른 지지와 열정, 학자로서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고민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점.

## 말하기의 정치와 듣기의 윤리

“그렇다면, ‘4.16구술증언사업’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함의는 무엇일까? 전국의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오래도록 슬픔과 분노에 잠기게 했던 사건에 직면하여, 면담자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직접적인 경험담과 생각을 듣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것은 결국 무엇을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증언’을 수집한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면담자들은 이미 피해자들의 구술이 법적인 증거로써 사용될 수 없으며, 가족협의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구술증언수집’은 그들(참사 피해자이자 구술자)에게, 그리고 우리(연구자이자 면담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 말하기의 정치와 듣기의 윤리

-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의 상실의 슬픔에 대한 말하기는 모든 경우에 가능하지 않았음.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애도의 대상이 되는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의 구별(죽음의 역사적 의미와 의례를 둘러싼 헤게모니 갈등)
- 세월호 참사로 인한 죽음은 국가의 정치적 의도 속에서 국가적인 애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일부 시민들에 의한 애도의 대상으로만 존재
- 국가적으로 애도가 금지된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미디어와 국가에 의해 사실 왜곡이 발생하는 조건 속에서, ‘말하기’는 어떻게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가? (유가족의 전국 간담회, 구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구술증언팀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국가에 의해 애도가 억압된 피해자에 대한 공감 속에서, 이들의 말하기를 독려하고, 이들의 ‘말하기’에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적인 지지를 수행

## 말하기의 정치와 듣기의 윤리

- 현대 한국사회에서 인간의 삶, 존재 가치, '피할 수 없는 죽음',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개념과 의미의 차이들
- 세월호 참사 이후 노란 리본의 물결(그리고 강남역 사건 이후의 노란 포스트잇)과 잇따른 대규모의 대중 집회가 갖는 의미. 사건들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고(공감하게 하고), 나아가 행동하도록 이끌고 있는가? (또한 어쩌서 다른 이들에게는 공감이나 행동의 계기로 나타나지 않는가?)
- 연구자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윤리적 질문: 책임responsibility을 응답response할 수 있는 능력ability을 윤리적 태도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때, 구술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책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이론적 틀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우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 애도로서의 4.16구술증언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참사 피해자들은 언론과 국가에 의한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은폐 속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간담회, 책 출간, 인터뷰 등 '말하기'를 정치적 실천 행위로서 수행. 마찬가지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구술 참여는 국가적으로 부정된 애도에 대한 저항적 실천으로서 이해될 수 있음.
- 구술증언팀의 연구자들은 개별 시민의 차원을 넘어, 연구자로서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참사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듣고 기록'하고 이를 통해 참사 피해자들의 애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본 구술증언사업은 시민들의 사회적 애도를 국가적 애도로서 정립해가기 위한,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실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감사합니다

# 4.16의 기억과 ‘침묵’이 말하는 구술

2018 전국역사학대회/한국구술사학회

2018.10.20

4.16 기억저장소 4.16 구술증언팀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 목 차 ／

- I \_ 4.16 기억이 던지는 사회적, 학문적 질문
- II \_ 버려진 그들이 발견한 ‘나라’
- III \_ 감시, 폭력, 배제의 기억
- IV \_ ‘침묵’의 역사하기
- V \_ 혼을 빼놓는 그리움의 아픔, 그리고 투쟁하는 일상
- VI \_ 후회와 성찰, 아이와 함께 하는 삶
- VII \_ 공감과 전달의 학문하기

■ 4.16 기억이 던지는 사회적, 학문적 질문

4.16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는 문화와 역사 변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이 저변이 되어 생각이나 담론을 형성해가며, 이러한 과정의 집합적 생성, 변화는 사회와 역사의 변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 사회와 역사를 연구할 때, 특히 문화사적 접근의 측면에서 주목됩니다.

4.16의 기억은 이러한 점에서 남다른니다.

한국 현대사의 많은 사건들 중 세월호 참사만큼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예는 많지 않습니다.

4.16의 기억은 민주주의 제도와 양적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들을 수장시키고 말았다는 광범위한 '자책감'을 형성하였고, 교육, 노동, 정치, 사회참여 등의 면에서 성찰적 태도를 확산시켰습니다.

4.16으로 형성된 이러한 기억과 담론이 사회, 역사의 변동에 어떻게 작용해갈 것인가는 중요하고도 커다란 사회적, 학문적 질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중 특히 유가족들의 4.16에 대한 기억은 이러한 집합적 기억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피해 담지자로서, 아이를 잃고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버린 피해 담지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비적 삶'을 영위해 가는 주체로서 그들이 4.16에 대해 갖고 있는 기억은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의 면에서, 그리고 인간 본의 삶의 태도와 지향의 면에서 '응축'의 실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기억하고 문제를 드러내며 새로운 지향을 좇아 실천하는 과정에서 노치기 쉬운 것이 바로 고통의 공감입니다.

고통에 대한 공감은 사건의 의제화와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천의 과정에서 흐려지거나 사라져버리고, 목적 지향적 행위들 속에서 잊혀져가기도 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지속되고 있는 몸과 마음의 고통, 그리고 감감한 미래가 주는 두려움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의제화와 실천은 '권력적 가벼움', '시민적 가벼움'의 함정에 빠지고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유가족들의 기억, 사유, 고통은 강렬하고 구체적입니다.

2014년 내내 전국에 물결쳤던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해가 가면서 엷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가족들의 기억, 사유, 고통에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4.16에 대한 문제인식과 실천을 단순히 '진보'를 지향하는 추상의 세계에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의 과제는 이러한 '침묵'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4.16에 대한 기억의 사회적 현상을 유가족의 기억을 '침묵'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기억을 재현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에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렬함과 구체적임에 접근되지 않았던 공감의 정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고통을 해방하는 지향'을 모두와 함께 구체적으로 재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학문계가 어떠한 방법론과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들도 함께 제출하려 합니다.

▪ 버려진 그들이 발견한 ‘나라’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있잖아, 막 빨려 들어가요. (중략) 바다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울고, 한 바탕 울고 나면 또 바다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좌악 빨려 들어가는 것 같어, 그 바다 속으로. (중략) 빠지고 싶어, 가고 싶고……” (『5권』(2) 23)

“5일 동안, 6일인가 내가 있었나… 하면서 느낀 계층에 있는 거 같아. (중략) 그니까 외부세계와 단절된 곳에서 닫혀있는 느낌을 받았어. (중략) 우리가 현장 가보면 몇 백 명이란 잠수부 구경도 못해. (중략) 손바닥만한 보트 막 돌아다니고, 헬기? 한 대도 안보여. (중략) 인터뷰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한 개도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어. 한 개도.” (『7권』(2) 4)

유가족들은 아이를 삼킨 바다를 아이와 자신을 잇는 통로이자, 두렵고 슬픈 블랙홀 같은 존재로 느낍니다.

바다를 보면, 아이에게 가고 싶은 마음, 야만의 시대, 지옥 같은 삶으로부터 벗어나고픈 마음에, 바다로 빨려들어 가는 기운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운은 지나쳐버렸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더 예리하게 보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설마하며 안간힘을 쓰고, 악다구니를 해보았지만, 국가, 사회, 전문가, 언론이 무엇이라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그저 고립된 섬이었음을 처절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결국 아이는 주검이 되어 돌아왔고 남은 것이라고는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부정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전에 그 것만 잡아놔어도 왜 방법이 없었겠느냐고요. 그것만 잡아놔어도 들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잡아놓고 시간 다 허비해 놓고. 아… 어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 진도에서는요, 해경이나 우리 정부는 자기들 스스로 한 개도 무언가를 한 게 없어요.” (『22권』(1) 8-9)

“‘정부는 살인마’, 그답에 내, ‘우리 애를 살려내라’ 그거 두 가지 구호를 계속 하면서 갔어요”(『19권』(2·3) 9).

유가족들의 국가 부정의 기억은 2014년 4월 19일 ‘눈물의 진도대교 행진’에서 몸과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진도에서 유가족들은 정부를 “살인마”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네들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중략) 청문회 하면서 그게 다 밝혀졌는데도 그거를 모르쇠로 나가 는 거 보고, 그게 더 화가 나고. (중략) 난 이진 진짜로 학살로 봐. 이거를, 이진 사고가 아니고 이진 참사도 아니고 이진 학살이야, 학살.” (『4권』(3) 11)

“청문회 마지막 날, ‘아이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었구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서 멈추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한참을 울었어. (중략) [비공개] 그런 사람들은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죄의식도 전혀 없어.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은 나라더라고.” (『6권』(3) 15)

이후 이들은 '법 체제'와 관료조직을 동원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그 무엇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권력과 행정의 실체에 접하면서 결국 아이들의 죽음을 '예정된' 국가권력의 학살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살의 주범들은 죄의식조차 없는 아이지만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김경일 같은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읽다보면 그 친구들이 자기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대는 거예요. 식당에 모여서 (중략) 시나리오를 적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퇴선 명령을 했다고 그러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중략) 재판에도 임하고, 이랬던 것이거든요. 장기간 모니터링하다보면 그런 거짓말이 보이는데, (중략) 사실 검사의 칼끝이 예리하고 강력했다면 이걸 확확 휘저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권』(2) 10)

“세월호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항공 구조사들은 유리창 위를 밟고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유리창 안으로 아이들이 있는 걸 몰랐다, “유리창 밑이 선실인 걸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중략) 그 사람들 전부 다 위증이다, 이거죠.” (『1권』(2) 13)

유가족들은 세월호 재판을 장기간 모니터링하면서, 학살과 진실 은폐가 단지 진도 현장에 있었던 해수부나 해경 등의 정부기관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검찰과 법원이 그저 권력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족들의 국가 부정은 '고도의 지식'과 '공정성'을 실현한다고 하는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까지 이르렀고, 이러한 이들의 선명한 기억은 지식권력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119 타고 왔어요. (중략) ☆☆이랑 같이 올라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중략) 염하고 알았는데, 그게 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가 뒤쪽이 함몰이 되어있더라고. (중략) 사진 찍는 거지. 앞뒤로 다 보면서. 개를 분명히 거기서 봤을 거야.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르는 거를. 그런데 사망 저기에는 그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중략) 익사야 익사. 다 익사라고 나온다니깐요. 다 통으로 익사라고 해놔 버린 거야. 분명 우리 아이는 익사가 아니야. (중략) 바다 속에서는, 먼저 사망을 했으니까, 피가 멈춰버렸던 거 같애.” (『22권』(1) 14-15)

“종합하면 뭔가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어진 게 아니고 갑작스레 확 넘어졌다는 거거든. 그리고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것. 이런걸 보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외력은 있었다는 것.” (『1권(2)』 16)

세월호 침몰에 무엇인가의 커다란 비밀이 숨어 있음을 직감한 그들은 권력과 정치, 언론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행태를 근본에서부터 의심하였습니다.

그 의심을 풀기위해 유가족들은 아이의 몸을 부검해야 했었다고 후회하기도 했고, 일상을 모두 뒤로한 채 몇 년을 두고 혼신의 힘을 다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문자가 오더라고요. 전원 구조, 전원 구조, 전원 구조, 세 번이나. (중략) 분위기 봐가지곤 막 난리가 나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무실로 쫓아 내려갔어요, 행정실로. “문자 이거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중략) “여기 단원고에서 보내지 않았냐”고, 제가 문자를 보여주고, 보여줬더니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막 이래.” (『9권』(1) 3-4)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렸다, 그 다음에 해경이 마침 옆에 있었다, 그리고 날씨도 좋았고, 파도도 안 쳤다, (중략) 전원구조를 다 했지만 혹시나 배 안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공대가 들어가서 살살이 뒤지고 있다, 이런 방송을 합니다. (중략) 그 당시에 거의 비슷한 내용을 모든 방송사가 다 했거든. 전원구조 시간이 어디서는 11시 1분이고, 어디서는 11시 6분이고 (중략) 이 차이. 방송 내용은 비슷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걸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1권(1)』 23)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침몰에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숨기기 위한 거짓은 ‘전원구조’ 보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보도는 권력으로부터 기획되었으며, 언론은 그 하수인의 역할을 하기에 급급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II. 버려진 그들이 발견한 '나라'

“ KBS 방송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소리를 지르고 [비공개] 베란다처럼 이렇게 공간 있었는데, 거기 이제 나와서 쳐다보는, 담배 피면서 실실 웃는 모습까지도 봤거든요. 그 때부터 '같은 나라에서 참...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살면서도 타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언론을 하고 있구나' 거기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8권』(3) 4)

“ 권력 귀신, 돈 귀신에 다 미쳐 (웃음) 언론도 양심을 팔아먹고, 학자들도 지 양심 팔아먹고. 솔직히 참사 초기에 뭐, 선박 관련 학자들이라면, 그렇게 단순히 조타 실수로 급변침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냈어야 됐어. 변호사들이나 인권활동가나 아니면 특히 학자들, 그런데 학자들은 자기네 밥줄 끊어질까봐 침묵하고 있더라구. 음, 너무, 너무 실망스러웠죠.” (『8권』(3) 11)

“ 정말 묻고 싶어. 그 사람들이 왜 공부를 했는지 왜 지식인이 되었는지. (중략) 목소리 내지 않고 그냥 자기 밥그릇 챙기고 (중략) 약한 사람들 짓밟고 있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그리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당연히 지식인이 지식인이면, 학식을 쌓았으면 이럴 때 써야죠. 이럴 때 이야기를 해야지. 내 목숨이 위태로울 망정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중략) 그냥 지켜보고 있는. 너무 비겁한 거 같애.” (『10권』(1) 18-19)

언론은 유가족들에게는 옴무새에 불과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언론은 진실에 눈감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집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가득하였던 유력 방송사나 신문사 기자들은 유가족들에 의해 쫓겨나기 일쑤였고, 인터넷 방송 등 대안 언론 일부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인, 지식인·전문가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II. 버려진 그들이 발견한 '나라'

“ 텐트라고 팽목항에 딱 하나 있었어요. (중략) 들어와 가지고 봉사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수고하시라고 이러면서 누구 당 누구 의원 이러면서 거기서 그 짓하고 있더라고. 히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14권』(2) 6-7)

“ 가족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인젠 막 이런저런 뭐 응? “얼마 요구했다더라” 이런 거 나온 게 그게 다 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짜라시 내는 거. 세상천지에 나 그런 이상한 나라 처음 봤다니까. (중략) 이게 무슨 세상천지에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응? 가족.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족들이 정치권으로 투사가 돼 버리더라구.” (『7권』(2) 10)

“ 아...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남는 게 짝 들어가면서 짝 웃으면서 들어가는데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옆에 안 봐. 그러면서 짝 웃으면서 들어가는데 그 미소가 그게 진짜 악마의 얼굴이더라고. 그 얼굴을 잊어먹을 수가 없어. (중략) 그래서 엄마들이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 질러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참,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 내 손모가지를 잘라 버려야지.” (『4권』(2) 3)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은 정치, 권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은 악마적 모습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눈에는 그 무능과 무책임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비겁하고 비양심적인 존재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닐 가족백 있잖아요, 거기다가 시신을 넣구서, 드 라이 아이스만 좀 옆에 넣구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 참 진짜, 그 동안에 뭐했는지, 그 냉동고는 어디 갔는지, 그리고 그 일주일 된 시신을 그렇게 그냥 엠 불런스에다 대고 그냥 그렇게 오는 것도 그렇게 야 만적인 게 없더라고요. 진짜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19권』(2·3) 13)

국가의 모습은 야만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유가족들의 국가 부정 의식은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감시, 폭력, 배제의 기억

“처음부터 한 곳으로 모일 수 있게 해 줘야지, 그 두 군데로 찢어 놓냐고요. (중략) 사람을 가둬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 진짜 그 체육관이 감옥이잖아요.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잖아.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서 그냥 화면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갇혀있었던 거라고 봐야 돼죠, 그게. 물 주고, 밥 주고, 옷 주고, 가둬 놓은 거지 그게 뭐야. 그거는 보호가 아니잖아.” (『15권』(2) 11-12)

“체육관 바닥에 말고 그 위에 거기서 거기에서 유가족인 것처럼 막 욕을 하고 막 해경들 욕을 하고 막 더 오버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 (중략) 당신 거기 가만있어라 너 가족 맞나 그랬더니 가족 맞대. 가만있으라고 그래서 뛰쳐나가서 봤더니 가족도 아닌 거예요.” (『3권』(2) 12)

“정보관들이라던가 사복 경찰이라던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 있으면서 (중략) 심지어 한 세명 정도가 같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슬그머니 와서 서는 거야. (중략) “당신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구 삼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에서 여러분 도와주려고 온 목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략) 항상 뭔가가 우리를 자꾸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략) 심지어 ‘우리 집도 도청당하는 게 아닌가?’ 와이프가 중요한 얘기하려면 살살 얘기하라고 그럴 정도로 지금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권(1)』 14)

국가는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당시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보다는 분열시키고 탄압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심지어 국가가 그들을 가둬놓고 ‘사육하며’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감시와 통제는 유가족들에게 트라우마의 형태로 남기조차 했습니다.

“4일이구나, 일요일날 안산에서 삭발을 했는데, 그때 영정 사진을 들고 또 그때도 비가 와서 음, 아이랑 같이 간 거죠. (중략) “우리가 어떻게 만든 특별법인데 이거를 하위 시행령이, 시행령을 가지고 정부가 장난을 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그 도구가 자기 몸이 되는 거였어. 단식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는 거지.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아무 것도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택한 게 삭발인 거 같은데. 거의 60명에 가까운 부모들이 삭발을 하고 영정사진을 들고 아마 가장 처절한 싸움인 거 같애. (중략) 개인적으로 제일 처절한 싸움이었던 거 같애, 제일 마음 아픈.” (『10권』(2) 22)

“제가 ☆☆이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자를 탁 벗기면서 제 머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중략) 그리고 캡사 이신을 정면으로 썼어요. (중략)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예요. 기동대예요. (중략) 범죄자 취급하듯이. 무릎 막 꿇리고 양 팔을 뒤로 꺾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처음 당해봤어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 시멘트 바닥에 무자비하게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꿇리고, 팔을 뒤로 꺾으니까 몸이 절로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어요.” (『2권』(2) 5)

이러한 유가족들에게 가해진 것은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통해 가해진 이 폭력은 참사이전 일상의 삶에서 인식되어 왔던 ‘안전한 민주 국가’라는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교실은 남겨둬야지. 그것마저도 우리가 떼쓰는 거처럼 꼭 그렇게 해야 겠나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략) 저희가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안을 마련해줬는데 왜 들은 척도 안 하나구요. 싫은 거 같아요. 저희아이들 자체가 싫은 거 같아요. (중략)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왜 개네들을 혐오스러운 애들도 만들어 놓냐구요. 내 새끼가 혐오스러운 애가 아닌데... 나쁜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15권』(1) 16)

국가는 감시와 폭력에 이어 유가족들을 배제했습니다. 단원과 교실을 빼앗는 것은 유가족들로부터 기억의 공간마저 앗아가고 희생된 아이들과 유가족들을 세상으로부터 배제해가는 ‘나쁜 사람들’의 짓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국가의 폭력, 그리고 배제로 인해 유가족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두 잘 살아 가고 있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벌거벗은 존재’라는 자각이 유가족들을 살아도 죽은 것이나 진배없다는 생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위축도 굉장히 위축되고 화나는 거는 말도 없이 화나고 어이가 없고. (중략) 40대고 50정도 되면은 (중략) 집도 좀 크게 갈 때고 그럴 텐데 그것마저도 눈치보고 또 차가 덜덜거려도 어휴 고쳐 써야 되고 못 탈 지경이 돼도. (중략) 그렇게 돼서 바꾸게 되면 또 말들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우니까 바꾸지도 못하고, (중략) 저희 애들 그렇게 될 때부터 벌써 배보상 이야기가 나왔어요.” (『3권』(1) 7)

“이건 내 생각인데 ‘저 높은 지 새끼 앞세워 놓고 월 또 돈 벌라고 직장을 다니나’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내 자신이. 그래가지고 아유 많이 힘들더라고.” (『4권』(3) 8)

배제되고 ‘특별 취급’된 유가족들은 세상의 ‘이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배제의 ‘느낌’은 스스로를 위축시켰고, 누가 말을 해도, 말을 하지 않아도, ‘유가족 다움’이라는 문화 폭력에 의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병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선잠 들어있는 상태인데 막 우는 소리가 들려서 방에 들어갔더니, 막 저 맨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맨날 그랬던 사람인데, 당신 갔다 와서, 분향소에 갔다 와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보고 싶고 억울해서 환장하겠는데 답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 (『3권』(3) 20)

“시내버스가 정기 노선을 다니잖아요. 매일 가는, 내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탈선을 합니다. (중략) 안산 역을 통과하다보면 거기 교각이 있잖아요, 거기 고가도로 교각, 거기다가 내 차를 박고 싶은 충동이 생겨. 사람들 파악 했는데. 여기다가 확 때려버릴까, 다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니까요.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22권』(2) 9)

“XXXX에서 위세척해서 살았던 엄마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뒤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연락이 안 되면, (중략) 그러면 밴드에다가 우리 ☆☆엄마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막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다 나쁜 생각들을 막 많이 했으니까, 지금도 가끔씩 자살충동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 계속 감시, 감시 아닌 감시,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3권』(3) 7-8)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진상 규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할 말은 있겠죠. “애들아,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었다, 잘. 너희들 진실을 밝혀냈다” 이제… 또 감동의 눈물도 흘리기도 하겠죠. 근데 그 이후는 또 무섭기도 해요, 그 이후. (중략) “좀 기다려라. 엄마도 금방 갈 거야”라고 한편으론, 때로는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5권』(3) 19-20)

“앞으로 계획 없어요. 그게 무서워요 솔직히. (중략) 이 정신 상태로 사업하면 꼴랑 다 안 되고 말아먹을 거 같고 (중략) 어떨 때 ☆☆아빠가 그러더라고. “그냥 다 정리하고 저기 멀리 시골 내려가자”고. 내려가서 뭐 하고 어찌고 살 건데? (중략) 지금은, 그냥 놔 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14권』(3) 10-11)

어느 유가족은 새벽에 일어나 목놓아 울기도 하고, 또 버스운전기사였던 어느 유가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선을 하고, 또 어느 어느 유가족은 자살충동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혹은 보지 않고 느끼지 않으며 지나쳐버리는 것들을 응시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폭력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 고통스런 나날을 버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다른 길이 없어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나, 대통령에서 아이히만 같은 존재들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찾아 처벌하는 일이나, 기억교실을 되찾는 일이나,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는 일에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너무 힘이 들어 "그냥 뉘버리고 싶다"고 조용히 읊조립니다.

왜 사회적 애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이 스스로 애도의 과제를 떠안고 길바닥에 나서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도의 과제를 실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하고, 그들은 애도 받으며,

그들은 스스로 응시하여 깨달은 것들과 기억들을 새로운 일상에서 실천하고,

세상은 그들이 깨달음과 기억을 공유하며 그들과 함께 서서히 역사의 전변을 이뤄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그나마 4.16이 던지는 사회적, 학문적 질문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침묵'의 역사하기

유가족들은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말할 수 없다'일 겁니다.

헤게모니의 경계 밖에 존재하는 그들은 자신의 몸과 아이들의 죽음을 걸고 세상을 향해 외쳤지만, 아무도 아이들을 구해주지 않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애도의 과제 역시 실행해주지 않았습니니다.

심지어 촛불 시위의 최전방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 결실은 헤게모니 안의 특정 집단의 새로운 권력 창출로 이어지는데 그쳤습니니다.

선체가 위양되었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정부합동분향소"가 철거되어 가족협의회 공간이 새로이 마련되었지만 컨테이너 박스로 구성된 작고 고립된 공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들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말에 의해 헤게모니가 형성되어 애도와 4.16 정신의 사회적 실천이 이뤄짐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헤게모니 밖에 존재하며, 대통령과 정치권의 '화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여전히 '침묵'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 혹은 '침묵'으로 취급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곧 '듣기의 윤리'일 것입니다.

'침묵'의 역사는 앞서 다룬 유가족들의 기억, 그리고 생각과 담론들이 역사연구의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과거만을 다뤘은 역사학에서 불과 4~5년 전에 일어난 4.16의 사건과 기억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할까?

시대사적 사고에서 탈각하여 당대사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선다면 4.16은 당대의 구조와 문화 모두를 균열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종래의 분야사적 사고 틀을 벗어나 문화사적 관점, 심층의 역사에 주목하는 관점에 선다면, 구술이 본 사료로 자리 잡고 문헌들이 보완 사료로 취급되는 사료론의 재정립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역사적 전변을 가져올 수 있는 유가족들의 4.16에 대한 기억 역시 중요한 심층사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침묵'으로 역사하기는 구술 속에 담긴 민중의 기억들을 심층의 문화사를 엮어 가는 사료로 삼아, 집합적 기억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제 모습을 갖춰가게 될 것입니다.

당대사의 '기억론적 전회'를 시도한다면, 4.16 사건과 기억의 역사하기야말로 '침묵'이 말하는 구술로 '기억의 장'을 구성해가는 하나의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혼을 빼놓는 그리움의 아픔, 그리고 투쟁하는 일상

“나는 우리 애 사진을 그림으로 크게 그려다 논 집에 있어요. 다른 게 아니야, 애 보고 싶어서, 애가 보고 싶어서 그린 거지. (중략) 아, 나는 이 그리움이 이렇게 아픈 줄은 몰랐어, 그리움이. (중략) 그제 어떤 통증 있는 아픔이면 좋겠어. 통증 있는 아픔이 아닌 거야. 여기서, 머릿속에서는 막 애가 생각나고 보고 싶은데, 가슴이 아려. (중략) 어쩌다 갑자기 생각나서 교실 가보면은, 거기서 갑자기 막 서러움, 서러움이라고 해야 하나? 뭐 이런 게 팍 폭발을 해 버려, 가슴에서. 나도 모르게 막 통곡이 나와 버려. (중략) 이 그리움 속에서 나오는 이 아픔은 어떻게, 사랑을 혼을 빼놓는 거야. 그리움 속에서 나오는 아픔은 혼을 빼놓는 아픔이야.”(『7권』(3) 12-13)

유가족들의 고통에 공감하려면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고통의 깊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술에 나타나는 그들의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신을 통해 육체로까지 이어져 참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유가족들도 애써 그러한 회상과 그리움, 행복감과 허전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왜 그리 죽어야만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억울함을 동반한 그리움은 “가슴이 아려” 통증을 참아야만 하는 고통인 경우가 많 습니다.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손톱이 다 떨어져나갈 만큼 발버둥 치다가 죽어갔을 아이의 고통을 떠올리며 갖는 그리움은 유가족들의 “혼을 빼놓”을 만큼, 통곡이 터져 나와 몸부림칠 만큼 심각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V. 혼을 빼놓는 그리움의 아픔, 그리고 투쟁하는 일상

“오만원을 줬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갖고 가야 엄마 쪼꼬렛도 하나 사다주고 그러지 않겠냐?” (중략)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가고 나서 텔레비전 밑에 2만원 넣어놓고 갔더라고. (중략) 내가 코팅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알뜰해요, 애들이. 엄마 힘들게 벌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마음이 조금 아파, 예휴.” (『5권』(1) 8)

“지가 운동도 하고 싶으면 요즘에 막 이런 거 사달라고 하고 그래야 되잖아. (중략) 그런 말을 안 해. 나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지. (중략)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렇게 불통을 두 개를 물을 집어 넣어가지고 테이프로 막 이렇게 감았어. (중략) 모델이 꿈이었잖아요. (중략) 그게 아령이지요? (중략) 그걸로 운동을 했던 거야.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운동 그 순서를 막 그려놓고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게 다 있어 집에.” (『5권』(1) 24)

“그냥 엄마처럼 안 살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그런 생각 때문에. (중략) 2학년 때부터 영어학원에, 여기저기 학원 다니느라 많이 힘들었을 거고. [비공개] (중략) 지금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엄마의 정이라든가 사랑이 오히려 아이한테 더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시간을 주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때는 그걸 몰랐어요. (중략) 제가 ☆☆이 사진 볼 때마다 하는 말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 제일 많이 해요.” (『6권』(1) 10)

유가족들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자책, 살아 있을 때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지 못했다는 후회로 괴로워합니다.

아이의 죽음이 부모들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아주 작은 행동하나, 말 한마디까지 지자책하고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고생하는 엄마를 배려해 사달라는 말조차 하지 않은 착하다 착한 아이에 대한 감정은 자랑스러움, 고마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좀 더 풍요롭게 해주지 못했다는 후회를 동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강요해 아이를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후회, 주말까지 회사에 나가곤 해서 아이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등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후회는 다양합니다.

V. 혼을 빼놓는 그리움의 아픔, 그리고 투쟁하는 일상

“그래도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저기, 뭐야 뭘 덮어놨는데 내가 불라고, 애한테 어떡냐고 보면. 또 마지막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 안 보여 줘가지고. 막 다 나를 기절할까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 보고 x x x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다 싸여있는 모습만 이렇게 만져본 게 난 지금도 너무 억울해. 왜 내가 미친년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꼭 봐야 되는데... 지금도 한이 되더라고. 갈 때도, 수학여행 갈 때도... 안아주지도 못했는데, 보낼 때도 안아주지도 못하고... 되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제일 아픈 게 그런 거 같애.” (『5권』(2) 16)

수학여행 출발하는 날 아이를 배웅하며 안아주지 못한 것도,

아이가 올라왔을 때 혼절 위험 때문에 직접 보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한 것도,

너무도 후회되고 한이 됩니다.

그렇게 힘겹게, 아쉽게, 영문도 모르고 가버린 아이를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이 백만 가지도 넘습니다.

V. 혼을 빼놓는 그리움의 아픔, 그리고 투쟁하는 일상

“7월 23일? 7월 23일이었을 거예요. (중략) 제가 ‘1박 2일 동안 도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저희 아이들이다’ 그랬고. 저희 ☆☆이도 그랬고, ‘그 날, 아이들이 배, 배에서 겪었던 고통이래든가 두려움이래든가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해도 우리 애들이 겪었던 것만큼 고통스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중략) 그 생각만 갖고 견다 보니까 끝까지 걸을 수 있었고.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런 생각 갖고서 견디지 않았나 생각 돼요.” (『6권』(3) 5)

“진도까지 도보할 때는 괜찮았어요. 약 먹으면 어느 정도 통증이 잊혀지고 뭐 무릎뿐이 아니라 온 몸이 다 아팠을 때니까. (중략) 그 때 당시 추웠죠. 1월 말, 2월. 감히 못했어요, 아프다 소리 못 하고. (울음) 해선 안 될 것 같고. 특히 출단 소리, 출단 소리는. (울음) 평생 못할 것 같애. 해선 안 될 것 같고. 괜찮았어요. 그,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울먹)” (『9권』(2) 13-14)

“일반 봤을 때 하고 렌즈 안으로 봤을 때 세상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중략) 팽목에서 먼저 도착해서 엄마들 고개 넘어 와가지고 걸어 들어오는 걸 찍었는데 그 때 좀 울었거든? 야, 진짜 엄마들 대단하던 생각이 들더라고. 딱 들어오는데 400킬로가 넘잖아. 그 400킬로 넘는 그 거리를 (울먹) 엄마들이 걸으면서 들어오는데, 그걸 찍는데, 아유 이렇게 눈물이 막 핑 도는지 모르겠더라고. (중략) 렌즈로 그렇게 보니까. 뭐랄까, 그 얼굴 뒤에 뭐랄까, 분노? 이런 게 느낌이 오더라고. (중략) 근데 아유, 팽목에서 보면 이렇게 고개가 있잖아. 고개에서 보이고 딱 내려오는데 엄마들, 아유 대단했어.” (『4권』(3) 15)

유가족들은 참사 100일 날 1박 2일 동안 안산에서 시청 앞까지 도보 행진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배 안에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고통이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다음해 2월 진도까지 무려 400킬로 미터가 넘는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아프다 소리”, “출단 소리”는 “평생 못할 것 같”다는 어느 유가족 엄마의 말은 바닷물 속에서 겪어야 했던 아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그들의 일상 매 순간마다 떠오르는지를 말해줍니다.

안산에서 진도까지의 길은 진실을 가로막는, 아이와의 온전한 만남을 가로막는 세상의 벽을 뚫고 나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4.16 TV에 참여하여 팽목항에 들어오는 유가족들을 촬영한 어느 유가족 아버지는 그 모습에서 “진짜 모성애”와 “분노”를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V. 혼을 빼놓는 그리움의 아픔, 그리고 투쟁하는 일상

“목요일 날은 목공방 수업 있어서 수업에 참여 했고 금요일 날은 또 교육청 피켓팅 갔다 오고 (중략)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은 소생길, 전부 강원도, 세종시, 대전, 여러 곳에서 한 200명 정도 왔거든요. (중략) “안산 오시는데 손님맞이를 해주는 게 맞는 거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 X반 어제 몇 분 나오셔서 대전 분들 오셨다 가신 거 보고, 목공방에서 남아가지고 목공 저기 양말목 조금 하다가 가고 그랬어요. 비슷해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6권』(2) 2)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손으로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고 하다 보면 아파요, 물집 잡히고. 침엔 물집 잡히는 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파서 ‘아휴 좀 쉬어야지’ 그러고 낫다가도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안해서, 탄 거라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반지 만들었다 목걸이 만들었다, 또 다른 거 했다가. 아침엔 손이, 관절이 아파서...” (『9권』(2) 27)

유가족들은

그리움, 억울함, 분노,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몸을 불살라서라도 아이와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

애도되지 못함으로 인한 서러움과 고립감, 공감하지 않는 사회에서의 위축됨,

벽처럼 느껴지는 현실에서 오는 답답함과 불안함, 짙은 미래,

생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 등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공방, 각종 투쟁활동 등에 몸을 맡기며 그저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심경을 달래거나 잊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V. 혼을 빼놓는 그리움의 아픔, 그리고 투쟁하는 일상

“공방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들이 무서웠어요. “왜요? 저희가 뭐 선생님한테 무섭게 한 게 없잖아요?” 엄마들이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농담을 하는데 말은 동동 떠다니더라고요. 근데 엄마들 표정은 무섭게 다들 일만, 자기 일만 하면서 농담은, 말들은 위에서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중압감이 엄청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알고, 그렇게 해서 토닥토닥한다고 그러나요? 우리끼리 토닥토닥한 거지. (『15권』(3) 14)

유가족들은 오직 유가족들과의 만남에서, 그리고 몇 년을 함께 했던 지지자들 앞에서만 웃고 떠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수다와 웃음 뒤에는 고립된 자들끼리의 토닥임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더 깊은 마음속에는 위에서 말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있기도 합니다.

표면적인 말이나 표정이나 몸짓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해하고, 함께하고, 애도하고, 환대하는 사회가 되지 않은 한 그들은 영원히 고립된 섬에 갇힌, 별거벗은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VI. 후회와 성찰, 아이와 함께 하는 삶

▪ 후회와 성찰, 아이와 함께 하는 삶

“너무 내가 진짜 한심하게 살았다’ ‘내 새끼만, 나 하나만 보고 살았던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결국은 내 자신을, 우리 애들을 만든 건 우리 자신이다’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한 거다’ (울먹임) 그런 생각이 들어.” (『4권』(1) 13-14)

아이를 보내고 현실에 직면하면서 유가족들은 남다른 성찰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술은 어찌 보면 자신을 반성하는 일반적인 말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술 전체의 맥락과 구술자의 표정, 울먹임을 통해 그 진정함과 깊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의 지속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만 잘살면 되’, 보통사람으로 생각했던,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돌러보게 되요. 내 주위에 뭐가 있나, 나 말고 저 사람이 무엇을 당하고 있나, 장애인 그것도 한 번 돌러보게 되고. 서명하는 데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저거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도 할텐데’ 지금은 가서 보고 서명하고. 그거 조금 바뀌었다고 할까? 아직도 멀었는데, 그래도 돌러볼 수 있는 저기가 생긴 것 같아요. ‘나 말고 저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 동안은 눈 막고 귀 막고 그리고 살았는데 조금 보여요.” (『15권』(3) 16-17)

유가족들은 이제 별거벗은 자들의 현장을 찾아가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분과와 4.16 합창단은 지금도 전국의 소수자들의 투쟁 현장을 돌며 연대, 나눔, 사회적 실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VI. 후회와 성찰, 아이와 함께 하는 삶

“특별법 안에 어... 특별입학이라든지, 아니면 배보상 문제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논의가 저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저희 가족들이 투표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본인은 떳떳한 부모지만, ‘다른 부모는 아닐 수 있어’ 라는 그런 불안감이 다 있었어요. (몰 마시고) 비공개 투표를 해서 인제 했는데, 결과를 열어보고 가족들이 다 울었어요. 한 97프로가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중략) 굉장히 부듯했죠.” (『8권』(3) 7)

“대리기사, 그 사건이 터진 거죠. 그 때도,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협의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중략) 그 일 다음에도 회의 때 그 분들을 불러 세운 적 있었어요. 전 솔직히 가족들이 육할 줄 알았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 욕 먹었다. 쪽팔리다. (웃음)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 너무 많이 떠나갔다. 사실 그랬거든요, 대리기사 폭행 사고 때문에 특히 안산에서 민심이 확 떨어졌어요 진짜. (중략) 사회자가 앞에 사회를 보고 얘길 하는데, “그래두 우리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니까, 법적인 절차는 인제 본인들이 알아서 다 알아 갈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고맙다고 해주자” 박수쳐줬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도 더 성숙하네. 어, 난 욕이라고 해주고 싶었거든. [비공개] 그래서 가족들이 다 박수쳐줬어.” (『8권』(3) 8)

유가족들은 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격주의 확대운영위원회와 매월 1회의 총회를 개최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긴급 사안이 많아 매월 1회를 넘어 수시로 임시총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버리고 또 용서와 포용을 실행하며 정의에 대한 각성을 높여가기도 하였습니다.

VI. 후회와 성찰, 아이와 함께 하는 삶

“우리가 이제는 울면서 그냥 호소하는 것은 지났다’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무장을 해야 된다’ ‘현실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더 공부를 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진상규명 세부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서 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힘이 있어야 가족들의 힘도 더 나고 더 오래 장기간 견딜 수 있는 그것, 힘의 원천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야 이거 계란에 바위치긴데 이거 되겠어?’ 하면서 의지도 꺾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돌아간다 그러면은 우리, 우리 피해자가족들은 더 상처도 될 것이고 평생 한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권』(2·3) 34)

“애가 어떤,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사람은 다 각자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다르게 태어났는데 거의 다 부모들이 끼어 맞추잖아, 이 사회에.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람으로 자를 거 자르고, 틀에 정형화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지금 교육이고, 사회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런 사람인데. 저도 ☆☆☆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한 거죠. 근데 OO이를 위한 기도, 누나를 위한 기도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안전하게 안전,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10권』(3) 15)

유가족들의 후회, 반성, 성찰에 의한 새로운 깨달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는 지속을 위해 “공부를 해서 많이 알아야” 한다는 자각은 진상규명 과제에 대한 몇몇 연구팀을 통해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저서를 함께 읽고 저자의 이야기를 듣는 독서회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가장 후회하고, 그럼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생각을 변화시킨 것이 교육에 대해서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믿고 떠났던 아이들에 대한 회한 때문이라도 입시교육에 아이를 몰아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살아가도록 아이를 끌어갔던 그간의 삶에 대해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이제 교육이란 “정형화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을 깨닫고 자신의 개성에 따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주체를 길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VI. 후회와 성찰, 아이와 함께 하는 삶

“요번에[2016년] 이제 5월 달이면 엄마 장이 두 번째 열리는 건데, 지금 그거 작업이 막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어…… 뭘가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작품을 내서 판매가 되고, 또 그 판매를 함으로서 누군가의 또 좋은 일, 어려운 아이들에게 아니면 노인들에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거. 또 그렇게 한다 하니까 더 엄마들이 더 적극적이야. 그래서 그냥 하루 하루 버티는 거지, 무언가 하나 완성하면서. 우리는 되는 것도 없는데 (웃음) 뭘가 하나는 완성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어떻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해결이 되지 않을까……”(『5권』(3) 8)

“협동조합 한 번 만들어 볼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중략) 전부다들 소임을 다 해서 이제 누구누구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다 만들어서 각자들 만들고 싶은 것 만들어서 출품 하려고 다 각자 만들고 있어요.”(『12권』(3) 14)

“이젠 나도 사회 운동을, 사회 활동을 해야 될 거 같아.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나의 삶을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시민들과 같이, 내 옆의 주민들과 같이 사는 세상에 살고 싶은 거지. (중략) 아픔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고, 내가 받았듯이 나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겁하게 이제는 예전처럼 숨고 싶지 않아요. (중략) 우리 세월호 참사 일이 다 벗겨졌다고 해서 내가 숨어버리면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중략) 더불어 사는 세상, 더불어 가야지.”(『22권』(2) 30)

이제 유가족들에게 노동은 돈 벌어 아이에게 좋은 것 입히고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 “누군가의 또 좋은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엄마 공방’에서 물건을 만들어가듯 하나하나 완성해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어떻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먹고 사는 일이든, 진상규명의 일이든,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이든 그렇게 노동과 행동을 해가면서 완성해가는 것이라고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미래를 개척해 보겠다는 생각,

“비겁하게 이제는 예전처럼 숨”지 않고 직접 나서서 사회운동을 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 등

유가족들은 스스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VI. 후회와 성찰, 아이와 함께 하는 삶

“이것도 ☆☆이 웃이고. 집에 들어가면 ☆☆이 신발이 놓여 있어요, 한 중앙에 일부러 뒀어요. (중략)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는 없지만 ☆☆이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고, 실제로. 나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누나는 잘 모르겠는데, 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향력 안에 있지 않을까 앞으로 삶이. 그냥 예전처럼 다른 아이들이 추구하는 성공만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가족의 삶을 다 바꿔 놓은 거고. 실제로 저나 ☆☆ 아빠는 바뀌 났고. 삶의 전부인 거죠.”(『10권』(3) 17)

유가족들이 생각들은 마음과 몸의 고통과 영겨있기도 하고 분노와 불안 등의 심리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복합적인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찰과 새로운 결심들은 보다 진정성을 갖고 지속되는 것일 겁니다.

이들의 생각의 변화와 지속은 무엇보다도 죽은 아이와 함께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달력은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서 있다”는 유가족들의 말은 이들이 ‘메시아적 시간’을 느끼고 있으며, 미래의 ‘허상’에 매달려 무작정 달리는 삶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사랑하는 이의 바람들과 가치와, 그 모두와 함께 하는 고통스럽지만 다시 태어나는 지금의 현실만이 진정한 미래를 만들어 감을 자각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 공감과 전달하기의 학문

유가족들의 고통의 실재, 마음의 전변들은 알려져 왔던 것보다 깊고 복잡하며 진실되고 강력합니다.

“해석과 이야기의 학문”으로 접근했다가 이론의 틀에 그 복합적인 실재들이 환원되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연구자로서의 그러한 ‘망설임’은 4.16 구술증언사업으로 하여금 “공감과 전달하기의 학문”을 지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연구자의 관점, 습득한 이론 틀, 판단, 해석에 의존하기 쉽다는 점에서 해석과 이야기하기가 구술연구의 주류를 이뤘은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게조차 합니다.

하지만 4.16 구술증언사업에 담긴 구술의 방대하고 심층적인 내용들은 그 어떤 연역적 차원에서의 이론의 접합이나 그에 따른 코딩, 그리고 해석적 글쓰기로 환원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망설임’의 연구는 해석과 이야기에 대신해 공감과 ‘침묵’의 드러내기를 중심에 둔, ‘전달자’로서의 연구방법을 세워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고통, 애도, 내재화된 구조와 의식, 몸의 기억들을 드러내고 ‘침묵’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연구는 4.16에 의해 전복되어버린 ‘과학의 방법’ 혹은 ‘이론적 해석의 방법’에서 탈각하여, 현장과 사람이 전면에서 서는 연구를 실행하는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학은 근대적 기록론으로 경사하여, 문헌기록을 중심에 두고 출처주어나 기능주의와 같은 고전적 이론에 따라 기록체계를 기획하여 수집하고, 조직화하며, 공유하는 일에 집중해왔습니다.

4.16 구술증언사업은 이러한 근대적 기록론으로는 마음과 기억의 복합, 중층적 성격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마음과 기억의 구술에 중심을 두고, 이에 따라 귀납적으로 정리된 체계에 따라 문헌기록 등을 조직화하고 공유하는, ‘기억’의 기록하기를 지향하는 방법적 모색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술에 담긴 실재로서의 마음과 기억에 연관 기록들을 배치하는 방식은 출처나 조직 혹은 기능들에서 배제되었던 ‘침묵’들을 복권시키는데 유의미합니다.

또한 4.16 기억저장소에서 시도된 바 있는 유가족, 연구자, 기록관리자의 협업적 기록관리 방식 역시 유가족들의 몸과 마음에 내재한 ‘침묵’을 기록관리의 중심에 두도록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구술의 편찬과 연구적 편집, 기록 콘텐츠의 구성, 구술을 중심으로 한 기록 문치의 개발 등이야말로 ‘기억’을 기록하여 이를 전달하고 공유한 길이 될 것입니다.

'침묵'의 역사하기, '망설임'의 연구하기, '기억'의 기록하기가 요구되는 이유는 유가족들의 4.16 사건에 대한 기억과 법체계·과학·이론에 입각한 지식권력의 '판결' 간의 길항 속에서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진실을 외면한 4.16 재판과 특조위의 진상규명의 현실은, 유가족들의 '침묵'을 드러내고 그들의 기억을 집합적 기억으로 형성해감과 동시에 이를 '광장에서의 진상 규명'으로 이어가야함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16 구술증언사업에 담긴 유가족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법체계나 이론을 뛰어넘어 실재로서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지식권력의 은밀한 폭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침묵'이 말하는 구술, 구술사, 구술연구를 실행해가는 것은 4.16 사건이 학문계에 던지고 있는 근본적 물음에 응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끝]

김 원(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발표는 세월호 사건과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했던 국가에 맞서 사건의 사실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증언운동을 전개했던 구술증언운동의 전개과정 및 특수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장기간 증언운동에 참여한 발표자는 더욱 그러하겠지만, 아직도 세월호를 어떻게 학문이란 지평 안에서 다루고 글로 표현할지는 이 사건에 분노해왔고 공감해온 많은 이들의 고민거리이다. 어쩌면 진정성 있는 위령이나 애도를 위해서는 유족들이 충분히 슬퍼하는 동시에, 고인이 없는 삶을 사는 의미를 찾는 동시에 가해자의 재발방지 노력과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노력이 동반되는, 다시 말해 진실성 있는 위령을 위한 ‘기다림’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4.16구술증언이 진실규명이라는 기록운동의 형태로 전개됐고, 이는 개인이 아닌 집단의 형태로 이뤄진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지녔다는 점에서, 이후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와 고민을 공유하는 작업과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발표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과제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발표에서 4.16증언의 성격 및 특수성을 ‘기록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실 찾기’라든지 ‘피해자중심주의’, ‘진상규명’ 등의 의미 부여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이 ‘운동’으로서 4.16증언기록화의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유사한 패적이라고 파악하는 데는 논란이 존재하지만, 민주화 이후 진행된 현대사 증언을 확보하는 연구자들의 움직임, 한국전쟁 등에서 민간인 학살이나 피해에 대한 자료, 증언을 청취하는 흐름도 이런 흐름의 맥락 속에 포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편으로는 민주화를 전후로 한 흐름과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운동을 제기한 집단, 사건과 증언운동 간의 시간적 근접성 등 측면에서 많은 차별성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진상규명으로서 증언운동’이란 차원에서 4.16 기록화 운동의 역사성을 어떻게 현재적으로 위치시켜야 할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두 번째로 여러 연구자들이 4.16증언의 학문적이며 역사적 필요성에 대해 자각했지만, 세월호와 같은 미증유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나 구술에 대한 윤리적,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예상하진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JAL추락 사건을 다룬 노다 마사야키의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 : 대형 참사 유족의 슬픔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자에게 가장 가벼운 시련을 줄 수 있는 돌연한 죽음은 산 자에게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발견되지만 배상과정에서 조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

수준으로 배상을 매듭지으려는 가해자 측의 태도라든지 ‘감정표현불능증’에 가까울 정도로 인간으로서 감정을 자각하지 못하는 기자들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한 던 가해자로서 정부 등 일련의 움직임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빈곤한지 드러내 주는 사례인 동시에,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구술증언에서 윤리적 문제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물론 유족이 체험하는 슬픔의 깊이는 유족, 사망한 가족, 죽음의 상황, 사건 이후 환경 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쌍방향적인 대화인 동시에, 구술성이란 특수성을 지닌 구술사의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4.16구술증언운동이 다른 구술 작업과 비교해볼 때 구술의 윤리적인 면에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끝으로, 숙제내지 이후 과제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다. 발표의 키워드가 ‘말하기-정치’, ‘듣기-윤리’가 아닌가 싶다. 토론자의 방식으로 이해하자면 금지되어온 말하기, 증언이 누군가에 의해 제한된 피해자/유족들이 말하기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 이 발표에서 ‘정치참여적’ 등으로 표현한 - 측면을 지니는 동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외상을 지닌 피해자들의 체험을 듣는 과정 자체가 ‘깊은 슬픔에 대한 공감’ 아니, 더 나아가서 슬픔의 사회화를 향한 몸짓도 포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구술증언과정 및 그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윤리라는 키워드의 함의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더불어 토론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슬픔역시 인간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감정이며, 고통을 받은 자나 트라우마를 지닌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슬픔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기 보다, 그/그녀가 겪은 비극 너머에서 다음 인생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원론적이지만 망자에 대한 위령역시 산 자와 죽은 자 간의 쌍방향적인 대화는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산 자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꿈 속에서든 어디서든 듣고 망자가 겪은 비참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말 못하는 망자’대신 호소하고 행동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은 아닐까. 이 점에서 4.16증언운동의 과제내지 방향역시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인생이 바뀐 만큼, 가해자 역시 삶의 방식이 변해야 함을 호소하고 피해자의 ‘죽음 자체의 사회적 의미’를 유족, 관련자들과 깊게 공유해 나아가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것이 큰 틀에서 ‘애도’일 수도 있고 ‘위령의 사회적 의미’를 증언운동이 긴 호흡으로 가져나아가는 방향이 아닐까 제언을 할 수도 있을 듯 싶다.

<토론문: “4.16의 기억과 ‘침묵’이 말하는 구술”에 부쳐>

문지 못했던 말들, 삼켜야했던 말들에 대한 메모

유해정(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 문제의식 하나. 2014년 4월 16일에 머무른 재현

연구자는 “기억하겠다 약속”이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권력적 가벼움’ ‘시민적 가벼움’의 위기에 처한 이유를 유가족들의 기억, 사유, 고통이 담지 한 강렬함과 구체성이 제대로 사회화되고 공감되지 않았음에서 찾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에 일편 동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사로부터 4년 반이 넘는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기억, 사유, 고통이 2014년 4월 16일에만 머무른 상태로 사회적으로 재현되고 공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이 토론자의 첫 번째 문제의식이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안겨준 숙제 중 하나는 일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다. 죽은 자와 유가족의 시간까지는 아닐지언정, 이윤을 중심으로 성찰을 상실한 채 잠시도 멈출지 모르는 일상 세계의 시간을 재조정하고 재구축할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하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혹여 일부에게 성공했다고 해도 지속되지 못했다. 물리적 시간의 경과와 빠른 사회적 속도, 그리고 다양한 정치사회적 지형 속에서 세월호 참사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사건이 되어가고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과 고통이 타자화 되고 벌어지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 현상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일상의 속도를 멈추고 유가족들의 곁을 지키며 정치적 애도에 동참했던 이들의 입장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사유, 고통이 그날에만 머무른다면 공감이 증폭되긴 어렵다. 그때만큼 충격적이며, 강렬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기억과 사유가 사회적으로 구축되고, 고통이 전염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인정하는 것 속에서 요청되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기억, 사유, 고통을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기억, 사유, 고통으로 끊임없이 소환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즉, 기억과 사유, 고통이 그날에 머무른 상태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삶 전반을 뒤흔들고, 지배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일례로 유가족과 사회가 공감했던 고통이 처절한 어린 자녀의 죽음이었다면, 지금 말해지고 우리 사회가 더 깊이 경청하며 공감해야 할 고통은, 죽음이후 완전히 달라져버린 유가족들의 일상이며, 동시에 진상규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 고통이 더욱 증폭,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참사에 따른 트라우마의 관점으로 유가족들의 일상에 접근하고, 해석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가족의 삶을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던져져 있다. 더 이상 요리하지 않는 부엌과 대화가 끊겨버린 집안 분위기, 단절된 이웃과 소원해진 친인척, 생일과 명절, 기념일의 달라진 풍경, 경제적으로 무능해진 가장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모르는 하루, 의미와 미래를 잃어버린 삶, 살아있음에 대한 구차스러움, 끊임없이 상상되어지는 자녀의 마지막과 또

한 동시에 일상에서 자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에 대한 자책, 더 이상 느끼기 어려운 삶의 희노애락... 정치적 애도 수행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죽음 이후 지난 4년 넘게 유가족들이 마주해온 시간은 그동안 살아왔으며, 축적해왔던 삶의 문법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새로운 삶의 문법을 제시해주지도 않는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일상과 삶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진입했듯, 아이를 잃고 장사지내며 '사회적 상(喪)'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일상과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비일상적인' 새로운 세계에 내던져진 것이다.

이렇듯 삶의 기술들이 무력해지는 시간들은 참사의 끔찍함이 무엇인지를, 죽음 이후 하루하루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과거가 아닌 현재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일상과의 교차 속에서 그 기억과 사유, 고통의 현재적 의미를 반추하게 한다. 유가족도 우리와 같은 시간 속에서 있으나 동시에 비동시대적인 시간대를 살아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구술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역사이며 '그때'가 아닌 그 '이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권현익, 2012), 지금-여기서 우리가 청해야 할 이야기, 들어야 할 이야기, 전해야 할 이야기는 4.16 그날과 함께 그날 이후 메울 수 없는 구멍이 발생해버린 지금-여기 일상의 구체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 ○ 문제제기 2. 유가족다움의 재현

이야기와 재현의 무게중심을 '일상'으로 옮긴다는 것은, 일상을 정치적 애도를 위한 자원으로 삼거나 트라우마로 접근한다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차원에 위치한다. 그보다는 참사가 야기한 기억과 사유, 고통의 현재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유가족다움이란 문화적 폭력, 혹은 정형화된 재현의 틀에서 일정 부분 이탈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연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가족들은 유가족다움이라는 문화적 폭력 속에서, 자신의 사유와 행위는 물론이고 사소한 일상의 행위와 선택마저도 매 순간 검열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축적되어 요구되어지는 '유가족다움'의 문제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 격전 속에서 참사에 대한 호도와 부인, 은폐에 맞선 유가족들의 전략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또한 곁을 지키는 이들, 사회운동조차 정치적 애도를 위한 여정 속에서 유가족들에게 투쟁하는 유가족다움을 요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재현하면서 강화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되지 않으며 상호작용한다.

기억과 사유, 고통의 주체로서 유가족을 사회적 중심에 세울 때, 그들이 딛고 서 있는 일상의 복잡 미묘한 (심리적, 물리적) 상태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유가족으로서의 말하기, 사회적 재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투쟁하는 유가족의 정형화된 상으로만 소환되고,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주체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어린 자녀를 참사로 잃은, 사회적 상의 주체이며,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일상이 파괴된 이들은, 삶은 끝났으나 또한 삶은 계속되어지는 이중적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후자의 삶에서 느끼게 되는 복잡 미묘함은 사회적인 '침묵'을 요구받는다. 일례로, 홀로된 분들은 좋은 짝을 만나길 바란다. 또 누군가는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있는 채로라도 파괴된 삶이 재건되기를 바란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요구받는 이도 있으며, 자신만의 일에 몰두하는 이도 있다. 여행에 발길이 닿기도 하

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배움에 욕심이 나기도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감히’ 행복해지고 싶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욕구들은 침묵을 강요받는다. 정치적 애도의 과정에서 사회적 응답이 부재하거나 미약함으로 유가족들은 사회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했고, 그 ‘침묵’에 대항해 끊임없이 말해 왔지만, 유가족은 싸우는 유가족으로만 말할 수 있었고, 싸우는 유가족들의 말만 취사선택돼 재현되어 들려졌다. 정치적 애도를 수행하는 유가족으로서 유가족다움에서 벗어난 말과 행위에는 도덕적 비난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애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새로운 삶의 문법을 개척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일상의 주체로서의 혼란, 갈등, 진동, 욕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 온 것이다. 이는 정치적 애도에서는 유효하나, 타자와 공존 할 수밖에 없는 인간조건에서 삶을 살아내고, 전환하고,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데는 불리하다. 위축되고 소외되며 고립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들이 말을 삼켰다는 것은, 묻지 않았음, 입을 열지 못했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직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드러내야하는가에 대한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곁을 지키는 이들이, 학문하는 이들이, 나아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유가족들의 언어를 함께 걸어 올리는 것이며, 묻고, 경청하는 것이다. 정형화된 유가족다움의 서사의 한계와 금기에 균열을 만드는 일이다.

유가족다움만으로 유가족이 삶을 구성해야한다고 믿는 사회는 빈곤한 사회다. 상의 과정은 사회적이나 이후의 삶의 과제는 오롯이 개인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상의 과정의 완수가 선행되어야하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유가족이 다양한 삶의 형태로, 상실 이후를 애도하고 살아낼 수 있을 때야 살아있는, 공존하는 삶이 가능하다. 사회가 풍요로울 수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는 이유다.

<참고문헌>

권혁인. 2012. 『학살, 그 이후』. 아카이브



## ■ 제2부 ■

\* 4.16 구술증언 채록의 윤리적 질문들

김향수(서울대)

\* 4.16 구술증언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재현

강재성(서울대)

\* 제2부 토론

이호신(한성대), 소현숙(한양대)



## 4.16 구술증언 채록의 윤리적 질문들

김향수(서울대학교 협동과정여성학전공 박사과정)

### 목차

1. 들어가며
2. 섭외
3. 인터뷰하기
4. 면담자-구술자 관계
5. 나가며

### 1. 들어가며

언젠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사람들이 들어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이슈나 정치적 문제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문제로서 어- 또 누구나 한 번 짚은 맞닥뜨려야 할 현장 안의 그대로. 그리고 또한 사람이 얼마나 힘없이 아니 힘없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거대권력과 처절한 싸움을 싸웠는가. (웃음)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가 그것을 남기고 싶어요. [4.16구술증언록, 2016.3.11.]

구술증언은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목격과 기억을 현재로 불러내 이야기하는 것으로, 4.16 구술증언은 2015년 5월 “더 늦기 전에 4.16 관련 기억들을 소환하고 기록함으로써, 이후 진상규명 및 역사 기술에 기여하고자(4.16기억저장소 구술증언팀, 2015)” 시작되었다. 100여명의 구술자들은 당시 언론 보도, 정부 발표만이 기록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자 구술증언에 참여하였다. 본 구술증언은 역사적 사실 수집에만 초점 두기보다, 4.16 참사를 구술자의 삶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즉, 4.16 참사와 진상규명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 뿐 아니라 이에 연루된 이들의 목적, 경험,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구술증언은 구술자와 면담자의 “구술증언”이라는 이름의 대화로 자료가 생성되며, 이 만남은 윤리적 질문들을 제기한다. “면담자는 구술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역사적 진실을 찾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의무도(윤택림, 함한희, 2006: 135)”를 가지며, 이는 종종 충돌한다. 구술수행 과정에서 구술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이나 규범들은 항상 강조되어 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생존자, 유가족, 잠수사 등 구조 작업 참여자, 동거차도 주민, 자원활동가)”들은 한편으로는 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는 존재로, 한편으로는 진상규명 활동의 적극적인 주체로 여겨진다. 이들은 4.16 참사 피해자로, 즉 참사를 겪거나 참사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피해자

이자 트라우마로 국가의 의료·사회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자, 동시에 4.16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호명된다. 참사 “피해자”인 구술자들의 상흔을 개인적인 것으로 병리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고통의 실재성을 간과해서도 안 되었다. 하지만 구술자들은 4.16 참사의 피해자이지만 자신의 목격과 경험을 구술증언이라는 역사적 자료로 남기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인간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이 4.16 구술증언이 지닌 맥락적 특수성이다.

2014년 11월에 제정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015년 3월 27일 입법 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진상규명 범위 축소, 조사대상으로부터 독립성 훼손 등의 한계를 지녔고, 이에 유가족들은 시행령 폐기를 주장해 왔다. 이러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상황들은 바로 참사의 피해자이자 증인인 자신의 목격과 경험을 역사적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구술증언 참여의 강력한 동인이 되었다.

구술증언 섭외와 채록 등 구술 수행 과정에서 우리는 구술자 보호라는 연구 윤리를 절차로서 윤리 뿐 아니라 논리로서 윤리를 술하게 되물을 수 밖에 없었다. 4.16 구술증언이 아무리 학문적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하더라도, 심연의 고통을 말하고 들을 수 밖에 없는 4.16 구술증언의 내용적 성격 때문이다. 우리는 ‘왜 구술증언을 하며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논리로서 윤리를 검토해야 했다. 본 발표문은 필자가 4.16 구술증언의 첫 1년(2015년 7월~2016년 8월) 구술증언 팀장으로, 지난 4년간 면담자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 글은 어떻게 4.16 구술증언이 지금의 방식으로 정착 실행되었는가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들을 다루지만, 결국 인간의 고통과 심연의 상처들을 듣고 기록해야 하는 연구자의 윤리적 딜레마로 귀결된다.

필드(1999)는 아파르헤이트라는 인종주의적 계획과 내전을 겪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54인 구술사 인터뷰에서, “폭력의 문화에 관해 인터뷰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문화적 공동체 상황에 유연하고 적절한 연구전략 세트의 필요(Field, 1991: 61)”를 강조한다. 특히 연구자는 구술자들에게 “안전한” 인터뷰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술 장소가 구술참여로 인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안전과 함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의미한다. 구술자에게 “안전한” 인터뷰와 “유연하고 적절한 연구전략”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4.16 구술증언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원칙이나 규범은 구술자 개개인의 각기 다른 상황들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상황들, 시간에 따른 변화들에 따라 구술수행 전략은 끊임없이 숙의되었다. 본고는 논의되었던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 중에서 특히 면담자가 구술자와 만나는 과정에 초점을 두며, 구체적으로 첫째 구술자 섭외와 동의, 둘째, 인터뷰 전략, 셋째, 라포와 면담자의 감정 등 면담자-구술자 관계를 논의하겠다. 2016년~2017년 진행된 4.16구술증언록 작업은 현재 출판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 발표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 2. 섭외

첫 번째 윤리적 질문은 섭외와 동의에 관한 것이다. 구술자 섭외에 있어 제기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4.16 세월호 참사 관련 기억을 소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를 구술할 것인가, 어느 집단의 기억을 먼저 소환할 것인가? 어느 집단이 접촉 가능하고 실제 구술증언에 참여할 수 있는가? 누구를 채록할 것인가? 섭외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할 것인가

가? 동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현재 4.16 구술증언은 단원고 유가족(부모), 생존자, 4.16과 관련된 사회활동가, 취재 기자들, 잠수사들, 동거차도 주민들, 단원고 희생자의 형제자매들, 생존 학생들의 부모들로 확대되고 있다.

초기 6개월은 4.16 기억저장소의 상근자들(특히, 임기현 님)의 도움으로 구술증언이 가능한 구술자를 소개받아 전화나 직접 만나 인터뷰 의사를 확인하였다. 섭외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구술증언의 필요에 공감하여도, 자녀의 죽음과 관련된 기억들을 (집중적으로) 소환하는 구술증언의 채록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다.

(○1)쌤이) “☆☆ 어머니의 친한 어머니들이 구술을 하셔서 아마 구술을 하실 수 있을 거 같다” 하시며, ☆☆어머니께 구술증언에 대해 안내드렸다. ☆☆ 어머니는 변호사들이 조사한 것과 다른 점에 대해 물으셨고, 답을 들은 후 “이제 겨우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아직 그런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우셨다. “고생하시는데 도움 못 드려 죄송하다”고 하셔서, “아니다. 어려운 부탁 드려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다 생각 드실 때 연락 달라”며 답하였다. [4.16 구술증언 섭외 기록]

이는 2016년 5월 엄마 공방의 목공 수업 후 구술자를 소개받는 과정의 기록이다. 구술증언 의의와 필요에는 동의하지만 참여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셨다. “도움 못 드려 죄송하다”며 내 손을 꼭 잡으며 우시데, 함께 울며 죄송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았다. 유가족 공동체 활동과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구술증언의 필요에 공감하더라도, 구술증언의 증언을 하겠다는 결정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도움 못 드려 죄송하다”는 미안한 마음이 자책이 될 수 있기에, 섭외자는 세심하게 대답해야 한다. 위 대화에서처럼 “변호사 조사와 구술증언의 다른 점을 물었던 것”은 당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 술한 인터뷰들이 있었다. 참사 초기 변호사들의 유가족 조사, 각종 언론 인터뷰, 유가족의 시민 간담회 등이 이어졌고, 2015년 당시 경기도교육청의 약전, 4.16 기억저장소의 희생자 기록수집, 씨네송이의 참사 후 희생자 첫 생일 영상 인터뷰가 있었다. 이들 사업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억한다는 점에서, 참사와 관련된 일화들과 피해자들의 변화된 삶의 경험들을 수집한다는 점에서, 특히 인터뷰 형식을 띠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희생자 가족, 친구들 그리고 그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많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들로 섭외자는 구술자에게 첫째, 구술증언이 다른 인터뷰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하며, 둘째, 참사 당시 기억을 또 다시 떠올리며 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해야 하는 구술증언의 성격 때문에, 구술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술자의 자발적 참여 의사이다. 적극적 참여 의사를 가진 구술자를 만나기 위해 구술증언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섭외와 동의에 중요한 조건이라는 원칙은 실패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전체 3차에 걸친 구술증언이 2015년 가을 구술자의 거부로 1차로 종료되었다. 구술자의 구체적 거부 사유를 확인하는데도 몇 달이 걸렸다. 다른 인터뷰 ‘정도’(참사 후 변화된 일상이나 진상규명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 등)의 이야기를 하면 된다 생각하고 구술증언에 참여하였지

1) 4.16구술증언록에서 공인을 제외하고 모든 개인식별정보는 기호로 처리하였다. ☆☆은 희생자 이름, ○은 그 외 인명, X는 사람 이름을 제외한 개인식별정보를 의미한다.

만, 진도와 팽목에서 목격을 다시 떠올리고 말하기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러한 실패 경험은 섭외에 있어 구술자에게 구술증언의 수집 내용, 이후 활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가 필수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여기서 풍부한 정보 제공은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풍부한 정보 제공이 예비 구술자에게 설명과 권유 혹은 강권으로 느껴지는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의 문제 즉 면담자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구술자에 따라 다른 방식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부 사유는 어떻게 해석할까? 그 근거는 무엇인가?

섭외가 되었다고 소개받아 전화를 하더라도, “할 마음이 지금은 없다”, “하고 싶지 않다”며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다. “다리 기브스를 해서 움직일 수 없다”, “일 때문에 지금은 바쁘다”, “딸(혹은 다른 가족구성원)이 입원해 간병해야 한다”는 등. 지금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참여 의사가 없음의 완곡한 표현인지, 정말 ‘지금’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인지 해석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언제든 가능하실 때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구술증언에 참여할 수 있다”며 통화를 마치는 것 밖에 방법은 없었다. 참여 의사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간과 사건에 따라 변하기도 하여, 섭외 몇 달 뒤 구술증언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명백한 거부 의사도 있었지만, 적극 참여 의사도 있었으며 때로는 늦은 섭외에 안타까움의 표현도 있었다.

4.16 재판, 청문회, 특조위 조사,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수습, 세월호 인양, 합동영결식,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들 등 세월호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사건들과 공동체 맥락은 구술증언에 영향을 주었다. 구술체록 일시 중단이나 연기라는 일정 상의 영향도 있었지만, 4.16 진상규명의 험란한 노정은 구술자들에게 구술증언 참여 동기를 부여하였다. 재판과 청문회에서 관련자들의 태도, 정치인들의 막말, 일베의 폭식투쟁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갈등적 인식과 사회적 담론들은 구술자들의 목격을 유가족 대기실 안 대화에서 ‘구술증언’으로 역사적 자료로서 만들고자하는 동인이 되었다.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정부, 참사 원인과 책임 귀속을 밝혀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정부의 대처는 구술증언의 필요성을 공동체 내부에 확산시켰다. 구술자들은 세월호 참사, 구조, 수습의 그 곳에 있었기에 증언자로 자신의 위치를 호명한다.

어...어 누구나들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산 증인이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제 지인들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답답하잖아요. 니가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하냐. 언론에 빠져있는 거죠. 믿고 싶은 거고.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거죠. 제가 면담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나 48년 동안 속고 산 게 대한민국이야. 억울한 거죠. 아 또 올라온다.. 아 너무 억울해요. 속고 산 거 같아서. 옛날에는 학생운동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생활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죠. 그게 곧 내가 국가에... 우리가 어릴 때 충성충성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 충성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있잖아요. 이 나라 뜨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48년 살았던 이 나라를 떠났다고 한들 어떤 나라에서 나를 받아주겠느냐. 내가 거기서 여기처럼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거 같아요. 10대 애들처럼... 하 웃기죠. [416구술증언록, 2015.11.10.]

저는 이게 활용이 안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활용 범위는 오로지 지금 마

음 속으로는 애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밝혀지면 저는 더 이상의 어떤 그건 없다고 생각, 그걸로 인해서 사회도 바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기 전에 특조위에서 한 활동이 제대로 되가지고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활용이 된다는 거는 미래에 이제 뭐, 저희 아이의 아이들이 자랐을 때 쯤. 그 때쯤까지도 기억될 수 있게끔. 아 세월호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슴이 턱 막히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16구술증언록, 2015.9.15.]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중요하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이 완벽하지 않지만 가족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원래 제가 암기에 약한데, 자꾸 기억이 잊혀지니까.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두려움도 있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416구술증언록, 2016.3.11.]

구술증언이 점차 진행되자, 구술자가 다른 구술자를 추천하고 섭외하였다. 먼저 구술증언에 참여한 이들은 개인의 목격을 이야기한다는 점(각기 다른 경험, 일대일 면담으로 구술자 주도로 편하게 말할 수 있음) 뿐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역사화할 수 있다는 점(편집되는 언론 보도, 청중을 고려해야 하는 간담회 인터뷰 등)이라는 이유로 구술증언을 권하였다. 2015년 11월 경 구술자 두 분은 3차 구술증언을 마치며 “구술증언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말하였다. 다른 유가족들에게 구술증언을 권하는 과정에서 구술증언이 길어 “구술해라. 구술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굿해라”고 들려,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 정말 진지하게 “4.16 구술증언” 이름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며 구술에 참여한 유가족들이 늘어나며, “구술(증언)”이라는 명칭에 대한 오독이 줄어들었다.

구술증언은 2015년 4.16 기억저장소 사업으로 시작하였고 2016년부터 4.16 가족협의회 지원이 이어졌다. 구술자의 만남과 섭외는 한두명의 게이트키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섭외와 동의는 절차로서 존재하지만은 않았다. 논리로서 윤리는 고통을 말하는 이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여기서 왜 말해야 하는가, 지금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누가 구술증언을 권할 수 있는가, 동의란 무엇이며 충분한 정보 제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이다. 구술자 개인 섭외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면 4.16 참사의 고통스럽고 억압된 기억을 떠올리며 말하고 남길 수 있는가라는 구술자의 판단과 마음의 준비를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 3. 인터뷰하기

두 번째 윤리적 문제는 인터뷰 전략이다. 과거 구술증언은 주로 사건의 원인, 전개, 결말 등 가려진 역사 수집을 위해 묻기 위주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4.16 구술증언은 역사적 사실 수집에서 나아가 구술자의 삶의 맥락을 드러내기 위해 듣기 위주의 인터뷰를 하였다. 구술자의 삶의 맥락에서 4.16 참사는 어떤 의미인지, 삶에서 어떠한 변화들을 가져왔는지, 즉 4.16 경험과 그 해석을 듣기 위해 생애사 인터뷰를 하였다. 생애 이야기는 세월호 참사라는 역사적 경험과 자아와 정체성, 그리고 기억, 사유를 함께 말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구술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이면서도 관찰자이자 해석자이며 동시에 역사 서술의 행위자로

자리매김 한다.

면담자는 구술자 보호라는 의무와 동시에 4.16 참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수집해야 하기에, 묻는 내용과 묻는 방식을 세심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필드(1999)는 폭력의 문화에 관한 인터뷰 전략으로 “세심하게 질문하기sensitive questioning, 경청하는 듣기attentive listening, 인간 경험과 감정에 공감 empathy to human experience and emotion(1999: 66)”이라 정의한다. 특히, 구술자들이 말하기 안전한 공간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된다. “세심하게 질문하기”와 “경청하는 듣기”는 4.16 구술증언에도 적용된다.

면담자는 질문 내용과 방식을 세심하게 선택하였다. 4.16 참사와 관련된 기억을 소환하여 말한다는 것은 구술자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분노스러운 억압된 경험들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면담자는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답변 거부나 인터뷰 중단을 할 수 있다고 구술자의 권리를 안내할 뿐 아니라,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주거나, 때로는 떠올린 기억을 말할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한 질문지 역시 수차례 검토되었다. 특정 주제가 구술자에게 불편한 방식으로 질문되지 않는지? 사회문화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는지? 예를 들어, 희생자 형제자매 구술증언 공통질문지를 검토하며 “수학여행 준비를 위해 ☆☆가 도움이나 부탁을 한 것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은 “수학여행 앞 둔 ☆☆이 모습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로 수정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수학 여행 준비를 함께 하지 않거나 희생자의 부탁을 거절한 경우, 둘째, 당시 사이가 나빠 부탁 등 대화가 없었던 경우, 구술자가 희생자에게 잘 해 주지 못 했다는 자책감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죽음이나 시신이라는 단어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았다. 당시 구술자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힘겨워, 사망 신고도, 희생자 휴대폰 해지도 안/못 하였다. 또한 희생자 수습 경험은 시신이라는 죽은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라는 표현으로 질문되었다.

면담자는 채록 과정에서 첫 번째 청자이면서 동시에 공감적 청중인 좋은 청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트라우마를 언어화하는 기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김수진(2013)은 위안부 구술증언에서 구술자들이 억압적 의미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욕망과 기표를 생산하는 것, 위안부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승화된 시선을 만들어내는 출발은 듣기라는 행위(2013: 65)”에 있으며 이는 “공감적 청중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2013: 65)”이다. 공감하는 청중이 된다는 것은 구술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해야 한다. 4.16 구술증언에서 공감의 표현은 구술자의 말에 대한 추임새라는 언어적 행위보다 표정, 눈빛, 눈물,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행위들로 나타났다. 구술증언에 담겨 있는 고통의 깊이들, 헛된 말들이 난무했던 시간들에 대한 공감/통감은 형언할 수 없는 느낌과 정열을 면담자들에게 불러 일으킨다. 구술 후 침묵의 시간들은 구술자와 면담자 서로의 감정적 추스림을 위해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시간들이었고, 이 침묵의 순간들은 면담자의 질문보다 구술자의 기억으로 채워졌다. 공감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나누려는 구술자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듣기는 경청하는 듣기에서 적극적 듣기로 이어져야 한다. 페미니스트 인터뷰에서 적극적 듣기는 음독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부정되고 간과되고 잊혀진 지식, 경험들로 향하도록 하는 적극적 과정을 포함(Gordon, 1997; Devault and Gross 2007 재인용)”하며, 구술자의 이야기에 있는 부족과 불일치를 인지하며 말해진 이면의 의미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술자의 고통에 찬 기억들은 때로는 말이 아닌 말줄임표, 표정, 몸짓 등으로 표현된다. 면담자는 언어화되지 못 하는 기억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적극적 듣기를 하여야 한다.

면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채록하더라도, 구술 증언 과정에서 쏟아지는 감정들로 부터 구술자 보호는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한다. 질문하는 방식과 내용 즉 이야기하도록 하는 질문의 적정한 선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울면서 계속 증언을 이어 나가는 구술자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었다. 구술증언 인터뷰는 구술자와 면담자가 의례적 시간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 경험들은 절망, 비통, 무력함, 분노, 고통, 모멸과 같은 강렬한 감정과 결합된다. 구술증언 내내 울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구술자도 있었다.

XX일 날 팽목이랑 진도 왔다 갔다 할 텐데 팽목을 딱 갔는데 팽목 갔다가 인제 완전히 짐을 싸서 우리 ☆☆☆아빠 오자 그래서 진도로 체육관으로 다시 왔는데 화면에 ☆☆☆ 학생증을 걸고 나왔다고 화면에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팽목으로 다시 왔는데 거기서도 한참을 기다렸어요. 아침에 댔는데 오후 한 시? 이때쯤에서 아이들이 이제 왔어요. 한꺼번에 딱 왔는데 그 와중에도 브리핑을 쭉 하는데 그 학생증을 걸고 온 애가 XX1번이었거든요 근데 XX0아이를 브리핑을 하는데 어머 우리 ☆☆☆인거예요. XX1번은 우리 ☆☆☆이 학생증을 걸었다고 하는데 단발머리에 키 이야기 하고 너무 우리 ☆☆☆이 같아서 그럼 XX1번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XX1번은 신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을 안 해놨대요 그 XX0번 아이라도 반지를 끼고 있고 우리 ☆☆☆이는 아니야 XX1번이 학생증 걸은 반지 끼고 있는 게 특징이고 우리 ☆☆☆이는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는데 그건 친구 꺼 잠깐 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둘 다 보겠다. 들어와서 봤더니 멀리서 들어가서 봐도 우리 ☆☆☆이가 딱 보이더라고요 XX1번이 아니라 XX0번이었던 거예요. 그 명찰은 우리 ☆☆☆이 학생증은 X반에 XX이 있죠? XXX이 개가 걸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애가 이 명찰을 걸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근처에 있는 애한테 목에 걸어 찢대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애한테 그래서 둘이 만약에 같이 안 나왔으면 나란히 안 나왔으면 XX이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연고자 없는 사람으로 갈 뻔했어요 그래갖고 그 아버님도 들어와서 XX이 들어왔다는 소리는 없으니까 다른 아이 보러 들어와서 XX이 있는 거 보고 XX이 데리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때도 그렇게 해서 왔죠.

면담자: 아이를 데리고 바로 올라오신 건지 아니면 왔다가?

구술자: 목포 XXXX? 우리 ☆☆☆이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너무 멀쩡하고 진짜 차갑고 숨만 안 쉰다 뿐이지 상처하나 없고 진짜 상처하나도 없고 제가 손을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손을 이렇게 해봤어요 굳잖아요 그런데 굳지도 않았어요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 얼굴을 만져봐도 그렇고 그래서 애가 그 때 간지 얼마 안 된 애가 막 그랬다면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막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XX일 날 왔어도 상한다고 그런데 저는 막 ☆☆☆이 막 뽀뽀하고 부비고 그래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됐나 그런 생각을 했죠.

면담자: 좀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구술자: 바로 할까요?

면담자: 목포 XX에서 DNA 검사 하고 하는 동안 기다리고 이럴 때

구술자: 아 XX일 날 그날 아이들이 두 명인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는데 저희 갈 때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목포XXXX 가서 이제 간단한 절차를 하면서 DNA 저희들은 그 전에 했으니까 병원 저기 체육관에서 했으니까 결과 나오기 전에 올라왔어요. 저희는 저희 이후로는 거기서 결과까지 기다렸다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바뀌어서 그런데 저희들은 결과 나오기 전에 DNA ☆☆이 꺼 채취하고 병원에서 사진을 찍는지 어쨌는지 그 안에서 아빠만 들어갔나 저는 어쨌든 안 들어가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병원에서는 오래 지체되어 있지 않았어요. [416구술증언록, 2015.10.27.]

근데 그것도 미안한 게 ☆☆이가 단원미술관, 성호박물관, 향토기념관 세 군데가 그 다음에, 체, 거기 기억이 안 나네. 네군데가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생활 하니까 쉬는 날 휴일에. 아빠는 바쁘니까 제가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좀 시간 여유를 두고 공모전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이가 알기도 늦게 알았고. 너무 급하게 찍느라고 하루에 여러 군데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에 성호기념관, 아니 단원 미술관 갔다 올 때는 ☆☆이한테 제가, 다니면서도 평일에 직장생활하고 쉬는 날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해서 공모전에 좀 참가를 하지 왜 이렇게 촉박하게 이러냐고 그런 소리를 제가 막 했거든요. 그런 소리를 하면서 데리고 다니다가 단원 미술관 갔다 오는 길에 ☆☆이하고 티격태격 싸웠어요. 너 매번, ☆☆이가 좀 성격이 급한 게 없어요. 저하고 좀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좀 미리미리 좀 하라는 주의였고 ☆☆이는 닥치면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때도 미리미리 좀 하지 왜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이려고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단원 미술관 갔다 오면서 ☆☆이한테 짜증을 내면서 데리고 다녔던 게 너무 미안해요. 좀 빨리빨리 다니자고. 근데 (잠시 침묵) 짜증내면서 데리고 다녔던 게 너무 많이 미안해요 ☆☆이한테. (침묵)

면담자 : 어머니 좀 쉬었다가 할까요? 괜찮아요?

구술자 : 괜찮아요. 단원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때 다른 전시 때문에 김홍도, 그 김홍도 그림을 다 치워가지고 없었어요. 그러가지고 ☆☆이가 친구하고 두 번인가 갔다 왔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학교에 복도에 가니까 김홍도 그림이 있는데 그걸 대신해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이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빨리빨리 하고 가자고. 그러기만 했어요. (416구술증언록, 2016.01.04.)

면담자는 구술증언 도중에도 구술자의 감정을 살필 수 밖에 없는데, 구술증언이 바로 집중적으로 당시 기억을 소환하기 때문이다. 위 구술자는 계속 울면서 증언을 이어 나갔다. 구술자의 감정적 탈진 우려로, 면담자는 이야기가 전환되는 순간 구술자에게 휴식을 제안하였다. 구술자들은 이처럼 울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곤 하였는데, 이는 일상화된 고통이라기보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계속 말하는 구술자들의 인터뷰 전략이다.

3차에 걸친 구술증언은 구술자가 이미 말한 구술증언 내용에 대한 회고, 다음 구술증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당시 기억을 소환하며 구술증언을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한 구술자는 구술채록 후 꿈에서 아이를 만났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면담자: 어머니,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뵙고 5일만인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구술자: 그 날, ☆☆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 다음날 꿈에 ☆☆이가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선명하게.. 그런데 ☆☆이는 매번 꿈에 나올 때, 말을 안 해.. 소리가 없어..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데, 그 때도... 말은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평소 그대로, 뭐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인제 걸어 다니는 건데, 음.. 너무 생생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게 현실 같더라구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그 때는 이게 악몽인 거죠 저한테는. 이 악몽에 관해서 ☆☆이가 알게 될까봐 굉장히 두렵더라구요. 그래서... 막 불안불안한 마음. 반가우면서도, 혹여 이 사실을, 자기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애가 알까봐 굉장히 조심스럽..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며칠은. 어, 더 인제 막.. 보고 싶고. 그리고, 그냥 부모들이 그래요. 아이들을 꿈에서라도 꿈에서만이라도 만나기를 굉장히 바라는데 보고 난 다음에는... 물론 매번 모습이 좋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인제.. 더, 인제.. 몸살을 하는 거죠. 보고 싶어 가지고. 그랬어요. [416구술증언록, 2016.3.17.]

구술자는 희생자 꿈이 구술증언 후 아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여서 그런 것이라 말하며, 꿈에서라도 아이를 만나는 것이 부모들의 바람이지만 오히려 꿈에서 만난 아이가 지금의 현실을 알까봐 “반가우면서 굉장히 두려운” 불안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회고한다. 구술증언은 구술자들에게 감사와 관련된 그리고 희생자와 혹은 피해 경험을 다시 소환하며 이로 인해 꿈과 몸살이라는 또 다른 경험을 가져다 준다. 때로는 면담자로서 구술자가 계속 구술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은 이어졌다.

한 구술자는 다른 구술자들과 달리 1차 구술 시 감정적 어려움을 쏟아내며 너무 흐느껴 우셨다. 1차 구술을 중단하고 다음 약속을 잡은 후 구술자와 헤어졌다. 돌아가는 길에, 촬영자와 2차 구술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 2차 구술 안내 문자 이후 답이 없어 핑크날 것이라 생각하고 면담자와 촬영자는 마음을 비운 채 구술장소에서 구술 준비를 하였다. 약속시간 10분 전 문자가 와 구술할 수 있다고 답이 왔다. “구술자에게 2차 구술 시작 전에, ‘답이 없어 어디 아프신가 걱정했다’ 했더니, ‘안 오고 싶어서 핑계 생각하다, 핑계가 없어서 왔다’며 웃으며 답했다. 힘든 이야기면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우선 시작하자고 하였다(면담 후기)” 다음은 2차 구술을 마치며 3차 구술 일정을 잡으며 오간 대화이다.

면담자: 오늘 혹시 그 과정에서 빠진 이야기, 뭐 이것저것 했어야 했는데 혹시 있으신지?

구술자: 지금 뭐 얘기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또 무슨 얘기 했죠.

면담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죄송해요 계속 이런 거 물어보고.

구술자: 응응,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또 해야 돼요?

면담자: 한 번 그냥 이제 그 이후의 이제 간담회라든지

구술자: 저 활동 안 해서 할 게 없는데, 그냥 오늘 끝낼까요?

면담자: 아니, 아이[희생자 동생] 이렇게 학교 옮긴 얘기들인지, 그 이후 변화된 것들,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구술자: 없는데

면담자: 안 하시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구술자: 하세요

면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이 시간이 괜찮으세요? [416구술증언록, 2015.11.10.]

구술자를 걱정하며 다음 구술증언에 갔지만, “구술자는 오히려 3차 구술 시작 때, 2차 때 말하지 못한 게 있다며 핸드폰 메모장을 열고 또박또박 이야기하였다(면담후기).” 구술을 마친 후 구술자는 직접 만든 자수 목걸이를 면담자에게 선물하며 “구술증언 많이 (채록)해 달라, 많이 우시지 말고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면담자는 구술자의 보호라는 이유로 인터뷰를 잠깐 설지, 미룰지, 중단할지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은 면담자 일방의 것이 아니라 구술자와 함께 이루어진다. 면담자가 구술자의 감정적 탈진을 걱정하지만, 구술자는 증언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한다. 오히려 구술증언에 감정을 뺀 채 덩덤히 이야기를 하거나, 울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 역시 감정으로부터 인터뷰를 보호하기 위한 구술자의 전략이다. 때로는 면담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물어볼 것을 요구한 구술자도 있다. 한 면담자는 1차 구술채록 후 오히려 구술자가 가감 없이 물어볼 것을 요구했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인터뷰와 간담회에서 나온 “뻔한 질문들”과 “머뭇거리는 태도”는 언론 인터뷰 정도의 기록을 만들기에 자신의 구술증언에 면담자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IRB 기준에서 “취약연구대상”이라 분류되는 피해자 인터뷰에 있어 강조되는 연구 윤리는 항상 “수동적 피해자”, 전문가인 연구자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만 그려진다. 분명 세심한 인터뷰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술자들은 피해자이기 이전에 자신의 상처, 고통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인간이라는 점이다. 인터뷰 전략에 있어 윤리적 딜레마는 바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말해진 것과 침묵, 웅얼거림, 몸짓 등으로 표현되는 것들 사이 간극을 포착해 내야 하는가 아니면 남겨둘 것인가, 구술자의 기억지도를 그려 나가는 조력자이자 촉진자로서 면담자의 역할과 구술자의 보호라는 면담자의 책무 그 경계의 아슬아슬함,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며 이야기하는 구술자의 전략과 듣고 살펴야 하는 면담자의 책무, 바로 그 경계에 대한 질문들이다.

#### 4. 구술자-면담자 관계

세 번째 이슈는 면담자의 감정과 라포 문제이다. 연구 윤리에서 면담자는 구술자에 대한 태도와 책임이 주로 이야기되지, 구술자와 면담자의 인간 대 인간 만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감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윤택림(2011)은 “구술사 인터뷰는 공감을 통한 사회적 애도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공감(empathy)’은 바로 “진정한 듣기(402)”의 시작됨을 강조한다.

구술증언은 구술자의 생애, 4.16 당일부터 팽목/진도에서의 경험, 참사 후 삶의 궤적과 변화를 그 내용을 담는다. 한 구술자는 “처음에는 어머머 갔는데 두 번째는 계속 울고 세 번째는 막 화내다 나왔다”라 말하였다. 구술증언은 세월호 참사 이전의 구술자의 삶, 일상들, 희생자와 보냈던 일상들을 회고하는 과정이며, 참사 소식을 듣고 팽목과 진도에서 목격,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속에서도 살아가는 삶 때로는 정치적 투쟁 뿐 아니라 일상적 투쟁 등이 이야기된다. 즉 참사와 관련된 고통, 그리고 기억과 망각, 이야기된 말들과 형언할 수 없

는 감정들이 쏟아지기도 하며 때로는 이미 인이 박혀 감정을 절제한 채 덩덤히 이야기되었다.

구술증언을 듣는 과정에서 면담자들은 구술자의 이야기에 초대되며 때로는 정서적 감정적 전이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한 면담자는 구술증언 후 구술자가 “얼굴에 묻은 잉크를 닦으라”는 말에 거울을 보니 눈물을 닦다 만연필 잉크로 얼굴이 범벅된 것을 알게 되었다. 너무 울어 다음 날까지 머리가 아파 누워있거나, 첫 채록 후 정신 없이 울어 한시간 동안 거리에서 배회한 경험도 이야기되었다.

공통질문지로 첫 구술채록을 마친 후 열렸던 워크샵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토론된 주제는 바로 “면담자의 눈물”이었다. 토론 과정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 때론 면담자의 눈물이 면담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비추지 않을까 걱정도 토로하였다. 면담자의 눈물에 대한 구술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미 건조하게 말하는 자신과 달리 “대신 울어줘서 고맙다”는 구술자도 있었고, “그렇게 우시면 어떻게 구술하시겠어요”라고 면담자를 염려하는 구술자도 있었다. 면담자의 눈물에 대한 토론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면담자의 눈물 : 1차년도 구술 증언 특성 상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다. 하지만, 면담자가 눈물이 지속되어 구술 면담을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감정이 제어 안 되 다음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면), 또한 구술자의 감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면담자가 잠시 휴식 후 구술을 재개하도록 한다. [4.16 기억저장소 구술 증언팀 5차 회의결과]”

4.16 구술증언 채록 과정에서 면담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전문가로서 자기절제 능력의 부족이라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면담자의 눈물을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라 명시하였다. 하지만 면담자의 눈물이 구술자의 구술증언을 이야기에 방해가 된다면 면담자가 감정을 추스린 후 구술을 재개해야 한다. 면담자의 눈물이 감정적 공감으로 이해되어 구술자가 이야기를 지속하는 경우와 달리, 구술자의 이야기가 끝나 다른 질문(다음 질문 혹은 구술 내용 속에서 질문하기 등)이 필요함에도 질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이는 구술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언어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게 조력 뿐 아니라, 구술자의 구술내용을 바탕으로 비판적 질문을 하는 역할 때문이다.

3회에 걸친 구술증언 채록은 면담자와 구술자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구술자의 내밀한 경험들이 이야기되어 구술자와 면담자는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 채록 과정에서 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 감정적 교류 등 다양한 요인은 라포 형성에 영향을 준다. 세 차례의 구술증언이라는 ‘의례적 시간’을 함께 한 구술자는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 면담자에 대한 걱정과 격려 등 연대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구술자 면담자 개인 간 라포는 구술증언팀의 일원으로 채록하기에 개인 간 라포는 초기 면담자회의의 주된 안건이었다.

면담자-구술자 개인 간 라포와 구술증언팀과 구술자들 혹은 피해자 공동체의 라포는 구분되어 이야기하여야 한다. 4.16 구술증언의 섭외와 채록은 증언팀과 피해자 공동체의 라포로 신뢰가 형성되었기에 시작할 수 있었다. 4.16 구술증언은 첫 만남에서 채록이 시작되며, 면담자는 처음 만난 구술자에게 구술증언 목표와 방식에 대한 해설, 이후 구술 자료의 활용, 채록과 이후 구술자료에 대한 구술자의 권리 안내한다. 구술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에 답하며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때로는 사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라포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술자가 구술증언이 무엇이며 어떤 이야기를 수집하려 하는지,

누가 수집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등은 구술 증언의 목적과 수집 방법 등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정보 제공은 구술자의 구술증언 참여 판단과 어떤 내용을 증언해야 하는지 구술 내용 준비에도 영향을 준다. 구술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 면담자이지만 “4.16 기억저장소 구술증언”을 함께 해나가는 협력자로서 면담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구축할 뿐 아니라 구술증언에 대한 이해는 이후 구술증언 내용에도 영향을 끼친다.

면담자들은 다른 구술채록과 달리 사전면담 없이 채록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라포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맺어야 하는지 토론이 이어졌다. 이는 당시 구술자 공동체, 그리고 개인들의 상황과 면담자마다 각기 다른 구술사 인터뷰 전략에 대한 이해가 원할한 토론에 요구되었다. 지나고 보면 면담자들의 공통점은 구술사(혹은 질적 면접) 인터뷰가 가능한 연구자라는 점 밖에 없었고, 인터뷰 전략과 스타일도 달랐고, 무엇을 라포로 보는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밥을 함께 먹는다’는 행위의 의미와 구술자의 제안에 거절하거나 응대하는 그 근거 역시 현실적 문제이기에, 구술팀 5,6,8차 회의에 걸쳐 각기 다른 상황들을 공유하고 재논의하여야 했다.

“면담자가 구술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음료 식사(계산), 이후 라포 문제

: 면담 사례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선물)은 저장소 요구에 따라 전달하지 않는다. 면담시 필요한 음료(물, 커피 등)는 면담 진행 장비이기 때문에 면담자가 판단해 제공할 수 있다(저장소 예산 지원-면담진행비 회당 2만원-한도 내에서) 식사는 면담자가 먼저 구술자에게 권하지 않지만, 구술자가 면담자에게 제안할 시에 응할 수 있다. 면담 이후 라포는 면담자 각각 판단에 맡긴다. [4.16 기억저장소 구술증언팀 5차 회의결과]”

인류학의 현지조사 경험에서 보듯, 구술자들이 어떻게 구술증언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하고자 하는가는 4.16기억저장소 구술증언팀이 계획한 대로 가지 않는다. 구술자가 구술증언을 하며 면담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인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등, 구술자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구술증언이 채록 외에 다른 만남들이 구술증언의 과정으로 이해될 우려를 거두어야 했다. 또한 면담자가 라포라 생각하고 이어나가는 만남들이 혹시 구술자들에게 기자들의 취재 경쟁처럼 구술자 내부의 또 다른 경쟁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을 염려하였다. 구술자와 면담자가 아무리 격이 없이 지내고 서로 존중하는 인격적 만남을 한다 하더라도, 둘의 권력 관계가 동등해지지 않는다. 여기서 권력 관계란 단순히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성별 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구자 혹은 지식인으로서 면담자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인 구술자는 단일한 집단도 아니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평균으로 권력 관계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터뷰어/인터뷰이 권력 관계는 구술자의 이야기, 즉 경험과 생각을 구술증언이라는 역사적 사료로 만들고, 그 자료를 만드는 인터뷰에 능숙한 기술들을 지녔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구술자들이 증언에 참여한 이상, 더 좋은 결과물을 위해 구술채록 외 다른 노력의 필요로 느낄 가능성과 논란을 차단해야 했다.

라포에 대한 면담자 일방의 이해와 지속은 구술자가 구술증언 과정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이후 구술자 섭외와 채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면담자와 구술

자의 개인적 만남 혹은 라포는 면담자와 구술자의 개인적 판단에 맡기지만, 이 개인적 만남은 전체 구술채록 종료 3주 후 가능하다고 정하였다. 이 원칙 역시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했다. 면담자들은 구술자들을 예기치 않은 공간에서 만나기도 하였고, 구술자와 면담자로 4년의 시간들을 따로 또 같이 보내게 되었다.

연구자의 전문성이란 무엇이며, 연구자의 감정 면담자의 감정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채록 과정에서 구술자와 면담자의 감정 교류, 혹은 면담자의 감정적 전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포란 무엇인가? 감사 혹은 친밀함의 표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고통 경험을 이야기한 후 감정적 추스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면담자-구술자 관계는 일방향이 아닌 복합적 다면적 요인들이 개입된다. 구술자들은 구술증언이라는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면담자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라포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면담자-구술자 관계가 면담자 일방의 힘이 아닌 더 복잡하고 다방향성을 지닐 수 있을 드러낸다.

## 5. 마무리하며

구술증언은 “구술자와 면담자 모두 감정적으로 힘든 작업이지만...

채록은 유가족 개인들 간의 경험, 그에 대한 해석의 차이들,

공개본 검토 작업은 개개인의 욕망을 볼 수 있었다.

남기고자 하는 욕망, 무엇을 남길 것인가, 누가 읽어야 하며 그리고 이를 읽으며  
그이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고 결정하는.그런 욕망 말이다.“

[4.16기억저장소 구술증언 면담자 워크샵 발표문, 2017.3.5.]

고통스러운 경험을 듣는다는 것, 그 경험을 채록하고 남기는 연구자들에게는 윤리적 딜레마가 있다. 연구 윤리 안에서 취약한 연구참여자들은 인지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수동적 위치만 이야기되며, 전문가로서 연구자들의 윤리적 판단이 강조된다. 이들이 실제한 어려움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구술증언 과정에서 만난 구술자 개개인들을 단순히 피해자로, 트라우마 환자로, 사회운동의 적극 참여자로만 단적으로 규정/바라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난 구술자들은 4.16 참사로 인해 심리적 곤경으로 의료적 도움을 원하거나 필요하거나,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 사람 안에서도 시간에 따라 달라졌다. 우리는 “세월호 피해자=트라우마 환자”라는 단순 공식은 거부하지만, 이들이 4.16 참사 후 겪은 심리/건강 문제를 부인하지 않고 구술자를 대해야 했다. 동시에 트라우마를 개인적 질병, 혹은 질병 담론에 매몰되어 보기보다, 4.16 참사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맥락과 이로 인해 구술채록 당시 구술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미수습자 수습, 인양, 재판, 특조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4.16 구술증언에 참여한 구술자/증언자들은 참사의 피해자이지만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며, 또한 증언의 주체로서 역사적 행위자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술증언은 면담자들에게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인격적 대화의 장을 제공하였고, 우리는 구술자들 증언자들의 피해자성을 강조하거나 역사서술의 주체, 새로운 사회운동의 행위자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인간이 지닌 다면적 정체성들과 결

들을 볼 수 있었다. 면담자 역시 연구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이며 4.16 참사의 증인이다. 면담자의 책임은 전문가인 면담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면담자-구술자의 다면적 복잡한 관계 그리고 구술증언이 이루어지는 맥락 안에 놓인다.

면담자들은 4.16 구술증언의 면담자로 구술자의 감정에 피할 수 없이 연루되며 윤리적 인식론적 탐구에 초대되었다. 피해자(고통을 겪는 사람)와 권리를 가진 주체 사이 경계, 말해진 것과 침묵되어진 것 사이 경계, 말하고자 하는 구술자의 욕망과 구술자 보호라는 연구자 윤리 사이 경계. 어쩌면 이 글은 구술자의 말, 표정에 내재한 기억들을 드러내는 연구 도구 research tool로서 연구자/면담자에 대한 직능적 정체성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일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4.16기억저장소 구술증언팀. 2017. 『4.16구술증언록』 .
- 4.16기억저장소 구술증언팀. 2015. “4.16기억저장소 구술증언 1차 구술서식”. (미간행)
- 4.16기억저장소 구술증언팀. 2015. “4.16기억저장소 구술증언팀 5차 회의결과”. (미간행)
- 김수진. 2013.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39집 1호, 35-72.
- 김향수. 2016. “4.16구술증언 섭외 기록”. (미간행)
- 김향수. 2017. “4.16구술증언 면담자 워크샵 발표문”. 2017.3.5. (미간행)
- 윤택림, 함한희. 2006.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 아르케.
- 윤택림. 2011. “구술사 인터뷰와 역사적 상흔 : 진실 찾기와 치유의 가능성”. 인문과학연구, 30집. 381-406.
- DeVault, M.L. and Glenda Gross. 2007 "Feminist interviewing : Experience, Talk, and Knowledge." in *Handbook of Feminist Research : Theory and Praxis* edited by S.N. Hesse-Biber. London: Sage
- Field, Sean. 1999. "Interviewing in a Culture of Violence : Moving memories from Windermere to the Cape Flats" in *Trauma and Life Stories : International perspectives*. edited by Kim Lacy Rogers, Selma Leydesdorff, Graham Dawson. Routledge

## 4.16 구술증언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재현

강재성(서울대학교 인류학과)

### 목차

1. 들어가며
2. 발화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행위
3. 비언어적 음성
4. 신체적 행위
5. 침묵
6. 나가며

### 1. 들어가며

구술자는 구술 상황에서 언어적인 발화와 동시에 끊임없이 비언어적 행위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낸다. 이런 점에서 구술자료에서 구술자의 언어적 발화에 대한 재현만으로는 구술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 구술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도 함께 재현되어야 구술자의 구술증언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4.16 구술증언에서도 구술자의 비언어적 행위를 발화 내용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표자는 4.16구술증언 채록사업이 시작되던 2015년 촬영자와 녹취전사자로 처음 참여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4.16구술증언 채록사업의 실무자로서 본격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구술 촬영과 구술자료 관리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실무자로서 구술자료가 생산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게 되면서 발표자는 본 발표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재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4.16구술증언에서 구술자료가 생산되는 과정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실제 구술증언(구술자, 면담자) → 영상 및 음성자료 생성(실무자) → 전사록 생산(녹취전사자) → 검독 및 공개 영역 설정(구술자, 면담자) → 『4.16 구술증언록』 출간

4.16구술증언 채록사업의 실무자로서 발표자는 구술증언의 촬영자로서 참여했으며, 이후 전사록에 대한 대략적인 검독 작업을 진행하였다. 실제 구술 상황과 전사록으로 옮겨진 결과물을 상호 대조하면서 볼 기회가 누구보다도 많았던 셈이다. 발표자는 이 과정에서 실제 구술 상황에서의 경험이 전사록으로 충분히 잘 옮겨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구술자의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재현 부분에서 기존의 전사 지침이 놓치고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구술증언이 실제 이루어지는 상황을 촬영하면서 느꼈던 구술의 분위기나 구술자의 감정 등이 텍스트로 옮겨진 전사록에서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지점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구술 상황을 완벽하게 전사록에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최소

한 구술자의 비언어적 행위 등을 통해 나타나는 구술자의 생각과 감정, 구술의 분위기 등을 보다 더 온전히 재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해왔다.

본고에서는 비언어적 행위를 온전히 재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4.16 구술증언에서 어떠한 비언어적 행위가 자주 나타나며 각각의 비언어적 행위들은 구술자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재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현재 총 25권으로 공개된 『4.16 구술증언록』 중 9건과 미출간 된 『4.16 구술증언록』 1건의 『4.16 구술증언록』과 해당하는 영상자료, 4.16구술증언팀이 생산한 “동거차도: 마음의 기록” 영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4.16구술증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언어적 행위들을 네 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비언어적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2. 발화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행위

발화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행위는 발화의 억양과 어조, 속도와 같이 언어적 발화와 동시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위들을 말한다. 구술자는 발화의 속도나 어조를 다르게 하면서 자신의 감정 상태나 생각의 변화 등을 나타낸다. 4.16 구술증언에서 구술자들은 희생자에 대한 기억, 참사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묘사, 투쟁의 경험 등의 주제에서 어조나 속도의 변화를 보인다. 구술자의 발화 속도와 어조 및 억양의 변화는 구술증언 상황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구술자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으로 구술에 임하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렇지만 『4.16 구술증언록』에서는 발화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재현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극의 대본과 같이 (낮은 목소리로), (슬픈 어조로), (격앙된 어조)와 같이 발화의 속도, 어조 및 억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문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4.16 구술증언록』에서 발화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행위를 재현하지 않는 것은 정확한 재현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발화의 어조나 속도는 구술에서의 서사 진행에 따라서 구술자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의 변화와 맞물려 완만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조나 속도가 변화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구술자: 저는 그거는 두 번을 참가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도보한 날이 7월 23일? 7월 23일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엔. 왜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하나면 ☆☆이가 7월 00일 날 생일이었거든요. 그 때도 직장 다니면서 도보하면 힘들니까 아빠 혼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참여해서 했던 거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걸어본 적은 그 때가 처음이었어요. 많이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했냐면. 아이들이, 제가 1박 2일 동안 도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저희 아이들이 다 그랬고 저희 ☆☆이도 그랬고. 그 날, 아이들이 배, 배에서 겪었던 고통이래든가 두려움이래든가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해도 우리 애들이 겪었던 것만큼 고통스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 『4.16 구술증언록』 유가족편 6권 3회차 구술 중

인용한 부분에서 도보 행진에 대한 경험을 구술하면서 구술자의 발화는 정상적인 속도로 시

작하지만, 발화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면서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떠올리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극도로 느려지며, 떨리는 어조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발화가 느려지는지, 떨리는 어조가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지문으로 표시하여 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위의 발화와 같은 경우에서처럼 구술자의 어조나 속도 변화는 구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비록 언어적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개정된 『4.16 구술증언록』의 전사 지침에서는 말줄임표(…)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구술자의 발화가 점점 늘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재현한다.

구술자: 저는 그거는 두 번을 참가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도보한 날이 7월 23일? 7월 23일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엔. 왜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하나면 ☆☆이가 7월 00 일 날 생일이었거든요. 그 때도 직장 다니면서 도보하면 힘드니까 아빠 혼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참여해서 했던 거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걸어본 적은 그 때가 처음이었어요. 많이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했다면… 아이들이, 제가 1박 2일 동안 도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저희 아이들이 다 그랬고 저희 ☆☆이도 그랬고…. 그 날… 아이들이 배, 배에서 겪었던 고통 이래든가 두려움이래든가…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해도 우리 애들이 겪었던 것만큼 고통스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 개정된 전사 지침에 따라 수정한 『4.16 구술증언록』 유가족편 6권 3회차 구술 중

『4.16 구술증언록』에서 발화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행위를 지문을 통해 따로 재현하지 않는 것은 지시적인 지문에 의해 오히려 구술의 분위기나 구술자의 감정 및 심리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는 텍스트로 재현된 내용의 맥락을 나름대로 독해 하면서 구술자의 감정 및 심리 등을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 예로 든 텍스트와 같이 많은 경우 구술자의 발화 내용과 구술자의 발화 속도 및 억양 등은 일치한다. 슬픈 감정을 전달하는 내용의 구술에서는 대개 구술자의 발화 속도가 느려지며 떨리는 어조가 나타난다. 또 분노하거나 급박한 상황에 대한 구술에서는 발화 속도가 빨라지거나 어조가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4.16 구술증언록』에서는 발화 내용과 억양 및 어조가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맥락들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구술자: 그 때 123정이 세월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사진 찍어가지고 청와대에 사진전송하고. 그러니깐, 거기 도착을 했으면 아이들 구조하는 게 우선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그냥 위쪽에 보고하는 게 최우선이더라고요. 자기네들 필요한 거 하느라고 아이들을 하나도 구조도 못했던, 거기 청문회 나왔던 관련된 사람들은 다 사람이 아니더라. 그날 다른 부모들도 마찬가지로였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아이들이 빠진 곳에 몽땅 쓸어들 물속에 다 빠트려 죽이고 싶다. 그 인간들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아이들 구조할 생각도 없었고 살릴 생각도 없었.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거. 거기 증언하러 나온 사람들 하나같이 다 똑같은 인간들이.

위에서 인용한 부분의 재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4.16 구술증언록』에서는 발화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행위를 지시적인 지문으로 재현하는 것을 지양한다. 구술자의 위 발화는 “지난 1년 동안 구술자를 가장 화나게 했던 일이나 사람”에 대한 면담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술자는 세월호 청문회 방청 경험을 들면서 위와 같이 말한다. 텍스트로 위 내용을 읽는 독자에게는 높은 어조에 빠른 말투, 즉 분노하면서 말하는 구술자의 모습이 상상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구술 상황에서 구술자는 목이 메어서 툭툭 끊어지는 목소리로 발화한다. 위 발화 내용에서 구술자는 단지 분노 혹은 슬픔과 같은 표현만으로는 정확히 재현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화에서 구술자의 어조를 (흐느낌)과 같이 지시적으로 처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이때의 구술자가 울음을 섞어 말할 때와 다른 맥락에서의 (흐느낌)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4.16 구술증언록』에서 발화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지시적인 재현은 전사자 혹은 면담자에 의해 구술자의 복잡한 감정이나 심리 상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4.16 구술증언록』에서의 비언어적 행위의 재현은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의 가능성을 없애고, 독자에 의한 열린 해석의 여지를 폭넓게 제공한다.

### 3. 비언어적 음성

구술자의 비언어적 행위의 두 번째 유형은 비언어적 음성이다. 앞서 살펴본 유형의 발화의 속도, 어조, 억양의 변화 등은 언어적 발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반면, 비언어적 음성은 언어적 발화와 별개로 나타난다. 웃음, 울음, 한숨 등이 이러한 비언어적 음성의 예이다. 수정된 『4.16 구술증언록』의 전사 지침에 따르면 비언어적 음성은 (하하하), (하아아-) (휴-)처럼 소리나는 대로 의성어로 표현하는 대신 (웃음), (울음), (흐느낌), (한숨)과 같은 제한적인 지문으로 재현된다.

비언어적 음성을 의성어로 표현하지 않고 제한적인 지문으로 재현하는 이유는 비언어적 음성을 언어로 정확하게 옮길 수 있는 표현을 찾는 것이 힘들다는 것도 있지만, 웃음이나 울음을 표현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의성어들에 의해 독자들의 해석의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술자: 근데 뭐 부모들이, 우리 지금 소송 건 부모들은 무서운 거 없거든요. 다들 그 마음이에요. ‘무서운 거 없어, 우린. 내 새끼 없는데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생각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뭐 겁나는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덤비면 덤벼라, 인제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 거죠, 우리도. 음… (웃음)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면담자: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웃으면서 하셔서….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구술자: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위 구술 상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투쟁 과정에서 구술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토로

하는 내용이다. 해당 구술은 2015년 8월에 진행된 것으로, 참사 이후 1년이 더 지났어도 여전히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와 시행령 폐기 등의 이슈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여전히 투쟁 상황에 대한 구술자의 긴장도가 한껏 높아져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술자는 격화되어 있는 감정을 토로하면서 웃음을 섞어 말하고 있다. 이때의 구술자의 (웃음)은 일반적인 웃음의 의미와 달리,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참사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문제 해결에 뚜렷한 진척이 없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쌓여 가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불만 등의 마음을 구술자는 발화에서의 격한 표현과 모순되는 (웃음)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보다 강조하면서 발화한다. 또한 구술자는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 등이 섞인 복잡한 마음 (웃음)이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때의 구술자의 웃음은 결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웃음과는 의미가 같지 않다.

앞에서 예로 든 구술자의 (웃음)은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비교적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4.16 구술증언록』에서는 단지 반어법적인 표현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맥락에서의 해석이 필요한, 어쩌면 구술자 본인도 어떤 감정이나 생각인지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나타나는 비언어적인 음성도 자주 나타난다.

구술자: 그 전에는 ☆☆이 방을 들어가서 맨날 울었는데, 그렇게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냥 한 번씩 들어가서 ☆☆이 방에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할까... 평생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방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요즘 들어서.

면담자: 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셨어요?

구술자: 음, 제가 것도 정리를 못했어. (웃음) (눈물을 훔침) 어느 날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 그저께 누구 어느 분하고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이야기 끝에 인제는 “☆☆이 아빠 신발이 너무 더러워서 있잖아요, 내가 구둑방에 가서 닦아다가 신발장에 넣어놔” 내가 그랬더니 나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 집 신랑이. ☆☆이 아빠 간지 1년이 넘었잖아요. 정신 나갔대는 거야. 내가 둘은 사람인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이꺼는 당연히 있죠. 근데 아빠 것까지 그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4.16 구술증언록』 27권(미출간) 2회차 구술 중. 지문은 필자가 추가함.

구술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자면, ☆☆이 아버지는 참사 몇 개월 후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했고, 구술은 그로부터 1년이 약간 더 지난 시점에 진행되었다. 여기서 구술자의 웃음이 지니는 의미는 일반적인 웃음의 의미와는 다르게 보다 복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구술자의 감정을 미루어 짐작해보자면 아이의 죽음은 여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지만 남편의 죽음은 정리가 되려고 하는 구술자의 감정 속에서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죽은 이의 구둑방을 구둑방에 맡겼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과, 이런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제3자의 지적을 받은 구술자의 멧쩍음이 맞물리면서 아마 눈물을 훔치면서 동시에 웃는 비언어적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사례를 들자면,

(자막) 보현 어머니: 그 분도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너무 기가 막히다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배로 돌

때는, 솔직히 쪽 들고 갈 때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쪽에 와서 뒤쪽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나왔으면 진짜 얼마든지 이거 (양식장) 선 타고 올라올 수가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고... 진짜..

(INS) 인양작업 중인 바지선 C.U

(자막) 보현 어머니: 오죽하면 여기 주민 분이 소주를 담귀 주면서 우울증 약이라고 다 주시더라고. (웃음) 먹고 자라고. 엄마들 오면. 그래도 우린 맨 처음엔 웃었는데, 근데 먹게 되더라고. (웃음) 한 잔 먹고 잤다니까요. 잠이 안 오니까... 맨 처음엔 웃었어요... (웃음) (눈물을 흘리며 일어섬) F.O

- “동거차도: 마음의 기록” 제작용 스크립트 중. 볼드체 지문은 후에 추가됨.

4.16구술증언팀은 세월호 인양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2016년 2월, 동거차도에서 세월호 인양현장을 먼발치에서 감시하는 유가족들의 구술증언을 동거차도 현장에서 채록했으며, 이때 촬영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동거차도: 마음의 기록”이라는 짧은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위에서 인용된 구술 상황은 세월호 인양 작업 상황을 바라보면서 동거차도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화를 전하고 있다. 이 일화는 구술자가 동거차도 산 정상에서 숙식하며 조작성이 익숙하지도 않은 망원카메라를 보면서 인양 작업을 감시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 구술자에게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웃긴, 혹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인양 작업을 감시해야 하는 중요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거차도 주민은 유가족들에게 ‘우울증 약’이라며 소주를 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웃으면서 소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감시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술자에게 이 상황은 마냥 웃기기만 한 상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동거차도의 인양 현장 감시 초소는 참사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점에서 아이들의 죽음을 직접 체감케 하는 곳으로서 다시 의미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겪었을 아픔을 다시 떠올리면서 잠을 못 이루는 구술자에게 소주는 살아남은 부모로서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해결책, ‘우울증 약’으로 다시 의미가 부여된다. 감시 활동을 위해 술을 마시고 잠들 수밖에 없는, 웃기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구술자는 눈물을 흘리며 웃는 비언어적 음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인용된 “동거차도: 마음의 기록” 제작용 스크립트는 영상과 음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막 부분에 따로 지문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만약 인용된 상황을 연극이나 영화의 대본으로 재현한다면 어떤 지문을 통해 구술자의 웃음과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

이처럼 『4.16 구술증언록』에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적 이해와 감정 속에서 구술자 스스로도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취하는 비언어적 음성이 자주 나타난다. 위 사례 이외에도 회한의 감정 등이 투쟁 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며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들을 구술하면서 구술자는 조용하거나 과장된 웃음을 짓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비언어적 음성은 단지 소리 나는 대로 재현해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재현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구술 내용과 구술자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독자의 맥락적 이해의 여지를 남겨두는 방향으로 재현하는 것이 보다 나을 수 있다. 따라서 『4.16 구술증언록』에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음성을 제한적인 지문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복합적인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4.16 구술증언록』에서 비언어적 음성은 구술자가 경험한 맥락과 그 이면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감정적 맥락까지 중층적으로 독해해야 하는 곳임을 드러내는 기호로도 볼 수 있다.

#### 4. 신체적 행위

구술자의 비언어적 행위의 세 번째 유형은 신체적 행위이다. 4.16 구술증언의 구술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상규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구술자 본인이 현장에서 경험했거나, 그가 생각하는 참사의 진상을 최대한 정확히 전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구술자가 직접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다거나 당시 상황을 몸짓으로 재연하는 등의 신체적 행위로 나타난다.

구술자: 어떤 사람은 배가 이렇게 가다가 (손 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재판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서 직진하는 시늉을 하다가) 갑작스레 오른쪽으로 틀었다고. 그리고 좌현 선수에 있던 친구들은 큰 소리가 먼저 난 다음에 확 기울었다고 그러거든. 그것들을 종합하면 뭔가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어진게 아니고 갑작스레 확 넘어졌다는 거거든.

- 『4.16 구술증언록』 유가족편 1권 2회차 구술 중

이처럼 『4.16 구술증언록』에서는 구술자의 신체적 행위를 소괄호 표시를 한 지문을 첨가하여 재현한다. 그런데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문으로 재현할 구술자의 신체적 행위의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구술자는 발화를 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신체적 행위를 통한 신호를 보내지만 구술자의 모든 신체적 행위를 지문으로 재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원활한 독해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행위는 뚜렷한 의미를 갖고 있거나, 구술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체적 행위에 대해서만 지문을 통해서 설명하게 된다. 위에서 예로 든 구술 내용의 경우, 구술자가 말하는 “이렇게”는 구술과 동시에 구술자가 취하고 있는 손바닥의 방향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술자의 신체적 행위를 지문을 통해 재현한다.

그런데 『4.16 구술증언록』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행위는 단지 구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구술자의 마음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신체적 행위들도 자주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4.16 구술증언록』에서는 신체적 행위에 대한 재현의 범위가 좀 더 넓고 세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술자가 취하는 자세의 변화, 시선 방향의 변화 등 작은 신체적 행위들이 구술 내용과 맞물리면서 구술자의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술자: 그런데 ☆☆이는 배에 있을 때만 나랑 통화했잖아요. 나왔다는 소리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개 이야기 듣고 나니까 나는 불안해지는 게 뭐냐면 개가 나왔으면, ☆☆이가 나왔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애가 안 나왔다는 거잖아.

(중략)

구술자: 밤에 이제 ☆☆이 아빠가 들어갔어요. 팽목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다가 나와 갖고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나보고 그러더라고. 난, 그때까지 말 안하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딱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울먹이며) 그래서 뭐 이제 그때 되었을 때는 우리 이제 부모들도 포기는 다 했었잖아요.

- 『4.16 구술증언록』 유가족편 16권 2회차 구술 중

위 사례의 구술을 영상으로 확인하면, 구술자는 책상 위에 손을 올린 자세를 기본으로 하며 리액션이 크고 잦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술자가 유독 두 손을 맞잡고 가슴 위로 끌어당긴 자세를 유지하는 구간이 있다. 이 자세는 위 내용과 같이 구술자가 참사 소식을 듣고 진도로 내려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의 구술에서부터 아이의 생존 가능성을 포기한 시점에 대한 내용까지 약 5분간 지속된다. 구술자는 아이의 생존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시점에서부터 희망을 포기한 시점까지 두 손을 마주 쥘 채로 구술한다. 구술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시점에서만 두 손을 마주 쥐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두 손을 마주 쥘 행위는 구술자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무의식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구술자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구술자는 아이의 생존 가능성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그래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음을 마주 쥘 두 손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은 침몰 해역에 다녀온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사라지고 아이와의 이별을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마주 쥘 손을 푸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구술자는 마주 쥘 손을 풀 이후 상당 시간 동안 원래의 자세로 구술을 이어나간다. 구술자는 다시 한 번 두 손을 마주 쥘 자세를 취하는데, 이는 수습한 아이를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와 장례식의 운구 행렬을 아이의 친구들이 대신 들어주려고 기다린 일화에 대해 구술할 때이다.

구술자: 그리고 이제 ☆☆이 아빠 친구들이 다음날 ☆☆이 발인할 때 ☆☆이를 이렇게 해준다고. 그 뭐지? 운구한다고 기다리니까, ☆☆이 친구들이 지네가 해 주겠다고. (울먹이며) 우리는 그래서 그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운구하는 것, 그런 것. 아빠 친구들도 아빠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개네들이 와 있는거야. 올라간 날부터 그 다음날도 오고, 발인한 날도 이제 지네가 와서 운구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아빠] 친구 분들이 그러면 너네가 하라고, 너네가 운구하라고. 왜냐 하면 친구니까.

- 『4.16 구술증언록』 유가족편 16권 2회차 구술 중

구술자에 따라 신체적인 행위가 수없이 많이 나타나거나, 주목할 만한 신체적인 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서도 구술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단 한 번의 신체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구술자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재현 및 해석의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행위들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종류의 잘 드러나지 않는 신체적 행위의 의미는 구술자의 전체 구술 내용이나 분위기와 관련 속에서 독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면담자: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버킷리스트 공연을 ‘남겨진 숙제’라고 표현을 하셨던데요.

구술자: 예, (웃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면담자: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건지요?

구술자: 버킷리스트라는 건 원래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자기가 죽기 전에 하는 것이 버킷리스트인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그걸 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니까……. 그래서 애비인 내가 그걸 해준다면, 그걸 하는 동안은 살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침묵) 차마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이지요……. (눈물 닦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면담자: 얘기하시다가 힘드시면 쉬다가 해도 되니까요.

구술자: 예예.

- 『4.16 구술증언록』 유가족편 1권 3회차 구술 중

앞에서 인용한 사례의 구술자는 꽤 활발한 신체적 행위를 동원하여 구술에 임한다. 특히 구술자는 진상규명과 관련한 활동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참사의 진실을 전달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재현하는데 대부분의 신체적인 행위를 동원한다. 그런데 구술자의 발화는 구술증언 내내 상당히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를 유지하는데, 그의 구술 전체에서 유일하게 감정이 표현되는 신체적 행위가 위 인용한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 구술자는 희생된 아이의 버킷리스트(소원)에 따른 공연을 사후에나마 해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회한이나 아쉬움의 감정 등이 이 부분에서야 비로소 신체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눈물 닦음)의 신체적 행위에 담긴 의미는 비단 버킷리스트 공연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구술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부분에서도 구술했지만, 그 때는 이렇다 할 감정적인 표현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구술자가 왜 하필 이 맥락에서 비로소 신체적 행위를 통해 표현했는지 등을 다른 구술 내용들과 연관하여 읽을 필요가 있다.

한편 구술자가 부러 표현하지 않은 감정적인 맥락은 눈물이나 웃음 등의 비교적 큰 신체적 행위보다 더 사소한 신체적 행위 등을 통해서 잠깐 나타나기도 한다.

구술자: 뭐 건설로 하기 위해서 쫓아도 다녔었고, 뭐 인터넷 사업을 한다고도 해봤었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건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근데 별의 별거 다 했어요 진짜로. 좀 뭐 남들에 얘기하면 좀 창피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결론은 많이 까먹었어요. (웃음) 엄청 많이 까먹었어요. 많이 까먹었는데 빛이였었죠, 다 빛이였었죠. 자랑은 아닌데 이게 이전의 삶이었죠. 지금은 이게 물론 4.16 참사 인터뷰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의 회고록 같기도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한 번쯤 이렇게 감추고 싶거나 잊혀지고 싶은 그런…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 『4.16 구술증언록』 유가족편 7권 1회차 구술 중

총 3회차로 나누어 진행된 위 사례의 구술자는 구술 내내 주목할 만한 신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시종 면담자나 (가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구술한다. 그런데 구술자는 인용한 부분에서와 같이 본인의 인생에 대한 회한과 후회, 희생된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는 내용의 발화에서만 시선을 회피하는 신체적 행위를 보인다. 4.16 구술증언에서 구술자들이 발화의 내용에 따라서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 구술자의 경우 시종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다가 특정한 맥락의 발화에서만 잠깐 시선을 주로 돌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정한 맥락에서 시선 돌림과 같이 신체적인 행위가 나타날 때 어떤 내용을 발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해당 구술을 보다 깊이 독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

구술자의 작은 신체적 행위는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신체적 행위의 시점이나 자세의 변화 등을 그와 동시에 진행되는 언어적 발화와 결부하여 해석한다면 구술자의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신체적 행위에 대한 재현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4.16 구술증언록』의 재현 방

식은 구술자의 사소한 신체적인 행위를 모두,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구술자들의 사소한 신체적인 행위는 영상으로 제공되는 구술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지 않고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나은 재현 방식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 5. 침묵

구술자의 비언어적 행위의 마지막 유형은 침묵이다. 구술자는 음성을 통한 신호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전달한다. 『4.16 구술증언록』에서 구술자의 침묵은 지문이나 말줄임표(……, …)로 재현된다. 말줄임표의 길이는 침묵의 길이와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구술의 내용 및 상황에 따른 의미적 판단으로 결정된다. 구술자와 면담자의 말이 이어지는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이나, 구술자의 발화가 늘어지는 경우 등 침묵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짧은 말줄임표를 사용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긴 말줄임표로 구술자의 침묵을 재현한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음성의 공백이 아니라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상 구술자의 침묵은 단지 발화를 하지 않는 것일 뿐, 침묵하는 동안의 자세와 시선, 표정의 변화 등으로 신호를 발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사와 지문만으로는 그 침묵에 담겨 있는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

구술자: [○○이가] 지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전화하고 팽목항에도 내려와 보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개가… 내가 16, 17일 이럴 때는 구조 안 했을 때는 우리 ○○도 그랬거든요. “엄마, ☆☆이가 영리하니까 어떻게든 나올 거야. 그냥 마음 편하게 있어.” 막 그런 말 할 때도 저도 믿었죠. 그렇게 올 거라고…. ○○이 혼자 집에 와서 친척 언니가 와서 봐주기도 하고, ○○이…… 학교는 다녀야 하니까…….

- 『4.16 구술증언록』 유가족편 23권 2회차 구술 중

구술자: 그 때 광주를 갔었는데, 광주에 있는 학생이 어린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 아니면 어, 중3 아니면 한 고 1쯤 돼 보이는 학생이더라구. 남자 아인데. 뭐라 하나면요. 그게 사실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만약에 세월호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될 것이고 또한 중학생이 될 것이다.” 그 얘길 하는 거예요. (침묵) 가만히 생각해보니 맞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광주, 거의 대학생들이 많이 희생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고등학생이, 광주 그 광주도 진짜 학살이잖아요.

- 『4.16 구술증언록』 유가족편 2권 3회차 구술 중

앞의 사례에서는 희생 학생의 형제자매에 대한 부모의 미안함과 보다 복잡한 심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도 힘들었을 상황에서도 부모를 걱정했던 남겨진 자녀의 처지를 헤아려보면서 구술자는 더 이상 말을 아낀다. 침묵 이후 면담자는 장례식 등의 상황에서 남은 자녀의 태도나 생각 등을 질문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술자는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대신 자

매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면서 남은 자녀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뒤의 사례에서는 유가족들이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얻게 된 새로운 자각이 침묵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혹은 희생된 자녀와 비슷한 또래 학생의 말을 통해 이들이 겪고 있는 경험에 대한 경험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음성의 공백이 아니라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상 구술자의 침묵은 단지 발화를 하지 않는 것일 뿐, 침묵하는 동안의 자세와 시선, 표정의 변화 등으로 신호를 발산하고 있을 수 있다. 혹은 의도적으로 발화를 회피함으로써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구술자의 침묵을 재현할 때에는 어떠한 맥락과 의도에서 침묵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면에서 주의하여 그 침묵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6. 나가며

본고에서는 『4.16 구술증언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언어적 행위들의 대표적인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비언어적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4.16구술증언에는 1) 발화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행위 2) 비언어적 음성 3) 신체적 행위 4) 침묵 등의 비언어적 행위 유형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발화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행위는 발화의 속도, 어조 등으로, 4.16 구술증언에서는 발화의 내용과는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상반된 어조나 속도 등이 자주 나타난다. 따라서 『4.16 구술증언록』에서는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지시적인 재현을 최소화함으로써 독자에 의한 열린 해석의 여지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한다. 비언어적 음성은 웃음이나 울음, 한숨 등인데, 4.16구술증언에서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적 이해와 감정 속에서 구술자 스스로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취하는 비언어적 음성이 자주 나타난다. 따라서 『4.16 구술증언록』에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음성을 제한적인 지문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구술자가 경험한 맥락과 그 이면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감정적 맥락까지 중층적으로 독해해야 하는 곳임을 지시한다. 4.16 구술증언에서 신체적 행위는 단지 구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구술자의 마음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서로도 자주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4.16 구술증언록』에서는 신체적 행위에 대한 재현의 범위가 좀 더 넓고 세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술자가 취하는 자세의 변화, 시선 방향의 변화 등 작은 신체적 행위들이 구술 내용과 맞물리면서 구술자의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4.16구술증언에서 침묵은 구술의 내용 및 상황에 따른 의미적 판단으로 재현 방식이 결정된다. 4.16구술증언에서 나타나는 침묵은 구술자가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지시적으로 재현하여 해석의 여지를 좁히기 보다는 보다 맥락적인 측면에서 독자의 폭넓은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정리한 비언어적 행위의 네 가지 유형은 4.16구술증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술증언 작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종류의 것이다. 하지만 4.16구술증언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구술증언과 달리 구술자 스스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등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웃기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재현을 결국 웃음으로 표현한다거나, 구술자의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차마 더 말하지 못하는 감정과 회한 등이

사소한 신체적 행위나 침묵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런 점에서 4.16구술증언에서는 구술자의 비언어적 행위에 담긴 의미를 보다 온전히 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4.16구술증언에서 비언어적 행위가 재현되는 방식은 전사록에서 표시되어야 하는 비언어적 행위의 범위를 보다 폭넓고 세밀하게 정하되, 이에 대한 표시 방식을 의성어, 의태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으로 재현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재현 방식은 『4.16 구술증언록』은 독자들이 보다 폭넓은 맥락적 이해 속에서 구술자의 비언어적 행위에 담긴 의미를 독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4.16 구술증언록』의 재현 방식이 비언어적 행위의 의미를 온전히 재현한다고는 볼 수 없다. 사소한 신체적 행위에 대한 재현의 범위, 침묵의 의미적 판단 등의 재현 등은 여전히 면담자 및 녹취전사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을 경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 구술증언록별로 통일된 재현 수준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구술자의 비언어적 행위의 재현에 대한 보다 발전된 재현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4.16 구술증언 채록의 윤리적 질문들>에 대한 토론문

이 호 신(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파장을 불러 일으킨 엄청난 사건이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가시스템을 마주하고, 이유 없는 죽음들을 손놓고 지켜봐야 하는 무력한 자신을 만나는 일은 우리들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들의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피해자들의 그것에 비하면 새털처럼 가벼운, 너무나 사소한 것에 불과했다. 그 고통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일은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그 고통이 머~언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현재의 일이라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향수 선생님의 발표는 그런 조심스러운 접근과 만남의 프로세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면담자가 경험한 윤리적 고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구술자를 선정하고 섭외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구술자와 면담자가 만나는 모든 과정이 윤리적 딜레마의 연속이었고, 그런 만큼 구술채록의 전과정이 아주 신중하게 설계되었음을 알려준다. 구술채록은 구술자의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세심하게 질문하고, 경청하는 듣기를 몸소 실행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설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면담자의 감정과 라포에 관한 문제까지도 점검하고 있다. 416 구술증언 채록이 “안전한” 인터뷰가 될 수 있었으리라는 믿음은 틀림없이 그 진행 과정에 마련된 이런 세심한 배려와 숙고에서 비롯되는 것일게다. 덕분에 우리는 국가나 대중매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록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해석된 대항기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필드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구술채록이 “안전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구술증언이 이루어지던 당시는 진상 규명을 위한 대정부 투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참사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던 시기인 까닭이다. 그 시기에 어떠한 장소도 결코 “안전한” 장소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다. 상처가 아물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만이 경과한 사건에 대한, 현재 진행형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내는 일이 고통에 대한 또 다른 강요는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아무리 구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진행형인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안전한” 것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히려 스스로의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고착화하도록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면서, 구술자들에게 고통으로 스스로를 학대하도록 만드는 위험을 내포한 것은 아니었을까? 발표자는 구술자의 눈물을 인터뷰 전략의 하나로 이해했지만, 그것은 치밀하게 짜여진 인터뷰의 전략이라기 보다는 고통스러움의 표현 그 자체일 뿐일 수 있다. 구술 후에 겪는 몸살과 꿈, 그리고 불안은 어쩌면 구술채록의 과정이 고통의 일상화를 강요하는 위험한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음을 드러내는 경고의 징후들이 아니었을까? 2015년 5월 “더 늦기 전에 4.16 관련 기억들을 소환하고 기록함으로써, 이후 진상규명 및 역사 기술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맥락에서 이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더 늦게 그래서 조금은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돌아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 기다림이 면담자들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었을까? 그 기다림 이후라면 구술의 경험이 작은 치유로 연결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



먼저 4.16 참사와 그 뒤에 이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분투한 구술자들과 면담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강재성 선생님의 발표는 구술증언의 채록 과정에서 언어화 할 수 없는 구술자들의 비언어적 행위와 몸짓, 표현들을 어떻게 텍스트로 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4.16구술증언 채록팀이 당면했던 문제와 고민들, 그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관해 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어이없이 잃고 이후 엄청난 정치적 공세 속에서 인간으로서 버텨내기 힘든 복잡한 감정들을 겪어야 했기에 4.16구술증언은 다른 어떤 구술 작업보다도 더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구술증언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들을 어떻게 텍스트에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통해 구술자와 면담자 그리고 텍스트를 읽는 독자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문제 삼은 강 선생님의 발표는 무척 소중한 지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4.16구술증언 채록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여러 차례 다른 구술 작업을 진행하면서 구술의 채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재현의 한계 문제를 고민해 온 저에게도 흥미롭고 시사점이 많은 글이었습니다. 대체로 선생님의 발표 요지에 공감하면서도 의문이 들었던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1. 발화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행위로 발화의 억양, 어조, 속도, 그리고 비언어적 음성, 신체적 행위, 침묵 등을 다루셨는데, 저는 여기에 표정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표정이라는 부분을 빠신 이유가 있는지요. 표정은 신체적 행위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분석하신 부분에는 주로 손동작이나 자세, 시선 등에 주목하고 있어서 표정이라는 부분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이나 울음 등도 표정으로 간주될 수 있기는 하지만, 표정은 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비언어적 요소를 재현하는 데에서 전사자나 면담자에 의한 구술자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언어적 행위의 재현을 최소화하고 독자에 의한 열린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표현 대신 ‘(웃음)’, ‘(울음)’, ‘(한숨)’, ‘...’ 등의 간략한 지문만을 사용하였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제한적인 지문이 독자들에게는 구술자의 감정이나 심리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컨대 (웃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미소인지, 호탕하게 웃는 것인지, 헛웃음인지, 비웃는 것인지 현장에 있지 않았던 독자의 입장에서는 ‘(웃음)’이라는 제한된 지문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술이 면담자의 자의적 해석에 너무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언제나 구술증언을 생산하고 전달한 구술자나 면담자의 의도를 넘어서서 독자적인 독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지문을 전달한다고 해서 독자가 항상 그 지문의 지시내용에 한정되어 의미를 독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문을 좀 더 풍부한 언어로 써서 면담자가 그 당시의 분위기를 가급적 자세히 전달하는 편이 독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면담자의 지문을 참고하면서도 구술자의 구술내용을 고려하면서 나름의 의미를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

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구술을 텍스트로 만들 때의 재현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왔고, 구술 작업을 무조건 녹취를 해서 문자화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언어적 요소의 재현 문제는 사실 요즘 같은 영상 시대에는 영상 매체를 활용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텍스트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당장에 책으로 출판해야하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텍스트로 재현했을 때 영상이 갖지 못하는 어떤 이점들이 있어서 인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텍스트라는 매체는 어차피 영상처럼 비언어적 요소들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터인데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고민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오히려 비언어적 요소를 재현하기 어렵지만 텍스트가 갖는 어떤 독창적 힘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그쪽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 ■ 제3부 ■

\* 구술증언록을 통해서 본 4.16 유가족 부모가 경험한 상실의 의미  
이예성(서울대)

\* '세월호 유가족'이 된 엄마·아빠의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  
김아람(연세대)

\* 제3부 토론  
김기영(한양대), 노용석(부경대)



목차

- I. 들어가며
- II. 왜곡과 혼란 속에서 경험된 자녀의 상실
- III. 가까운 관계의 균열: 가족 안팎에서의 변화
- IV.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의 상실
- V. 나가며

I. 들어가며

4.16 참사는 304명의 사망자를 낳은 비극의 사건이다. 4.16으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유가족이 되었다. 이 중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매우 보편적인 프로그램인 수학여행길에 자녀를 떠나보내게 된 단원고 학생의 부모들이 대표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으로 호명되기 시작했고, 스스로도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칭하면서 4.16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 수습 문제에 대해 밖으로 나와 외치기 시작하였다. 2014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러한 유가족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해왔을 정도로 부모들의 투쟁은 널리 확산되었고, 오래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참사 이후 1-2년 내에 약 100가구 정도의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편, 4.16 이후 유가족의 경험에 대한 많은 보도와 연구에서 부모들의 경험은 트라우마, 자녀의 상실 및 사별 경험으로 다루어지곤 한다(김은미 2017; 박찬희·여한구 2017; 이동훈 외 2017; 신명진 2016; 박기목 2015).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 있는 환자 및 잠재적 환자, 혹은 사별을 당한 사람과, 전국을 다니며 지속적인 투쟁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뭇 상반된 이미지를 띠며, 서로 다른 경험을 할 것으로 상상된다. 우리는 이러한 4.16 유가족 부모<sup>1)</sup>들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한 4.16 이후 한국 사회의 대응 방식은 편가름을 요구하거나 고통에 대한 현란한 표상으로 나타나거나(이현정 2016),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선형적으로 가정하거나(김왕배 2014; 김명희 2015), 트라우마를 위험한 폭발물을 보듯 두려워하며 부정적이고 치유해야 할 병리현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이영진 2016)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본 연구는 4.16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경험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4.16 기억저장소에서 발행한 『구술증언록: 유가족편』 25권을 통해 4.16 유가족 부모들의 경험을 개인의 심리현상으로서 주목하여 보기 보다는 사회적 현상이자 역사적 경험

1) 4.16 유가족은 단원고 희생자의 가족 뿐 아니라 일반인 희생자의 가족이 모두 포함되며, 부모 외에도 형제, 자매, 자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원고 희생자 부모들이 참여한 『4.16 구술증언록』 25권 사례를 중심으로 유가족의 경험을 다루고 있으며, 언론에 대표적으로 비추어지고 투쟁활동을 이어온 부모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4.16 유가족’을 단원고 희생자의 부모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강조하건대, 본 연구는 구술증언록에서 드러난 유가족 부모들의 경험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과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경험을 자녀와의 사별로 인한 병리적 심리상태로 축소하여 보지 않고, 이들이 4.16을 통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다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4.16 유가족들에게 4.16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상실했다는 사실에 있다. 단원고 학생들이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면 이들이 유가족이 될 이유도 없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경험이 매우 큰 고통이라는 사실은 ‘천붕(天崩)보다 참척(慘慼)의 고통이 더 크다’라는 표현에서처럼 사회문화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해, 4.16의 경험은 자녀의 사고를 접하는 과정에서부터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는 과정,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 및 대응의 차원이 특수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졌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4.16은 단지 자녀의 상실로만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유가족의 상실(loss) 경험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상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뜻하며,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애도과정을 유발하는 상실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프로이트는 국가, 자유, 이상(an ideal) 등 추상적 개념의 상실에도 애도의 과정이 따른다고 보았다(Freud 1917).

인간에게 상실은 보편적인 경험으로 중요한 관계를 상실했을 때는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 역시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경험되어 왔기 때문에 상실이나 상실감(grief)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심리와 치유에 관심을 두는 심리학, 정신의학 및 간호학, 상담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실에서 오는 감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 무감각, 심지어 죄책감이나 분노의 기간에도 견딜 수 있는 "정상적인" 상실감의 과정을 경험한 뒤 상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실로 인한 상실감의 정도와 극복의 단계에 대한 논의들은 논란이 되어왔다(Howarth 2011). 특히 상실로 인해 상실감이 나타나고 극복되는 단계에 주목하는 연구는 상실감을 지나치게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일반화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Anderson 2010).

본 연구는 4.16으로 인해 유가족이 된 부모들이 겪은 자녀 상실의 경험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4.16으로 인해 가족들이 어떠한 다른 상실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 상실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려하는 것은 4.16은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된 비극의 사건인 동시에 한국사회의 정치적·사회문화적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가족이 경험한 4.16을 일반적인 자녀상실의 사례만으로 축소해 볼 수 없으며, 유가족들의 경험 속에서 4.16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재고찰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상실의 경험이 심리 뿐 아니라, 인간관계, 일상생활, 사회적 위치 등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유가족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4.16 구술증언록』의 내용에서 보고되는 유가족들의 참사 이후 경험과 그러한 경험이 발생하는 맥락, 유가족의 인간관계 및 사회적 관계, 일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상실의 다양한 차원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4.16 구술증언에 면담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25권의 구술증언록(유가족편)을 세독하여, 부모들의 상실 경험의 특성과 이후의 위안 및 치유 경험, 그리고 새로운 관계 구축 및 재건 경험을 분석하였다. 현재 공개된 구술증언록 25권에는 아버지 10명, 어머니 15명이 참여하였으며, 구술증언은 모두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각각 2회~4회 구술증언이 진행되었다(<표 1> 참조). 25명의 구술자들은 당시에는 모두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자는 2014년 참사 당시부터 안산과 진도, 목포, 서울 등의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유가족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참여하는 현장연구를 해왔는데, 이러한 참여관찰은 구술증언록의 진술 내용과 그를 둘러싼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주요기반이 되었다. 추가적인 이해를 위해 4.16과 관련하여 수집해온 언론자료, 보도자료, 기록물 등이 참고 되었다.

<표 1> 구술증언록 정보와 구술참여자 구성

| 구술증언록 권호 | 구술자 부호 | 구술 기간                 |
|----------|--------|-----------------------|
| 구술증언록 1  | 아버지 1  | 2015년 7월 ~ 2015년 7월   |
| 구술증언록 2  | 어머니 1  | 2015년 8월 ~ 2015년 8월   |
| 구술증언록 3  | 어머니 2  | 2015년 10월 ~ 2015년 11월 |
| 구술증언록 4  | 아버지 2  | 2015년 12월 ~ 2016년 1월  |
| 구술증언록 5  | 어머니 3  | 2015년 12월 ~ 2015년 12월 |
| 구술증언록 6  | 어머니 4  | 2016년 1월 ~ 2016년 1월   |
| 구술증언록 7  | 아버지 3  | 2016년 2월 ~ 2016년 2월   |
| 구술증언록 8  | 어머니 5  | 2016년 3월 ~ 2016년 3월   |
| 구술증언록 9  | 어머니 6  | 2016년 5월 ~ 2016년 5월   |
| 구술증언록 10 | 어머니 7  | 2015년 9월 ~ 2016년 10월  |
| 구술증언록 11 | 어머니 8  | 2016년 11월 ~ 2016년 11월 |
| 구술증언록 12 | 아버지 4  | 2015년 11월 ~ 2016년 3월  |
| 구술증언록 13 | 아버지 5  | 2015년 12월 ~ 2016년 1월  |
| 구술증언록 14 | 어머니 9  | 2016년 1월 ~ 2016년 2월   |
| 구술증언록 15 | 어머니 10 | 2015년 11월 ~ 2015년 11월 |
| 구술증언록 16 | 어머니 11 | 2015년 12월 ~ 2016년 1월  |
| 구술증언록 17 | 어머니 12 | 2015년 11월 ~ 2015년 12월 |
| 구술증언록 18 | 아버지 6  | 2015년 10월 ~ 2015년 12월 |
| 구술증언록 19 | 아버지 7  | 2015년 9월 ~ 2015년 9월   |
| 구술증언록 20 | 아버지 8  | 2015년 11월 ~ 2015년 11월 |
| 구술증언록 21 | 아버지 9  | 2015년 9월 ~ 2015년 9월   |
| 구술증언록 22 | 아버지 10 | 2015년 11월 ~ 2015년 11월 |
| 구술증언록 23 | 어머니 13 | 2016년 3월 ~ 2016년 3월   |
| 구술증언록 24 | 어머니 14 | 2015년 9월 ~ 2015년 9월   |
| 구술증언록 25 | 어머니 15 | 2016년 6월 ~ 2016년 6월   |

## II. 왜곡과 혼란 속에서 경험된 자녀의 상실

앞서 언급하였듯이, 4.16 유가족 부모들에게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의 상실에 있다. 모든 개별 상실의 경험은 개인마다 다른 경험이겠지만, 4.16으로 인한 자녀 상실은 다른 사고나 병환 등으로 인한 자녀의 상실과는 또 다른 특수한 지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특수

한 지점들은 250여명의 단원고 희생학생 부모들에게 집단적으로 경험되었다. 4.16으로 인한 자녀의 상실의 특수한 지점들은 그 자체로도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4.16 유가족 부모가 경험한 상실의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자녀상실의 특수한 지점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측이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자녀를 잃게 된 세월호 유가족은 전반적으로 왜곡과 혼란 속에서 자녀의 상실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왜곡과 혼란 속의 자녀 상실 경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부모들에게 갑작스러웠던 자녀의 죽음은 혼란과 지연, 왜곡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유가족들은 처음 세월호가 침몰중이라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을 때부터 왜곡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정보 속에 휩싸여 있었다. 부모들은 학교 측이나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의 연락을 통해서가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서 직접 자녀들이 탑승하고 있던 세월호가 침몰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거나, 언론보도를 먼저 본 가족, 친척, 지인 및 동료 등이 부모들에게 침몰 소식을 전하며 자녀들의 안위를 물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단원고로 찾아가거나, 학교 측과 통화를 한 뒤 명확한 구조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사고 해역이 있는 전라남도 진도군으로 황급히 내려갔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전원구조'라는 잘못된 보도를 접했다. 이렇게 자녀들의 구조 상황과 사태의 진행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부모들은 한편으로는 당연히 자녀들이 구조될 것이라는 생각에 갈아 입을 옷을 챙겨서, 한편으로는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추스르지 못한 채로 안산에서부터 침몰 해역이 있는 전라남도 진도까지 황급히 내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도착한 진도에서는 혼란과 왜곡이 더 극심해졌다.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은 도착한 진도에서 조차 자녀의 구조 소식을 듣지 못하였고,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녀의 생사확인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부모들은 자녀의 생사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자녀의 생존을 희미하게나마 기대해야 했다. 결국 부모들은 자녀의 마지막 모습을 마주하지 못하는 기약 없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오랫동안 겪으며 자녀의 죽음을 인정해나가야 했다. 부모들은 대개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자녀의 생사확인을 기다려야 했다.<sup>2)</sup> 완전히 침몰한 선체 내에서 시신이 처음으로 수습된 것은 4월 19일이었으며, 4월 22일까지 100여명의 학생이 수습되었고, 그 이후 100명이 더 수습되기까지는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 이처럼 당시 많은 부모들은 점차 생환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자녀의 죽음을 인지하면서도 자녀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의 과정에 들어서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유예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4.16 참사 발생 후 며칠이 지난 시점부터 전국에 합동분향소가 들어서고 시민들이 조문을 하는 등 추모가 시작되었지만, 많은 유가족들에게는 장례가 계속해서 유예되는 상황이었다.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흔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실감하지 못하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충격을 받았더라도, 심정적으로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남은 자들은 대개 충실히 장례 절차에 임하곤 한다. 그것이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장례 절차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상태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남은 자들은 의례를 통해 가까운 관계

2)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녀의 생존을 기대하기보다는 시신의 수습을 기다린 것이지만,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부모들은 오랜 시간 사고해역 주변을 떠나지 못하였다. 사고해역에서 미수습자 9명을 남겨둔 채, 수습을 마치기로 결정된 것은 2014년 11월 11일었고, 수습 중단 결정 이전에 마지막 수습자였던 단원고 학생은 10월 28일에 물으로 올라왔다. 이후 세월호가 인양된 2017년까지 미수습자의 수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7년 5월 5일부터 미수습자의 유해가 수습되었지만 여전히 5명은 유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산 자와 산 자의 관계가 아닌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로 전환되는 첫 걸음을 걷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장례의 절차를 잘 마친다고 해서 죽음이 바로 수용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례의 절차는 되돌릴 수 없는 앞으로의 새로운 관계 정립의 긴 과정의 기본이 되는 첫 단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4.16은 가족의 죽음 앞에 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적절한 장례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생사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긴 과정은 결국 시신의 수습을 기다리는 과정이 되었다. 유가족 부모들은 팽목항에 마련된 임시텐트와 진도체육관 두 곳에 머물며 매일 구조 상황을 보고하는 전광판이나 인쇄물 공지를 통해 자녀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수습자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반에는 사비로 작은 선박을 빌려 침몰 현장으로 나아가 구조 상황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 구술증언록 25 (어머니 15)

근데 처음에 딱 갔는데 우리 애기 아빠가 내가 쓰러질까봐,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계속 날마다 올라오는 그 시체를 봐야 돼. 그 시체를 가서 그 모아놓은 이렇게 천막 있거든요? 영안실. 그 몇 십구씩 올라오는 그 시체를 다 가서 봐야 되는 거지. 내 새끼 있나. 처음에는 무조건 가서 봐야 되는 거지. 그 때는 처음에는 체계적이지를 않아서 나중에는 내가 간 뒤로는 체계적으로 이제 인상착의를 쓰라고 해서 그 이제 자기네들이 인상착의를 올려주는 줬거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계속 그냥 가서 봐야 되는 거야. 혹시라도 내 새끼가 있나.

### 구술증언록 1(아버지 1)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불 때는 맞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목포까지 갔는데, 목포 뭇 병원에 갔었는데. 가서는 분명히 성명불상이라고 하고 갔었는데 내가 우리 애 같다고 해가지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아주 우리 아들의 신상에 대해서 최악 나와 가지고는 애가 ☆☆이가 맞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봤더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더라. 그 때 좀 많이.....

개인마다 다른 기간이 지난 뒤 마지막으로 자녀의 모습을 마주하는 경험 역시 보통의 장례 과정과는 다른 것이었다. 새로운 시신이 수습되었다는 소식에 부모들은 시신의 인상착의와 자녀의 인상착의를 매번 대비해보았다. 시신이 물으로 올라왔을 경우 항구에 있는 검안소로 가 마지막 자녀의 모습을 확인해야 했다. 대형 선박이 침몰하는 과정에서 시신에는 상처가 생긴 경우도 많았고, 바닷속에서 오랜 시간 있는 동안 시신이 부패하거나 손상된 경우도 많았다.

### 구술증언록 8(어머니 5)

그래서 목요일에 왔는데 애를 보려니까 못 보게 하더라구. 그것도 원망이 돼. 어떤 모습이든 엄마가 봐야 되는 건데. 뭐 관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데 애 아빠가 못보게 하고 끌고 가더라구. 보지 말라구.

이 과정에서 많은 아버지나 가족 중 남성 구성원들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지 않도록 막곤 했다. 이러한 경험을 한 많은 어머니들은 자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막은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원망하였다. 아버지들은 선의로, 또 다른 책임감과 보

호하려는 의지로 한 선택이었지만,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과 자녀를 볼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공지된 인상착의만으로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자녀가 올라온 뒤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자녀를 알게 된 부모도 있었고, 학생들의 시신이 뒤바뀐 경우도 있었다. 점차 시신 확인 절차가 체계화되었지만 유전자 확인을 통해 자녀의 시신이 인도되기까지 기다림은 오히려 연장되게 되었다.

#### 구술증언록 16(어머니 11)

이제 구급차 타고 왔잖아요. 왔는데 우리 딱 들어오니깐 우리 반 아빠가 구급차에서 애를 내리지 마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온 애들 DNA 채취하려고 기다리는 애들 지금 땅바닥에 다 방치되어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자녀]이를 못 내리잖아요, 구급차에서. (중략) 그런데 진짜 들어가 봤는데 애들 막 바닥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새벽에 왔다던가? 하여튼 우리 갔을 때 그러는 거야. 여지껏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가 지금 몇 시예요. 우리도 저녁 때 한 6시, 7시 다됐을 거야. (중략) 그래갖고 최종결정 내린 게, DNA 채취만 하고 싸인, 발인 안 하는 싸인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도 우리는 아직은 내리지 마라. DNA 채취하러 들어갈 때 내려라. 계속 막, 전에 막 구급차에서 애들 내려야 된다는 거야. ☆☆[자녀]이 아빠가 내 애 맞다. 니네가 DNA 검사 채취 안해도 내 새끼다. 지금 빨리 안산으로 이대로 올라가자.

그렇게 자녀의 시신을 찾은 부모들은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자녀를 찾았다는 소식을 주변에 전했고, 자녀의 죽음을 인지하게 된 지 며칠 만에야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자녀를 찾은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초반에는 학생들의 시신이 동시에 수습되어 장례식장에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 장례식장에 여러 학생들의 빈소가 동시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 구술증언록 1(아버지 1)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없느냐, 그러니까 □□□□[장례식장] 거기를 해줬고. 그 때 묘하게 ☆☆[자녀]이 친구 □□라는 애도 같이 올라와가 지고, 그 친구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서 장례식 치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집보다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래도 비교적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 갔었고. 그마저도 뒤에 오는 친구들은 아주 막 열악한 상태. 저쪽에서는 염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사람들을 접견을 하는 그런 환경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상태라면 장례식 치르지 않겠다. 어디 사람에게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지, 망인을 보내고 그러는데 저 옆쪽에서는 술판 벌이고, 응? 어떻게 그게 되냐. (중략) 우리 장례식 안 치른다. 그래서 그 때 □□□□[장례식장]에서 부랴부랴 판넬 사가지고 와서 방을 칸막이로 막아가지고 저한테 확인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보면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처음 겪어서 그랬겠지만, 이곳저곳에서 정말 인간적인 배려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가족은 ‘내 아이’의 장례식을 치렀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두 수습이 되지 않

았기에 장례를 마무리 했다고 느낄 수 없었다. 초반에는 학생들의 시신이 모두 수습된 뒤에 합동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다리던 자녀의 시신을 찾아 먼저 안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부모들은 자식을 찾지 못한, 조금 전 까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유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자녀의 시신을 찾는 것이 유일한 염원이었던 상황에서 자식을 찾음으로써 ‘미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부모들에게는 혼란스러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진도에서 오래 머물며 자녀의 수습을 기다렸던 부모들은 많은 경우 자녀의 장례가 끝나고 주기적으로 진도에 내려가서 미수습자의 가족들과 함께 남은 피해자들의 수습을 기다렸다. 또 개별 학생들의 빈소는 개별 장례절차 후 정리되었지만 안산에는 피해자들의 영정으로 가득한 합동분향소가 남아있었다.

#### 구술증언록4(아버지2)

전화해 가지고 ‘야,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닭발 먹고 싶어, 매운 닭발 먹고 싶어’ 그러면 닭발 사갖고 내려가고 먹고 싶은 거 싹 준비해갖고 내려가고 그랬었지. 근데 내려갔는데도 너무 불편해. 미안하고. 너무 미안한 거야. 나만 애 찾아갖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인제 그러니 엄마들이 우리도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그런 거지. 충분히 이해가 가지. 너무 죄송스러웠고.

오늘날 장례의 과정은 급격히 변화하여 죽음의 과정이 지나치게 의료화 되었고, 따라서 상실의 인지와 상실감으로의 전이 과정이 모호해졌다는 기존의 비판들도 있다(천선영 2012; Anderson 2010; 김열규 2001). 그러나 획일화 되고, 간소화되어 있을지라도 여전히 문화마다 나름의 보편적 장례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인간은 애도의 시간으로, 혹은 망자와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장례 과정에서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는 경우면,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안타까워하며 망자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곤 하는데 4.16 유가족은 장례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연된 상태로, 동시에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경험해야 했다. 따라서 4.16 이후 부모들이 모든 상(喪)을 마치고 탈상(脫喪)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4.16 유가족이 겪은 장례 과정은 사망 소식을 접하고, 가족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고, 3일장을 치르고, 삼우제나, 49재, 1주기를 보내고 탈상을 하는 과정으로서 설명되기 어렵다. 만약 가족을 잃은 보통의 유가족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장례의 절차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세월호 유가족 부모들은 이러한 정상적인 장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인한 자녀의 상실이라는 압도적인 사실 자체와 이 사건을 둘러싼 진상 규명의 부진에 몰두한 상황 속에서 죽은 자녀에 대한 적절한 장례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크게 문제화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참사의 원인과 자녀의 부재 자체가 이들에게는 진상규명이라는 과제에 더 큰 동기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유가족에게 상실 경험의 핵심은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상실을 상실로서 자각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었다.

### Ⅲ. 가까운 관계의 균열: 가족 안팎에서의 변화

4.16 유가족 부모들에게 자녀의 죽음과 4.16 참사라는 사건의 경험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경험이다. 특히 이들의 삶의 변화는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그리고 이들이 맺는 관계의 변화에서 볼 수 있다. 인간에게 가족 및 친족, 친구와 같은 가까운 관계는 비교적 변함이 적고, 경험을 함께 하거나 오래 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위기를 함께 견디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곤 하는 가까운 관계가 4.16 참사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변하게 된 사례들이 유가족 부모들의 구술증언에서 많이 보고되었다. 변화되는 가까운 관계는 당장 함께 가족을 잃은 부부관계와 부모자식 관계, 그리고 친척 관계, 혹은 오래된 친구 관계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가 변화하는 배경과 그 의미는 유가족 안과 밖에서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

먼저 유가족 내부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부 간 관계의 변화와 부모들과 남아 있는 자녀들 간 관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유가족 중 특히 어머니들은 배우자인 남편에 대한 깊은 원망감을 많이 표현하며, 결혼 자체에 대한 후회의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자녀가 참사를 당하게 된 것에 배우자의 책임이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들은 많은 경우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고, 안산에 살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자녀를 떠나보낼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들도 자녀 상실의 책임이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녀가 끔찍한 사건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억울함과 죄책감 속에서 자녀가 존재하게 된 근원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원망을 하고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배우자에 대한 미움을 표현하지만 결국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원망감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반면, 아버지들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는 경우는 적었는데, 그것은 어머니들의 역할이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는 것에 있었던 반면 아버지들의 역할은 바깥에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점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현정·이예성 2017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변화와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 역시도 죄책감을 느끼며, 자녀가 부재한 상황에서 배우자와 어떤 삶을 이어나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 내부의 이러한 관계 변화는 특히 다른 자녀의 구성을 포함한 가족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ibid.) 본 연구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분명한 것은 부모들이 남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도 역시 떠난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존재한다. 남은 자녀에게도 여전히 부모인 유가족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와 책임감을 가진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적절한 장례를 치르고, 애도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투쟁의 과정에 뛰어들어야 했다. 4.16 참사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책임의 영역을 진상규명으로 확장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남은 자녀를 ‘정상적인’ 부모처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떠난 자녀를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소홀한 대우를 받고, 강제로 성숙하게 된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기도 했고, 남은 자녀들이 떠난 형제자매에 대해 관심을 덜 가진다고 생각해 섭섭함을 느끼기도 했다.

#### 구술증언록 20(아버지 8)

딸내미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이 일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숙한 거 같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얘기에 대한 거는 집에서도 나 있을 땐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엄마 있을 때만 얘기를 하는지. 나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좀 많이 미안하지 애들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말아야 될 걸 경험한 거니까.

### 구술증언록 5(어머니3)

구술자: 사건이 터지고는 이 우리아들 수학여행 보내고 이런 일 있고나서는 애들하고도 대화를 잘 안 해.

면담자: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되셨단 말씀이신가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물론 바쁘시기도.

구술자: 바쁜 건 둘 째 치고 아예 대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들 얘기, 이런 얘기는 전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요.

면담자: 되려 그냥 필요한 얘기만.

구술자: 되려... 내가 이려고 다니는 거, 어떤 때는 화를 내요. 딸들이.

### 구술증언록 15권(어머니 10)

구술자: 옛날엔 안 그랬는데 막 되게 살뜰하게 챙기더라고 지 하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조금 바뀌었어요, 개가. 영아 얘기는 안 해요. 영아집에 가자 그래도 안 간다고. '거기를 왜가?' 분향소도 안 와봤을 걸 그놈새끼가.

면담자 : 남자 동생들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구술자 : 나쁜 놈들이지. 여동생들은 언니 방 오빠 방에다 그렇게 예쁘게 꾸며 놓는다는데.

4.16으로 한 구성원을 잃은 가족은 단지 한 구성원이 빠진 것이 아니라, 가족 안의 관계에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면서 변화하고 있었다. 위기와 아픔을 겪은 가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더 결속과 단결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은 각각 희생자와의 개별적인 관계가 있고 각각은 이 관계에서의 상실을 경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상태를 상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부모들이 다른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떠난 형제나 자매를 위해 요구하는 것이 있기 보다는 남은 자녀들과 떠난 자녀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곤 했다. 자녀가 수습되기까지 진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자녀들도 있지만, 뒤늦게 내려오거나, 잠시 내려와 머물러야 했던 경우가 많았다. 부모들은 급히 진도에 내려갔고, 현장에서도 사태가 이렇게 지속될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자녀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 후로도 부모들은 진상규명활동으로 바쁜 날들을 보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시간을 갖지 못했다.

특히 부모들이 다른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재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부모들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책임의 중압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책임감이 특히 강한 쪽인 부모들의 자녀 상실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지만, 특히 4.16의 경우에는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왜, 어떻게 벌어졌는지 보다 명확하게 밝혀지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와 추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이 죽음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근원적으로 묻는 것을 더욱 멈추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가족의 가족 밖 관계인 친척 및 부모들의 친구 관계에서의 균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4.16 참사는 누구나 비극을 통감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수학여행길에 오른 한 고등학교의 2학년생과 교사들, 이사를 떠나던 일가족, 일반 여행객, 화물 운송업

운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가득 실은 배가 침몰하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목격되었고, 몇 척의 구조선이나 민간어선, 헬기 등이 주변을 맴돌았지만 큰 배를 꽉 채운 승객들이 구조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며 사람들은 무고한 생명의 소멸과 가족을 잃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였다. 진도에 몰려온 자원봉사자들, 전국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하러 줄을 길게 늘어선 조문객들, 무사히 기원하길 바라는 노란 리본의 그림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재하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연민의 방증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저마다의 슬픔과 안타까움, 때로는 분노의 감정을 표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나름대로 관계를 맺으려 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 역시 초반에는 누구보다 이 사건의 심각성에 통감하고 피해자들을 도우려 했다. 세월호 유가족 부모들이 처음 소식을 듣고 진도에 내려가 자녀를 기다리기까지의 과정을 많은 경우 친척들이 혼란 속에서의 기다림을 함께 해주곤 했다. 그러나 많은 유가족들은 구술 당시 가까운 친척들과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상실의 고통 속에서,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수습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안정한 상태 속에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모두 지나가고 넘어선 일로 여겼다. 유가족은 여전히 이 사태에 머물러있지만, 그것을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함께 해주진 못했다. 특히 친척과 친구들은 자녀 상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참사의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피해 학생의 친척이기도 한 부모들의 친척, 친구들은 이제 그만 보내주라는 식의, 소위 ‘산 사람은 잘 살라’는 식의 입장을 표현했다. 자녀를 상실한 슬픔 속에서 진상규명의 활동에 매진해 있는 가족들에게 4.16을 그저 운이 나빠 벌어진 사고로 취급하는 태도는 유가족의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 구술증언록 24 (어머니14)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도 ‘이만하면 됐다 아이가 그만해라’ 하는 가족들도 많잖아. 저희도 저희 친정, 저도 이제 추석인데 가야 되잖아. 저는 이혼한 이후부터는 계속 오빠 집에 가고, 지금도 ☆☆[자녀]이 아빠는 친가하고 연락을 안 하니깐 오빠 집을 가잖아. 그러면 오빠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어지간히 해라. 니가 대통령 돼 바라. 그 정도 할까.’ 이런 식의 말을 해요.

부모들은 ‘새로 만난 유가족들이 더 가족 같다’, ‘같은 경험을 해 본 사람만이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였다. 친척이나 친구들은 4.16을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는 사건으로 취급하기 시작했고, 유가족들에게 배·보상 문제를 언급하거나, 자신의 자녀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냐며 평가하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또는 바깥에서 웃거나 식사를 하는 일상적인 행동도 유가족들에겐 비난거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 기존에 가까운 관계였다 해도, 현재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는 신뢰는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투쟁을 하는 유가족은 더욱 순결하기를 요구받는 평가의 대상이 되었는데(이현정 2017) 그러한 평가와 비난은 가까운 관계에서도 이루어졌다.

#### 구술증언록 15(어머니 10)

정말 아는 사람 만나기가 제일 싫더라구요. 그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쳐질까하는 것도 싫고, ☆☆[자녀]를 아는 것도 싫고, 다 싫더라구요. 낯선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아는 사람 만나는... 지금 만나는 사람은 거의 유가족밖에는 거의... 가족들도 예전에 한 달에 한

번 만났으면 지금은 두 달에 한 번. 그 전화를 잘 안하니깐 이젠 엄마아빠가 전화를 하시더라구요. 안 하게 되네요. 자꾸만... 하면 뭐 똑같은 얘기하시니까... 잊어버려라. 언제 까지 매여 있을 거냐. 그런 말 듣는 것도 듣기도 싫고, 그리고 노인네들이 걱정하는 것도 안타깝고 가족들하고도 멀어지고 또 친구들하고도 멀어지고... 그러니깐 확실히 생활이 그렇게 밖에 안 짜여졌어요.

#### 구술증언록 6(어머니 5)

저희가 옛날에 알고 지냈던 지인들을 왜 안 만나냐면 그 사람들은 제가 겪은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니까 일단 그런 공감대도 없고. 그니까 제가 또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웃고 떠들고 즐겁게 지내다보면 아 저 사람들이 자식 그렇게 보내놓고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내가 또 그 사람들 만나서 나만 생각하고 그 분위기 망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고 지냈던 지인들은 제가 유가족인거는 이제는 다 알고는 있어도 그 사람들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 만나요. 그래서 2년, 이제 2년 다 돼가죠.

유가족들 중에는 친척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제로 구술 당시 이후 시간이 흐른 뒤 관계가 개선이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시적이라도 그러한 가까운 관계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 받지 못한 상황은 기존의 관계에 큰 균열을 가져왔던 것은 분명하다.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로부터 겪게 되는 상처는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예상된다.

유가족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 만들게 된 가까운 관계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유가족'인 이들과의 관계였다. 언급하였듯이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먼저 수습된 뒤, 진도에 남은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려 아픔이 있는 진도로 반복해서 찾아갔고, 그들은 서로의 웃는 모습도, 우는 모습도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자녀가 살아 있을 때 부모끼리 알고 지냈던 경우보다는 4.16 이후 알게 된 부모들이 더 많았다. 자녀와 친한 친구의 부모이든, 새롭게 알게 된 아이의 부모이든 유가족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갔다. 부모들끼리는 함께 진상규명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이나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중요했다.

이러한 관계는 유가족들이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고립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었으며,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관계는 불완전하기도 하고, 그 자체로 고립적이기도 하다. 자칫 이것이 같은 일을 겪은 사람끼리만 공감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확장된다면 모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같이 겪은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는 소통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같은 사건을 겪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들은 매우 다수이고, 각각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처해 있는 경제적·사회적 상황도 다르며, 점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유가족 전체가 지속적으로 친밀하고, 결속력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도 하다.

#### IV.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의 상실

‘나라를 잃었다’는 경험은 보통 국가의 주권이 빼앗기는 경우에 상상이 되곤 한다. 4.16은 유가족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특히 부모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에서 살면서 자신과 가족에게는 국가가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4.16을 통해 그 존재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평소에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애착을 가지며 국가에 대해 인식을 한 경우이든, 각별한 애착까지는 없던 경우이든 부모들은 국가의 존재의 여부와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가라는 것은 한편으론 개념이 모호할 수 있지만, 유가족들에게는 나름대로 구체적이었다. 4.16 유가족에게 국가는 특히 대통령과 관료, 정치인 등 정부의 책임자, 그리고 사회안전망이 되는 체계나 시스템, 제도를 의미했다.

### 구술증언록 7(아버지 3)

원래 모든 긴급 비상에 다 매뉴얼이라는 게 있고, 매뉴얼에 따라 모든 게 움직이게 돼 있어. 하다못해 쪼만한 사건사고 까지도 소방서 가면 매뉴얼 다 있어요. 하다못해 뭐 어린이 유괴사건도 어떻게 대응하라는 매뉴얼이 있고. 어? 살인사건도 어떻게 하란 매뉴얼이 있는데, 이런 대형 참사에서 애들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야. 해경은 해경대로 지내끼리 움직이고, 해군은 해군대로 움직이고 어? 해수부는 와서 해수부라고 지내 움직이고 해경을 총괄하는 게 해수분데 해수부 애들이 해경을 총괄하느냐 못해. 왜? 소속이 틀리잖아. 그러면 해수부 과장이고, 해경이고 밑에 그저 계장이야 명령하면 어 과장이 계장한테 명령하면 들어야 될 거 아냐? 그래 내가 막 반항을 해. 징계할 수 있는 사유는 없어. 왜 틀리잖아. 말을 안 먹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실이었었고, 그때 당시로는 몰라 지네들도 이런 난리통은 참 겪고 큰 사고는 처음이라 그런지 똥오줌을 못 가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지금 생각해도 웃기고 황당한 거야.

진도에서부터 구조를 하지 않았던 정부, 체계 없이 우왕좌왕하며 가족들을 더 애태웠던 공무원 및 해경 등의 책임자를 보며 유가족은 제대로 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나아가 이후 진상규명 투쟁활동에서 부모들을 탄압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비웃기까지 한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킨다고 여겨지는 경찰들로부터는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다. 대통령에게 호소, 청와대를 향한 진도대교에서의 행진, 이후 서울에서의 집회와 행진 등에서 경험한 막힘 등을 통해 국가의 상징인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버린 사람으로 여겨졌다. 유가족들을 위한 국가는 없거나, 유가족들은 국가에게 버림받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4.16을 두고 이루어진 수사나 재판 등 역시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구술증언록 22(아버지 10)

누구나들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산 증인이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제 지인들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답답하잖아요. 니가 내말을 안 믿으면 어떡하냐. 언론에 빠져있는 거죠. 믿고 싶은 거고.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거죠. 제가 면담할 때 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나 48년동안 속고 산 게 대한민국이야. 억울한 거죠. 아, 또 올라온다. 아, 너무 억울해요. 속고 산 거 같아서. 옛날에는 학생운동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생활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죠. 그게 곧 내가 국가에... 우리가 어릴 때 충성충성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 충성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있잖아요. 이 나라 뜨고 싶은 생각

이 있어요. 그런데 48년 살았던 이 나라를 떠났다고 한들 어떤 나라에서 나를 받아주겠느냐. 내가 거기서 여기처럼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방향하고 있는 거 같아요. 10대 애들처럼... 하, 웃기죠.

### 구술증언록 23 (어머니 13)

낙담 아닌 낙담으로 가더라구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란데 그러냐, 다 구해주고 진짜 정의로울거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반대로 진짜 실망 아닌 실망을 받았죠. 다시 한번 너무 속이고, 속이고. 나는 다 정치인들이 진짜로 조그만 거짓말을 하겠지만 이렇게 거짓말 치고 묻고, 우리를 멸시하고 그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까지 속였는 거 같아요. 다 모든 게 다 오보에서부터.

반면 종교, 언론, 지식인, 정치인, 국민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표현들은 결국 사회라는 개념으로 수렴된다. 이때 사회는 보다 구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주체들로 유가족들과 관계 맺어질 수 있는 집단화 가능한 존재들을 포함한다. 유가족 부모들은 4.16 참사 이전에 존재했던 주변의 이웃사회를 잃었다. 안산은 참사로 떠난 자녀가 자라난 곳이고, 자녀를 아는 주변 이웃들이 함께 사는 곳이다. 그러나 참사 이후에 이웃은 멀고 단절된 존재가 되었다.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구매를 해야 했으나 참사 이후 배·보상 문제로 유가족들을 눈여겨보는 이웃이 비난을 하거나 오해를 할까봐 무서워서 세탁기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유가족들은 이웃이나 안산 사회의 눈초리 때문에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웃지도 못하였다고 했다. 이제 유가족들에게 사회는 감시하고 평가하는 존재로서 존재할 뿐이었고, 이전에 이웃으로, 지지기반으로 존재했던 기존의 사회는 상실된 것이다. 특히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를 둘러싸고 유가족을 비난하고, 유가족과 직접 부딪치며, 학생들이 머물렀던 교실을 계획과 대책 없이 내놓기만을 요구했던 일부 단원고 재학생의 학부모들은 유가족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기도 했다.

이와 유사하게 기존에 종교를 가지고 종교생활을 했던 부모들은 4.16 참사로 인해 종교를 잃게 된 경우가 많았다. 종교적 직업을 가진 유가족들은 억울함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직업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범한 신자, 특히 천주교나 개신교 신자로서 삶을 살아왔던 부모들은 많은 경우 4.16 참사 이후 다니던 성당이나 교회를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너무도 억울하고 비극적인 사고로 자녀를 잃은 사실 자체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및 국가 종교공동체에서 4.16을 바라보고 취급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안산 단원구 일부 지역의 교회와 성당은 4.16 참사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학생 신도들을 잃기도 하였다. 초반에는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내부적으로 종교적 의식이 치러지기도 하였지만, 점차 다른 신도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은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원활한 수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4.16 참사를 버거워하거나 피로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다루곤 하였다.<sup>3)</sup>

### 구술증언록 10 (어머니 7)

3) 이렇게 일부 유가족들에게 종교가 상실된 상황에서 보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안산시 분향소에 마련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부스였다. 이곳에서는 각 종교의 봉사단 및 지도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유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 예불, 미사를 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천주교 신자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과 위로에 큰 힘을 받았다.

순종하라.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말은, 그러나 탄압, 탄압하고, 권력의 탄압하고 목사의 순종하라는 거가, 그것은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불의를 보고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지난 주 수요일에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데모해가지고 이 나라가 바뀔 것이냐, 절대 안 바뀐다, 성령이 있어야 바뀌지 데모해서 바뀌지 않는다 하면서 또한,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사례를 들어서 거기는 그 깨어 있는 신도들에 의해서 바뀌었다 하면서 이제 똑같은 설교인데도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안 되고 이거는 됐고 하면서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설교할 때 보면은. 참 목사로서 좀 일관되게 해야 하는데 본인은 정녕, 남들한테 낫아지라 하면서 본인은 자기가 높아지고 그런 거보면 참 많이 회의를 느껴요.

종교가 인간에게 제공해주는 것은 위기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교리와 그에 따른 보호와 위안이며, 한편으로는 공동체라는 틀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교가 있던 많은 부모들에게 4.16은 종교가 보호나 위안을 해준다거나 공동체가 되어준다는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다. 물론 이 역시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서 변화될 수도 있으나, 참사 직후 온 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안타까워했던 시기에 4.16참사를 둘러싸고 망언을 일삼았던 대형교회 목사들의 경우를 고려하면 이러한 부모들의 경험은 오늘날 한국의 종교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라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와 삶의 지지대가 되는 사회라는 안전망, 울타리, 공동체적 관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경험은 기본적인 사회적 삶을 지속하기 어렵게 하며, 결국 유가족의 삶의 재건을 방해한다. 참사 당시부터 목격되었던 국가 체계의 부재, 관료 및 정치인들의 문제들이 드러났음에도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렸고, 유가족들은 마치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끼게 되었다. 또 유가족들은 이웃으로부터 단절과 갈등을 느낌으로써 안산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자녀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은 부모들에게는 어려운 선택이었다. 심지어 이민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희생된 자녀를 혼자 한국에 남겨두고 떠난다는 생각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자녀상실을 슬픔의 기한이 있는 문제로, 4.16을 단순한 사고로 보며 유가족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동료로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어 직장생활을 유지하거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곤 했다. 결국 국가나 관료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가족을 둘러싼 사회가 4.16이라는 사건과 자녀의 희생을 덮어버리는 곳이며, 함께 어울리고 나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부모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개혁해야하는 주체로서의 자각과 실제의 움직임과 연결된다(이현정 2017).

#### 구술증언록 25 (어머니 15)

분명 나는 지금껏 그냥 살았지만 우리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정말 정의가 있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 더 바랄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교육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정말 여러 가지가 정말 욕심이 많은데 교육제도 좀 정말 참 교육이 있는 현상이었으면 좋겠고, 교회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거를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최고로 나아져야 될 부분이지.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로 이제 변화되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교회와 언론과 이 교육계가 다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야 내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나 부모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시적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이 4.16으로 인해 겪은 상실경험에서 완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은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그것은 유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지지와 위안을 포기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되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도 결국은 고립과 단절의 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V. 나가며

한국 사회는 4.16의 충격과 비극성을 모두 함께 목격한 반면, 정치화된 표상 속에서 유가족들이 4.16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온 사회가 알고 있는 참사의 피해자로서 유가족은 극단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지만, 부모로서, 우리 사회의 이웃 구성원으로서, 같은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변화와 뒤틀림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상상만으로는 재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4.16 유가족 부모의 상실 경험을 『4.16 구술증언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고, 그 결과 유가족들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상실의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2015년과 2016년 당시 진상규명활동에 참여하며 구술증언을 한 부모들은 대개 4.16으로 자녀가 떠나게 된 과정을 접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을 뒤틀린 방식으로 경험하였다. 기다림과 불확실만으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 자녀의 죽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며 온전하지 못한 장례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가까운 인간관계와 국가 및 사회라는 다른 차원의 존재와 관계를 중층적으로 상실하는 경험을 했다. 부모들이 상실한 것은 소중히 키워온 자녀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의 대인관계이기도 하며, 삶의 연대, 지지 기반이나 울타리가 되는 사회라는 존재와 가치, 그리고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국가이기도 했다. 결국 유가족은 자녀의 상실로 인한 그리움과 슬픔, 죄책감, 안타까움 만을 오롯이 느끼기보다는 자녀의 상실을 둘러싼 납득되지 않는 사회적 상황과 참사 이후의 주변과 사회의 대응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는 이들의 투쟁은 새롭게 유대와 결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관계의 생성의 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 4.16에서 비롯된 끊임없는 사회적 고립의 위기 상황에서 한편으로 유가족 부모들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을 생성해나가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가족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유대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가능하며, 그 규모와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보다 깊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유가족에게 유일한 위안이 된 것 역시 4.16의 문제를 함께 자각하고 동참해준 일반 시민이나 활동가들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조건인 사회를 상실해가는 경험 속에서, 그리고 국가를 상실해가는 경험 속에서도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연대와 지지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 공동체의 취약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사회적 지지기반의 형성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16 구술증언에 참여한 25명의 부모들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가족 부모들의 상황을 일반화해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크다. 서두에 언급하였듯, 특히 당시의 구술증언 참여자들은 모두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때는 진상규명 활동 규모가 크고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2015년-2016년은 세월호가 인양되기도 이전이었고, 특별법 제정과 특조위의 조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시점이며 국민의 여론 역시 변화의 폭이 컸기 때문이다. 이후 4.16에 핵심적인 책임을 지냈던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물러나고, 세월호가 인양되고, 유가족 활동의 축소되고, 참사 4주기가 지난 시점에 가족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4.16은 단원고 희생학생의 부모들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상실의 경험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상실의 특성은 세월호 피해자의 유가족 중 부모, 형제자매 또는 가족이 아니었어도 친구나 지인, 안산 시민 등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향후 다른 여러 주체들에게 4.16이 어떠한 경험이었는지는 보다 면밀하게, 다방면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성현, 2014, “과거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둘러싼 쟁점과 평가”, 『역사비평』 11: 62-93.
- 김명희, 2015, “고통의 의료화 : 세월호 트라우마 담론에 대한 실재론적 검토”, 『보건과 사회과학』 38: 225-245.
- 김열규, 2001, “현대적 상황의 죽음 및 그 전통과의 연계” 『한국인의 죽음과 삶』 김열규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은미, 2017, “세월호 유가족의 자녀상실 경험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교상담학 박사학위 논문.
- 박기목, 2015,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기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5(9):134-145.
- 박찬희.여한구, 2017, “세월호 희생 학부모의 심리경험”, 『목회와 상담』 28: 124-149.
- 신명진, 2016, “세월호 유가족의 사별경험.”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훈.이춘화.신지영.강민수.전지열.이화정.김미정(2017).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내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심리정서, 신체, 인지, 행동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255-291.
- 이영진, 2016, “가라앉은 자들과 남은 자들”,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김종엽 외 편, 서울: 그린비.
- 이현정, 2016, “세월호 참사와 사회적 고통: 표상, 경험, 개입에 관하여.” 보건과 사회과학, 43: 63-83. 차이에 관한 연구: 세월호 유가족의 경우
- , 2017, “수동적 시민에서 저항적 주체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어떻게 국가권력에 맞서왔는가?” 『침몰한 세월호, 난파하는 대한민국 : 압축적 근대화와 복합적 리스크』, 서재정·김미경 편, 파주: 한울아카데미, pp. 273-310.
- 이현정·이예성, 2018, “자녀를 잃은 부모의 젠더에 따른 상실감 차이에 관한 연구: 세월호 유

- 가족의 경우”, 『가족과 문화』 30(3):1-41.
- 천선영, 2012, 『죽음을 살다 : 우리 시대 죽음의 의미와 담론』 파주: 나남.
- Anderson, Herbert., 2010, “Common Grief, Complex Grieving,” *Pastoral Psychology*, 59(2), 127-136.
- Howarth, Robyn A. 2011, “Concepts and Controversies in Grief and Loss.(SPECIAL SECTION ON GRIEF, LOSS, AND BEREAVEMENT,”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3(1): 4-10.
- Freud, S., 1917,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ume XIV (1914-1916): On the History of the Psycho-Analytic Movement, Papers on Metapsychology and Other Works, 237-258.



## ‘세월호 유가족’이 된 엄마·아빠의 활동과 역사적 의미<sup>1)</sup>

김아람(연세대)

-차례-

1. 머리말
2. 유가족으로서의 자각
  - 1) 진도대교 행진
  - 2) 특별법 제정 서명 활동
3. 유가족 활동의 고통과 변화
  - 1) 충돌과 분노
  - 2) 강해지는 엄마들
4. ‘세월호 유가족다움’의 문제점과 애도
  - 1) 대화와 승화
  - 2) ‘유가족다움’의 문제점
5. 맺음말

### 1. 머리말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로 안산 단원고에 다니던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모들의 활동은 우선 스스로 ‘진상 규명’을 하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진상 규명에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정부가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할 법제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적용과 그에 따른 정책이나 사업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유가족 부모의 활동에는 진상 규명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부모들 간에 서로 의지하고 아이를 기억하기 위한 활동 또한 있다. 분향소 지키기, 엄마들의 공방, 아빠들의 목공소, 합창단 등 여러 움직임은, 규명되지 않은 사실들이 드러나야 하고 사건을 기억하자는 의지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이유 없는 죽음에 대한 자괴감과 감당하지 못하는 슬픔을 표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안산 지역 유가족 부모의 활동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이 되었던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들은 유가족임을 자각하면서 동시에 삶의 총체적인 전환이나 무의미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참사 이전에 정치 문제에 민감했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공적 주체가 되었다. 이 주체화는 자신의 능동적인 선택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주도한 부정적인 낙인의 결과이기도 했다. 참사가 발생한 후 몇 개월 간 많은 시민들은 동시에 목격한 참사 현장의 충격과 295명의 희생에 슬픔을 느꼈다. 사회적으로 공감되는 것으로 보였던 충격과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부와 언론의 조직적인 부정 여론 형성과 조장이 큰 역할을 했지만, 과거 정부의 악행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도 “지겹다”, “그만하라”고 하는 댓글과 공감수는 진상 규명의 요구를 압도하

---

1) 미공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부모들은 4년 6개월이 지나는 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다. 희생자의 부모들은 참사 직후 구조하지 않는 상황과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현실을 직접 알리고자 진도체육관에서 진도대교까지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하였다. 단원고 유가족은 진도에서 각 반별로 소통을 시작한 뒤, ‘4.16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2014년 6월부터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서명활동을 이어갔다. 7월 12일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8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여야가 합의하는 특별법 재협상과 대통령 결단을 요청하며 청운동에서도 농성을 이어갔다.

2014년 9월 21일,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4.16가족대책위로 재편되었고, 2015년 1월 12일에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 협의회’(이하 가협)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족과 시민들은 온전한 선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및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2015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 간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20일 간의 도보행진을 했다. 2015년 참사 1주기를 전후한 시기에 했던 삭발식, 영정도보행진, 촛불집회 등 활동의 목적은 정부가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4월 18일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는 경찰과 유가족 및 시민들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있었고, 경찰은 캡사이신 물대포를 난사하였다.

2015년 8월부터 세월호의 인양 작업이 시작된 후, 유가족들은 침몰 인근의 동거차도에서 인양 현장을 보기 위한 감시단을 꾸려서 돌아가며 상주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단원고등학교의 희생 학생들의 교실 보존을 위한 교육청 앞 피케팅 등 활동을 하였다. 이외에도 유가족은 2014년부터 진행된 관련자의 재판 참관과 2015년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를 참관한 바 있다. 2018년 10월 현재 가협과 4.16연대 및 지역 모임은 참사 전면 재조사와 재수사를 촉구 하고, 안산 화랑유원지에 건립될 ‘4.16생명안전공원’을 홍보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sup>2)</sup>

이처럼 참사로 인해 평범한 시민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정치 활동과 실천은 ‘수동적 시민’이 ‘저항적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sup>3)</sup> 유가족의 사회 체제에 대한 각성과 세계관의 변화는 당연한 문제인 진상 규명과 기억 공간 설립을 위한 활동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참사 당사자의 정치사회적 활동과 경험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가족 부모들의 활동을 역사로 서술하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대의 중대한 사건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기록함으로써 역사서술에서 현재성과 미래 전망을 담고자 하는 목적이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행하는 운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단발에 그치지 않으며 그 힘은 사회적으로 공감과 연대의 가능성으로 진화할 수 있다. 참사 후 각 지역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모임들이 만들어졌고, 많은 시민들은 참사 후 4년이 지난 지금, 유가족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sup>4)</sup> 앞으로 한국 사회를 주도해 갈 젊은 세대에겐 세월호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소수로 꼽는 인상적인 사건이다. 역사가 과거의 박제된 사실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세월호 참사가 이끌어 내고 있는 사회적 변화의 힘과 유의미한 미래 전망을 역사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하고, 연구자는 기록하고 들어서 그 ‘사실’을 함께 남겨

2) 유가족의 주요 활동 내역은 4.16가족협의회 홈페이지(<http://416family.org/>)의 4.16가족의 발자취 참조(최종검색일: 2018년 10월 14일).

3) 이현정, 「‘수동적 시민’에서 ‘저항적 주체’로」, 『침몰한 세월호, 난파하는 대한민국』, 한울, 2017, 204~307쪽.

4)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7명 “세월호 진상규명 미흡”」 KBS뉴스, 2018.4.18.

야 한다.

둘째, 부모들의 활동 내용 및 인식과 감정을 기록하는 것은 참사 후 드러나지 않은 과거의 사실들을 밝히고 보존하는 일이다. 부모들은 여러 현장과 가장 밀착되어 있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참사를 대하는 인식과 대응, 편향된 언론 보도 지시 등은 뒤늦게 밝혀지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이미 생생한 자기경험으로 참사 초기부터 정부로부터의 사찰과 압력을 알았고, 폭력적인 진압에 직면하였다. 또한 누가 어떻게 연대하였고, 방해하였는지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는 사회의 비난과 조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유가족 부모의 경험에 근거한 역사 서술에서는 2014년 참사를 결과로 한 원인과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참사와 유가족을 향한 국가와 사회의 배제와 혐오, 이에 저항하거나 포기하는 당사자를 함께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가족 부모의 삶을 통해 피해 당사자를 향한 사회의 부당한 ‘피해자다움’의 요구를 역사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과거에 한국전쟁 학살의 피해자를 ‘빨갱이’로 여겼고, 일본군 ‘위안부’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만들었던 가부장적 구조와 인식이 존재했으며, 부랑인과 깡패, 성매매 여성은 감금해도 무방하다고 여겼다. 즉,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 피해자 상(像)을 형성해가는 과정 또한 역사적인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지적해야 하는 점은,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삶, 태도와 자세는 억압적인 정권이 창출한 결과물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세금 도둑’의 불명예를 갖게 하는 것은 정부와 언론이 시발점을 제공하였지만, 자신의 이익이 누군가나 공동체에 공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회 정서의 반영이기도 하다. 다수의 유가족은 ‘정치적 주체’가 되는 것을 예상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다. 평범한 시민이 정치사회적인 각성을 하고, 타인과 연대하게 된 변화를 역사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되어야만 변화가 추동되는가. 또 누가 피해 당사자에게 ‘유가족다움’과 지속적인 운동을 요구할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필자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면담한 6명(부 2명, 모 4명)의 유가족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이들은 단원고 희생자의 부모이고,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 면담은 기억저장소와 구술팀장의 섭외로 이루어졌고, 구술자별 3회~5회, 회차별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면담 시기, 활동 시기와 전업 여부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부모 | 면담 시기        | 활동 내용 및 시기               | 직업 여부 |
|----|----|--------------|--------------------------|-------|
| A  | 부  | 2017년 2~3월   | 대규모 집회만 참여               | 있음    |
| B  | 모  | 2016년 3월     | 초기 참여, 현재 간헐적 참여         | 있음    |
| C  | 모  | 2016년 2~3월   |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활동 참여      | 없음    |
| D  | 모  | 2018년 4월     | 초기 간부 활동 후 현재는 거의 참여 안 함 | 있음    |
| E  | 모  | 2015년 11~12월 |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참여       | 없음    |
| F  | 부  | 2016년 1~2월   | 2014년에 진도 오감, 이후 현재까지 참여 | 있음    |

## 2. 유가족으로서의 자각

### 1) 진도대교 행진

유가족 부모들이 처음으로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고, 경찰과 마주하게 된 사건은 2014년 4월 19일 밤부터 20일 아침까지 있었던 진도대교 대치였다. 부모들은 참사 발생 후 사흘이 지났지만 실제로 구조하지 않고 있고, 당국이 수색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유

가족들은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 지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목적으로 100여 명이 체육관을 나서서 행진하였고, 70여 명이 아침까지 진도대교에서 대치하였다. 체육관에서 진도대교까지의 거리는 12km가 넘는다. 가족들은 버스 두 대에 나눠서 서울로 출발하고자 했지만 경찰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승차를 막았고, 가족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sup>5)</sup>

C: 일요일, 아니 토요일 날 밤에 우리가 걸었잖아요, 진도대교까지. 근데 막 걸으러 나갈라 할 때 어떤 할머니하고 여자가 싸웠어요. 그게 그분들이 유가족이 아니었어요. 우리 나갈려는 걸 시간 끄는 거예요. 밖에 자기네들 경찰들, 그 의경 애들 (면담자: 대치선 만들려고) 만들려고. 그런데 우린 그런 거까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 방송 다 거짓말이라고 할 때 또 우리는 훅 나가다가 잠깐 그 몸 싸우는 사람 사이에 한 2, 30분 지체가 된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부모가 아니라는 거 알고, 그런데 어떻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참 구해다가 그렇게 시켰는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진도대교 걷는다고 나갔어요.

C의 증언에 의하면, 진도대교를 향해 나갈 때 체육관 밖에서 의도적으로 싸움을 걸고 시간을 끄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4월 18일에 유가족이 실종자 학부모 대책본부를 만들 때에도 감시받고 있다는 상황이 작용하였다. 서로 부모임을 서로 인지하기 위해 체육관에서 반별로 모이게 되고 대표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체육관의 외부인 출입과 주위의 감시는 가족들에게 체감되고 있었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D: ☆아버님이 저희 반 하면서 “너 누구냐” 부모들끼리도 못 미더워서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사복 경찰이고 이런 과정들이 밝혀지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반별로 모임시다. 반대표를 세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진도에서 부모들이 서로를 알게 될 때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반 OO엄마, OO아빠로 불렸고, 그대로 명찰을 달았다. 당시 진도에서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 호명될 때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활동하는 유가족 부모는 모두 OO엄마, OO아빠로 먼저 불린다.

한편, 진도대교로 가는 길에 OO엄마, OO아빠는 다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고 한다. C는 “오늘 저녁에 걸고 나면 아이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19일 밤에는 유가족들은 비가 오고 있어서 우비를 입고 행진에 나섰는데 참사 후 며칠 째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다가 걸기를 시작하자 졸음이 밀려오기도 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같은 반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걸을 수 있었다.

C: 걸으면서 졸려 죽-겠는 거야. 그래서 잠깐 쉴 때 이렇게 난간에 앉아서 쉬면 앉아서 졸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가족끼리 나와서 걷는데 저는 이제 혼자 나갔잖아요, 아빠는 안산에 올라와있고. 그런데 우리 반 애 엄마랑 같이 걸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뒤에 앉으신 분이 우리 반이라는 걸 알고 그 엄마랑 이모랑 셋이 이제 뒤에 따라 걸었거든. 그분들하고 같이 걸었기 때문에 그나마 걸었을 수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체육관을 나서서 진도대교를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다. 먼저 경찰이 가족들보다

5) 「[여객선참사 속보] “기만적인 정부 못 믿겠다” 정총리 새벽에 3시간 고립」, 『경향신문』 2014.4.20.

많은 규모로 저지선을 만들었다. 진도가 고향인 어느 부모의 제안으로 바리케이드를 피해서 옛길로 돌아갔지만 역시 경찰벽에 막혔다. 엄마들은 “싸우든 어쨌든 산, 풀밭 같은 걸 헤치고” 저지선을 뚫고 나갔다. 그러나 “구길, 신길, 대교에서 오는 길이 삼각형으로” 막혀서 부모들을 “몰아 넣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서울까지 가겠다는 각오도 있었지만 행진과 저지를 계기로 진도라는 섬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깨닫고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면담자 : 그때 가시면서 어머니 무슨 생각 하셨어요?

B : 아니 진짜 갈 생각했어요.

면담자 : 이대로 서울까지 간다.

B : 갈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철저하게 우리가 고립돼 있구나 못나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구. 그 안에서 막 하는 거랑 티비에서 방송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보면 볼수록 우리가 진짜 고립되어 있다. 어떤 부모님들은 여기가 진도가 원래 섬이긴 하지만, 진짜 진도 외딴섬, 아무도 저기하지 않는 외딴 섬 같더라는 그런 표현도 하신 부모님이 계세요.

또 가족들 사이에 행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체육관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며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총리가 도착했을 때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C: 엄마들이 앞장서서 어쨌든 뭐 애네들하고 싸우든 어쨌든 막 산 이런 데 풀밭 같은 거 있잖아 막 그런 걸 헤치고 막 들어갔어요, 넘어갔어. 개네들을 뚫었는데. 우리 이쪽을 뚫으면 뭐 하냐고 뒤쪽에 또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길 가는 길, 신길 가는 길, 대교에서 오는 길 여기서 우리를 몰아넣은 거죠, 부모들을. 더는 여기서 더는 못 나가게. 거기서 이제 11시 정도까지 대치를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해수부장관을 끌고 나오라 했더니 우리 아빠들이 체육관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갈 일이 아닌데 여기 끌고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담판을 짓는데. 엄마들이 안 된다 해도 끝까지 아빠들 그 고집에...

진도대교 행진에 처음부터 나서지 않은 부모도 있었다. F는 가족들이 분명히 경찰에 막힐 것이며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들은 진도 현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외부로 알려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고립감을 느끼는 것도 단지 물리적인 저지 때문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가족들만 구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F: 저는 진도에서, 체육관에서 행진한다고 할 때도 전 안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막힐 거라는 걸 알았고, 부모님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경찰들 어떻게 나올 거라는 상황들. 저는 분명히 막힐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단지 그때 계속해서 어필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매체라도 좋다 좀, 상황들을 좀 누군가가 밖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행진하지 않은 부모 중 상당수는 자녀가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자각을 하고, 절망감과 무력감에 압도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팽목항과 체육관을 오가

는 생활만 했다. 팽목항에서도 소리치고 항의하거나 먹살을 잡게 되는 분노의 표출도 없었다. 그는 아이가 돌아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감정도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었다. E의 경우, 진도에 도착했을 때부터 혼절을 반복하다가 입원을 했다. 그는 1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구술할 때, 당시의 기억을 거의 떠올리지 못했고, 입원한 후에는 소식과 차단되었다.

면담자: 팽목 계실 때도 아버님은 소리치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셨던 거예요?

A : 그렇죠.

면담자 : (한숨)

A : 그냥 그냥, 계속 놀르고만 있었던 거 같아요. ☆가 올 때 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죠.

E: 대통령이 언제 왔다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왔다가는 거 까지 제가 봤던 거 같아요. 어렵 뜻이 분거 같아요. 와서 이야기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나요. 왔다간 것만 기억이 나고, 그 전에 교장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뭐 이야기를 했던 거 같기도 하구요. ... 3일 째 되면서 체육관에서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계속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응급실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안정제 맞고 혈압 떨어지면 체육관으로 오고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한 거 같아요. 그랬다가 신랑이 그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를 입원을 시키더라구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아예 티비를 못 보게끔 차단을 했어요.

유가족 부모들은 4월 16일 참사 직후, 각기 다른 모습들로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통적으로로는 자녀가 살아오지 못할 거라는 충격과 절망, 구조하지 않고 있지만 외부로 알려지지 못하는 상황, 대통령이 다녀갔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장에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를 기다리던 희망이 무너지고, 정부가 구조 시늬만 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직접 행동에 나섰고, 처음으로 진도대교 행진에서 정부와 대치하게 되었다. 진도대교 대치를 바라보는 당시 사회적 반응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sup>6)</sup> 이후 6월부터 시작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서도 한 달 사이에 350만 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지지는 유지되고 있었다.

## 2) 특별법 제정 서명 활동

가족대책위는 6월 7일부터 서울 대한문 앞에서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하였고, 7월 2일부터 반별로 지역을 맡아서 전국 버스 순회를 시작하였다. 서명 활동에 가족들이 나서게 된 것은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였다. 먼저 시민들과 유가족이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던 세월호가 당사자를 통해 사회로 드러났고, 유가족과 시민들은 막연히 공유하던 감정들을 서로 대면하며 함께 울고 손을 잡기도 하였다. 당시 부모들은 서명하고 음료수를 놓고 가는 정도의, 크게 어렵지 않은 공감의 표시에도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고 있었다.

D: 그 당시 반응은 대부분 우셨어요. 우셨고, 저희도 “서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소리가 안 나왔어요. 처음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시는 분이러든지 뭐 이렇게 반응들을 보이시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점점 더 힘을 얻어갔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뭐 박카

6) 「[세월호 참사][종합]실종자 가족 "청와대 가겠다" 눈물의 행진」, 『뉴시스』 2014.4.20.;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 경찰과 대치 소식에 네티즌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아주경제』 2014.4.20.; 「<여객선침몰> 실전서 '무능' 드러낸 정부 새 재난대응체계」, 『연합뉴스』 2014.4.20.

스라든지, 이렇게 음료수라든지 사서 놓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더 크게 얘기를 했던 거 같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서명을 받았던 거 같애요.

B: 너무 고생하신다 힘내시라 그러면서 음료수도 챙겨다 주시고. 제일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수원의 그 어디 대학교였지 그 쪽으로 서명을 갔는데 한 네다섯 살 된 꼬마 여자아이가 막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주는 거예요, 음료수를. “드시고 힘내세요” 이려고 가는데, 거기 저희 부모님들이 그때도 너무 울었어요.

서명 운동이 가져온 또 다른 변화는 부모들이 스스로 “세월호 유가족입니다”라고 소리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불특정 다수 앞에서 큰소리로 말해본 경험이 없었던 부모는 한 마디 말을 떼기가 어려웠다. 먼저 외치는 부모를 따라서 외치거나 같이 해달라고 하며 서명 요청을 하였다. 그나마 부스에서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는 나왔지만 서명지를 직접 들고 다니며 받아야 할 때는 처음에 2인 1조로 함께 서명을 받으러 다녔고, “말을 띄우기가 너무 힘들었”다.

B: 마음은 막, 막 [소리를 내지만] 처음에는 진짜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내 옆에 있는 부모님이 한 마디하면 내 한 마디하고, 옆에 있는 부모님 한 마디 하면, 한 마디하고 안 그러면 같이 외치고 해달라고. 왜 해야 되는지 해달라고. 사실은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나오지가 않았어요, 말이. 지금은 하라고 그러면 해요. (웃음) … 2인 1조로 다니고 서명지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못 하나까 같이 받고 그러고 그랬죠. 서명지 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는 그냥 해달라고만 하면 되는데, 들고 다니며 가지고 다니며 해달라고 할 때는 아우 참 말 띄우기가 너무 힘들었지.

스스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어이가 없고 억울하다는 감정이 북받치기도 했다. 왜 내가 유가족이어야 하는가 자문하게 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다. 서명 운동을 하며 부모는 유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유가족이 되었다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공감하는 사람들로 인해 유가족이 해야 하는 일로 활동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D: 처음에는 “서명 받습니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유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월호 유가족입니다.” 요 자만 나와도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야. 이게 숨이 탁 막히면서, 너무 여기[가슴이]가 어안이 없다, 모라 그래야 되지.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겹치니까 여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팍 드는 거죠, 그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그러면서 오셔서 같이 이제 손잡아 주시고 이러면서 힘이 나는 거죠. ‘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게.

서명 운동으로 가족들이 시민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연대감을 가지며 활동에 의지를 가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면전에서 하는 비난 또한 듣게 되는 시발점 또한 서명 운동이었다. 참사 당일부터 보험회사의 보상 금액에 관한 보도가 나왔고,<sup>7)</sup> 4월 20일에 안산과 진도가 특별재난

7) 대표적으로 MBC가 이브닝뉴스에서 보상 문제를 다루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지원과 보상 내용 보도가 쏟아졌다. 전국 서명 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6월 16일에도 정부에서는 “유가족 과도한 요구”, “세월호 유가족 요구 무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7월 8일에는 비서실장이 참사 원인을 “선장선원의 배반적 유기 행위, 해경 초동 구조 작전의 실패, 유병언 일당 탐욕(배 수선, 과적)”이라고 규정하고, “청와대 보고와 그 과정의 혼선은 없었(X)”으며 “정부가 변명하지 않아야(X)”한다고 발언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검찰이 관계자를 구속하여 철저히 수사 중인데도 유족이 수사권 부여를 주장”한다고 보았다.<sup>8)</sup>

정부는 참사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요구를 과도하고 무리한 것으로 규정해갔다. 뿐만 아니라 7월 22일 “수사 방향(方向) comment. (검찰) - 후속조치”, “관련자 책임 규정, 재산 추적”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검찰 수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9)</sup>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 논의는 과거의 의문사위나 진실화해위의 경험 속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입증한 자료와 가해자(증언) 조사를 강제하지 못하여 실제로 과거 청산에 한계가 있었던 배경 하에 나왔다.<sup>10)</sup> 유가족이 주장한 특별법의 수사권·기소권은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자 진상 규명 후 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었고, 230명의 법학자와 1,043명의 변호사가 동의했으나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급기야 정부는 8월이 시작되자 “세월호에서 벗어나 원칙(原則)대로”라고 하며 참사의 진상은 덮고 여론을 반전시키기만을 기다렸다.<sup>11)</sup>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언론에 의해 재생산되었고, 시민들의 추모 열기도 점차 식어가고 있었다. 유가족이 아이들과 같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B: 서명 받으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니네 자식들은 수학여행 가서 그런 거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줄텐데 왜 설치느냐, 진짜 그런 이야기. 내 자식은 아니고 내 아는 사람의 자식도 거기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라 진짜 왜 설치냐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얼마를 받고 싶어서 자식 팔아 얼마 받고 싶어서 그러느냐. 처음에 부모님들 저도 그랬지만 아, 그 소리를 들으면 아우 진짜 가슴이 미어지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들 쓰러져서 울고 음 그랬었어요.

서명 운동의 또 다른 의미는 가족들의 기대감과 활동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때였다는 점이다. 많은 시민들의 서명이 국회와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았다. 분향소에 모인 서명 용지를 보고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B: 전국적으로 서명 받으러 다녔을 때 그 때는 진짜 서명 받고 특별법 제정해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될 줄 알았어요. 일말에 실마리라도 잡은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진짜 그 시민들 쫓아다니면서, 와서도 그냥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쫓아가서 이 서명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명을 많이 했고. 그때는 힘들지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들하고

8) 김영한 전 정무수석 업무 수첩, 『한겨레 21』 1147호, 2017.1.31

9) 김영한 전 정무수석 업무 수첩, 『한겨레 21』 1147호, 2017.1.31

10) 강성현, 「피해자와 사회 중심의 진상 규명과 정의 수립은 가능한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246~247쪽.

11) 김영한 전 정무수석 업무 수첩, 『한겨레 21』 1147호, 2017.1.31

같이 될 거라고 믿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힘든 줄 모르고 그냥 옆에 보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달렸죠. 우리가 서명 받은 그 용지를 다 포장을 해서 분향소에서 보면 느끼게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사실 그런 거에 힘을 더 얻는 거니까.

유가족의 기대와 희망은 서명 운동 시점에서 정점이었다가 점차 줄어들었다. 국회와 청운동에서의 농성에서 부모들은 ‘유가족’이기 때문에 통제되는 상황에 맞닥뜨렸고, 공권력과 직접 충돌하였다.

### 3. 유가족 활동의 고통과 변화

#### 1) 충돌과 분노

2014년 7월 12일에 가족대책위는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국회의사당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때는 특별법 제정 TF팀에 가족대책위를 포함하는 3자 협의체 구성과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14일에는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을 시작하였다. 단식 농성을 시작한 후 350만 명의 서명지가 국회에 전달되었고, 특별법 제정은 난항이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하던 당시에 유가족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부모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당했고, 국회의원 보좌관의 도움으로 몰래 들어간 경험도 있다.

C: 국회 처음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자리 잡을 때, 그때 막 갑자기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막 담 넘어서 싸우고 들어갔잖아.

B: 국회에 들어갈 때도 다른 사람들은 잘 들어오는데 저희 유가족은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그 보좌관의 힘 빌어서 약간의 007작전이라고, 몰래 몰래 많이 들어가고. 못 들어오게 이중삼중, 삼중사중 저희들을 막았을 때도, 진짜 이 나라가 진짜 우리나라가 싫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있지만 들어가기가 힘들니까 이를 삼일씩 반별로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저희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국회에 회관에서 잤었지만 나중에는 국회 그 회관에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구. 저희 신분증을 맡기고 그 출입증을 받아서 국회 회관 왔다 갔다 했었어요.

농성이 지속되자 국회에서는 출입을 제한하였다. 화장실이나 식당 사용을 못하게 하였고, 부모들은 밤에 강제 철수를 시킬까봐 우려하였다. 8월 초순으로 추정되는 이 시기에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유가족을 ‘노숙자’에 비유하여 논란이 된 바 있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청사 출입 절차를 강화하였다.

B: 나중에는 아예 [출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 왜 안 되냐 지금까지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왔다갔다했고 씻는 것도 그러고 왜 안 되냐. 세월호 유가족이라 안 된대요, 이유가 없어요, 세월호 유가족이니까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 국회 그 남문 쪽에 있는 화장실을 저

희 가족들이 쓰게 됐죠. 먹을 것도 저희가 이제 그 국회에서 밥을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 거절을 했더라구요. 안 된다고.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식권사서 먹겠다 그랬더니 해달라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이유가 세월호 유가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밖에서 도시락 배달을 해서 몇 끼를 그렇게 먹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국회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경찰들이 사중오중 그 안에도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서 밖에서, 진짜 그 차가운 바닥에서 며칠을 있었는지...

B: 부모님들이 국회 있으면 처음에는 많이 잤는데 나중에는 줄었어요. 낮에 보다 밤이 무섭다. 낮에는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좀 덜한데 밤에는 여차하면 들어내려고 하는 조짐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밤에 더 많이 주무셨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밤에 소리 소문 없이 들어낼 까봐.

청운동에서의 농성에서도 유가족은 감시의 대상이었다. 서울에 도착하면서부터 경찰들이 따라붙었고, 도로용 CCTV가 가족들을 향하고 있었다고 한다. B는 청운동에서 유가족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리본과 배지를 숨기고 불안해했던 때를 힘들게 이야기 하였다. 농성장에 들어가는 등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임을 숨겨야 했고, 범죄 집단처럼 취급되는 것에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B: 청운동에서 있을 때도 첫날에는 제가 있지 않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있었는데. (울음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음 그 안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몸싸움해가면서 유가족이 아닌 척 하면서. 거기에 CCTV가 있는데 도로상황을 보기 위한 CCTV인데 어느 상황인가 그 CCTV가 우리 유가족을 보고 있더라구요. 참 우리 가족들이 범죄 집단도 아니고 왜 우리를 감시를 해야 되나. 하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거기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국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였지만 청운동에 있을 때도 부모님들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저희들은 안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경찰들이 따라붙고 감시가 시작되기 때때, 안 봐도 유가족인지 그때는 다 알아 알아본 듯 봤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어딜 가면 못 들어가니까 부모님들 가족 가방에 리본이며 막 이런 배지며 이런 것들을 가방에다 넣고 아닌 척 하고 지나가고 그랬었어요. (울음)

특별법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채 여야 간 합의되었고, 10월 31일에 타결되었다. 유가족은 76일 간 해왔던 청운동 농성을 11월 5일에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11월 11일에 세월호 수중 수색을 종료하였다. 해를 넘겨 2015년에 정부는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조직 규모 및 범위를 축소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유가족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이에 유가족은 해양수산부를 의견서 및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이 건물 앞을 가로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어느 엄마는 여경에게 들려서 옮겨졌는데, 옷이 올라가서 기분이 나빴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또 새 우산을 뺏겼던 것을 웃으며 말할 때는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처럼 웃었지만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정부 관계자가 유가족을 “쓰레기”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무척 서러웠다고 하였다.

면담자 : 어머니 세종시에서 여경들이 어머니 대치하고 있을 때 들어서 옮겼다 하셨잖아요. 그 때 어떻게 됐어요?

B : 들어서 옆으로 옮겼었거든요. 이렇게 올리니까 속살까지 막 보이고 좀 여자로서 기분 좀 그랬어요. 아무튼. 뱃살이 다 드러나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비가 온다고 새 우산을 챙겨 갔다가 (웃음) 나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공격할 게 없는 거야. (웃음) 그러니까 얼떨결에 우산으로 경찰들을 때렸는데 그게 무기가 되니까 경찰들이 그 우산을 갖다가 강제로 뺏어가지고 버리고. 아휴 그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보고 그러면 한 번 씩 숨을 못 쉴 때가 있으니까 비상 약으로 가지고 다니고 안정을 취하고 차에 좀 앉아 있다가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 2) 강해지는 엄마들

참사 1주기에 열렸던 ‘세월호 참사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잇기’ 행사에서 경찰은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며 강제 해산을 시도하였다. 경찰은 강경 진압을 하며 유가족을 끌어내고 있었고, 참사 후 처음으로 유가족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유가족은 광화문 헌판 앞에서 차벽으로 둘러싸여 고립되었다. 나갈 수는 있었지만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다. 몇 시간은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버지인 A는 아내가 고립되어 있어서 밖에서 “벌벌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C: 청운동 쪽으로 갔을 때 경찰들 뚫고 나갔는데 입구에서 머리를 잡힌 거야. 애네들이 머리를 잡고, 나를 이렇게 해서 내 얼굴에다 캡사이신 뿌리고 있더라고. 그때는 노란 잠바를 위에 입었잖아요.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부모, 유가족이라는 것도 상관없고 그냥, “야, 잡아 뿌려.” 얼굴에다 막, 막 뿌리더라고. 머리, 머리를 딱 잡고. 뿌려가지고, 아주 뭐지 개 끌듯이 끌더라고. 막 내가 소리 질렀지, 니네들도 새끼 잃어보라고. 그랬더니 막 끌고 다니다가 차 태우려 했는데 차가 만차야. … ☆엄마랑 둘이 내려오는데, 내가 막 욕을 했더니 어떤 사복 입은 놈이 자식 죽으면 다 나처럼 안 한다는 거야. … 그때 캡사이신 뿌릴 때는 정말 개네들 무지막지하게 뿌려대더만. 얼굴에도, 끌고 다닐 때도 개 끌듯이 끌고 다니고. 우리 헌판 앞에 있을 때도 낮에는 버스위에 올라가서 피켓하고, 엄마들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한숨) 참, 그때 싸울 때는 막 악에 차가지고 싸우는데, 지금 싸우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무식하게 들이댄 거야. 좀 전략도 없고, 무대포로 싸웠잖아.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긴 해.

A: 경찰 차벽이 쳐지면서 더 이상 엄마, 아빠들이 누구라도 못 들어가게끔 차벽을 치고 경찰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지키고 있고, 우리는 밖에서 벌벌 떨고 있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농성을 하고.

참사와 이후 정부의 행태는 유가족을 “악에 차서” 싸우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특히 엄마들은 집회의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 저지와 강경 진압에 몸으로 맞서고 있었다. 충돌 상황에서 경찰은 시민과 유가족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사하고 있었다. 분노하는 유가족에게 자식이 죽는다고 다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여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다.

2015년은 정부와의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언론, 보수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비방하고 시민들의 인식 또한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해진 시기였다. 엄마들은 이전까지의 활동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룬 것이 없었고, 경찰과의 직접 충돌이 잦아지며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참사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은 분노가 분출되는 방식의 하나는 욕을 하는 것이었다. 평소

에 “암전하다고” 보였던 엄마도 “자신도 모르게” 욕을 하고 있었다.

B : 제일 많이 는 게 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애들한테 이 새끼 이놈의 새끼 진짜 그 말 밖에 안 했거든요. 맨날 애들이 싫어했어, 엄마 왜 맨날 새끼, 새끼 하냐고 그러면. “당근이지 넌 내 새끼인데, 새끼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엄마 그건 욕이야.” “내 새끼한테 내 새끼라 부르는 게 그게 무슨 욕이야.” 그 정도였어요. 우리 애들한테는 욕 한 번을 안 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음 막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니까. … 저희 반 엄마들이 그래요. ☆엄마가 그런 면이 있는지는 몰랐다. (웃음) … [욕] 엄청 많이 했으니까. 돌아오고 나서는 암전해 지니까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다. (웃음) 이중적인 면. (웃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유가족의 ‘욕’은 주목받기에 좋았다. 참사 직후인 4월 17일에도 “유가족이 해경 관계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는 내용이 수많은 기사로 옮겨졌고, 대통령에게 고함과 욕설을 했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가족들이 언제, 누구에게 욕을 한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졌다. 21일에는 병원에서 유족과 생존자 가족이 충돌하며 욕설을 했다는 것도 기사가 되었다. 유가족은 침착하게 대화하고, 욕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 유가족은 분노가 터져 나오지만 인내해야 하는 상황들에 계속해서 직면하였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1심 재판이 진행될 때도 다시 참사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가해자의 모습을 보는 것 역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어느 엄마는 법정 소란으로 제지를 당해서 밖에 나와 모니터로 재판 광경을 보고 있다가 선장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기억하기에 선장이 살이 썩어 있고, 법정에 웃고 들어와서 화가 났었다고 한다. 또한 재판 중에 즐기고 있는 모습이 모니터로 보여서 다음 재판에는 모니터를 치우게 했다.

C : 선원들 다 봤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첫날은. 첫날은 힘들어가지고 막 내가 이제 막 힘들어하니까 부장검사가 잠깐 나갔다 오라더라고. 좀 밖에 있다가 들어오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 하루 종일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쉬운 건 아니, 아니, 내 일이다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걸 보면서 재판과정을 다 보면서 어떤 때는 시간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걸 보면 저 시간이면 충분한데 왜 헬기가 떠가지고 굳이 애들을 안심을 시켰을까. 그런 거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다음번 갔을 때 좀 낮고 그 다음번에 좀 낮고 이렇더라고요.

B : 듣다 보면 막 울분이 터지고 광주 그 첫 날 갔을 때 참 그 선장이라니 막 엄청 살이 포동포동 찌가지고 온 그 모습이며 막 웃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며, 그 재판 받는 도중에 그 즐기고 있는 모습이. 처음에는 부모님 너무 많아서 이제 한 쪽은 모니터로 보고 한 쪽은 직접 보는 건데 직접 볼 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모니터로 봤을 때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 선장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그 컴퓨터 모니터 치워주면 안 되냐고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 선장 즐기고 있는 저 모습이 다 보인다고. 즐기고 있는 거를 치워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가지고 첫날은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치워주겠다고 그래서 그 모니터가 앞에 있던 거 필요한 것만 빼고 그때는 다 뺐어요.

유가족은 분노하고 투쟁하며 욕하는 사람이 되어간 것도 괴롭지만, 참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도 매 순간 내적인 투쟁이었다. 나아가 왜 이러한 상황에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가 질문하였

고, 싸워야 하는 현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또 다른 의지를 필요로 했다.

D: 우리는 당사잔데,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정말 이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를 악 물고 '나 아픈 사람 아니야. 나 아프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했던 거 같아요. 나서서 그래서 싸울 수 있었던 거 같고.

활동하는 유가족 역시 힘과 의욕, 정치적 의지가 있어서였던 것만이 아니었다. 2014~15년 초까지 가족대책위 간부를 맡았던 D는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피해 당사자이지만 “이를 악 물고” 아프지 않은 사람으로 버텨음을 말하였다. 진상 규명의 목표는 정부의 조사 방해로 더욱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유가족과 정부의 충돌은 격해지는 상황에서 유가족은 스스로의 변화까지 받아들여야 했고, 인내와 투쟁을 반복하고 있었다.

#### 4. '세월호 유가족다움'의 문제점과 애도

##### 1) 대화와 승화

유가족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학생들과 만나며 슬퍼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던 2014년 여름에 유가족의 활발한 활동 중 하나가 간담회였다. 전국 각지에서 유가족을 초청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의 발언도 수월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기도 했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감정이 제어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활동은 여러 가지 중에서 각자에게 보다 적합한 것들이 있었다.

B: 저는 많이 못 갔어요. 가서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감정이 북받쳐서 말을 많이 못 하고, 거의 가면 ☆아빠가 말을 많이 했어요. 하다보면 막 저는 울기부터 하니까 애길 하다보면 눈물부터 나고 그래버리니까.

여러 간담회 중에서 자녀 또래의 학생들과 만났을 때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엄마들이 있다. 아이들을 만나서 “일어나야 달라진다”, “깨어나라”고 하면서도 다치면 안 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D: 아이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애길 했던 게 뭐냐면, 깨어나라고. 제가 그 애길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제발 너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고, “근데 너희들이 다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E의 경우에는 대안학교에 간담회를 갔던 경험을 통해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고, 구술 당시 건강하지 않은 자신에 비추어 보기도 하였다. E의 아이는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E: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는 대안학교가요, 말 그대로 학교에서 문제 있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고만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그게 아니구요, 이 사회

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아이들 학교생활이 바뀌어가면서요, 말 그대로 문제아이가 아닌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나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말 그대로. 정상인 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제가 힘든 마음을 제가 그걸 가졌잖아요. 몇 개월 동안에.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가는 학교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밝은 표정 이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그렇게 너무 좋아갖구서는 우리 ☆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가족 부모는 2014년에 진행된 간담회에서 또래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자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서 새로운 전망을 가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래의 학생들은 자녀가 살아있었을 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B의 경우는 간담회로 가게 된 모 대학의 졸업식에 연이어 참석하였고, 간담회를 주관한 학생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간담회는 유가족 부모가 참사의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어서 서명 활동을 하던 때처럼 치유의 순간들이 있었다.

부모들이 연대와 치유를 위해 했던 활동으로 2015년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19박 20일 간의 안산-진도 간 도보행진도 빠질 수 없다. C에게는 2016년 초반 시점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도보행진이었다. 당시 도보행진은 전 구간을 걸기도 하고, 반별로 나뉜 구간을 택하여 걸기도 했는데, C는 전 구간을 걸었다. 전 구간 도보를 미리 신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것이 두려웠다. 도보가 시작된 후에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부모들이 가 급적 차를 타지 않고 견고자 했다고 한다. C는 ‘자녀’의 죽음과 진상 규명 목표가 활동의 강한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C: 나는 제일 겁났던 게 내가 중도 포기할까봐. 그게 좀 두렵더라고. 왜냐하면 포기한다는 자체가 안 좋잖아요. 포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일을 시작하는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 19박 20일 걸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죠. 첫 날은 신발을 잘못 신어갖고 물집이 생겼는데, 한 3일까지 5일 정도, 막 다리가 쥐가 나고 땀났어요. 근데 못 걸으면 차를 좀 타도 됐는데, 제가 두 번인가 탔어. 결국은 안 돼갖고. 이게 막 걸을 수가 없어.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들이 전부다 의외로 차 안 타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냥. ... 나는 내가 한 일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 근데 그렇게 20일 걷는 거는 처음이죠. 아휴, 자식이니까 하지 남편이었으면 안 해요. (웃음) 자식일이니까 걷지. 모든 일이 그래요 지금.

2015년 3월 27일에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정부는 배·보상 절차를 진행하였고, 언론에서는 가족들이 금전적 이득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였다. 가족들은 광화문 광장과 안산분향소 앞에서 대규모 삭발식을 하고 정부 시행령(안) 폐기, 온전한 선제인양, 배·보상 절차 전면중단을 요구하며 희생자 영정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도보행진을 하였다.

E에게 삭발은 강인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보다 담담하게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었다. E는 참사 후 입원중이어서 2015년 초반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던 이 시기가 활동이 본격화되는 때였다. 삭발을 하는 순간 바람이 불자, 머리카락과 함께 “아이들이 스치”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E: 그냥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해서 뭐 마음은 담담했으니까. 이 머리를 스님이 잘라 주시면서 머리카락 바람이 그때 많이 불었어요. 그게 날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조금 음, 아이들 그냥 이렇게 스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눈물이 주르르 그냥 흘러더라구요. 울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음, 그냥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으니까 그러고서는 끝까지 자를 때까지 눈감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머리카락이 날리는 게, 아 그냥 뭐라 그럴까 조금, 조금 마음을 조금 서럽게 하는 그런 게 [느낌을] 받아서 그냥 눈감고 계속 있었던 거 같아요.

유가족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작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위안의 방법이였다. 다른 엄마에 비해 늦게 활동을 시작한 E는 초기 활동 이야기를 알지 못했고 적응해가는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 활동은 공방에서 시작하였는데, 수를 놓거나 울다가만 오는 날도 있었다.

E: “당신 분향소갈 때 저 좀 한번 공방에 데려다 주세요.” 이래갖고 한번 발 디디기 시작을 해갖고 가서 제가 아는 거에 대해, 엄마들이 이야길 해도 제가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그냥 묵묵히 그 당시에는 수 시작을 해서 수놓는 거 하면서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아이들 이야기 그 당시에도 힘들었으니까 아이들 이야기하면 그냥 공방에서 미안하게 엄마들 미안하게 울다만 오고.

2015년 11월 무렵은 참사 후 약 1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농성과 집회 등의 외부활동으로 인해, 치료받지 않은 상태를 지속하다가 건강히 악화된 유가족이 많았다. 참사 직후부터 활동을 계속해 온 유가족의 경우 치료가 필요했다. 2015년에 활동을 시작한 엄마는 아픈 유가족을 대신해서 그 뭇까지 “그 동안 못 했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했다. 유가족에게 활동은 집에 “누워 있고”, “밥을 먹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다.

E: 지금 같은 수 같은 것도 말 그대로 제 엄마들은 지금 1년 동안 공방에서 너무 너무 힘들어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허리 치료받고 약 먹고 계속 그때 공방에 계속 있으니까 이제는 살이 붙어갖고 그거 땀에 허리가 더 아프니까 운동하라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고 계속 운동만 그래야지만 허리가 안 아프니까. 그렇게 하면서 도보나 큰일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참석들은 하시는데 지금 막 몸들이 너무 안 좋아 갖구요, 병원 다니면서 재충전 하시면서 집에 계시고 또 피켓 활동 있으면 가끔 시간되시면 나오시고, 그러는 엄마들 위해 제가 일주일 같은 경우에 저는 딱 차 있거든요. 그 동안에 못 했던 그게 활동이 좀 힘들어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신랑은 저 힘들다고 조금씩, 조금씩 봐 가면서 하라는데 또 우리 신랑 같은 경우에 제 느낌상 집에 있는 것 보다 밖에 활동하는 걸 더 안심스러워 하니까 집에는 매일 전화하면 “아직도 누워있어? 밥 안 먹었어?” 이렇게 전화가, 항상 보이니까 항상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바깥에 힘들어도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한 끼래도 엄마들하고 밥을 먹고 활동하는 모습이 더 좋은가 봐요. 그게 안심이 되고.

E의 구술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참여한 가족의 경험이라는 점이다.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족은 2014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4년이 지나도록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활동 중인 가족들도 상당히 지쳐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던 가족들이 새롭게 참여하기에도 정보의 부족, 가족들 사이의 관계 형성, 활동 방식에 대한 적응 등 난점이 많은 상황이다. 즉, 당사자가 장기간 운동을 이어가기에는 그 한계가 매우 크다. 또한 오히려 활동에 나서는 유가족보다 활동하지 않고 적절히 치료받지 않은 가족들이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

## 2) ‘유가족다움’의 문제점

유가족이 활동하기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공인’처럼 또는 ‘피해자답게’ 또는 ‘죄인’처럼 행동하길 요구받았다는 점이다. 우선 2014년 당시에 누군가는 유가족을 웃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다. 어느 기관에 유가족이 방문했을 때 유가족의 웃고 있는 얼굴이 이상하다고 한 발언에 A는 무척 기분이 상했다고 하였다.<sup>12)</sup> 유가족은 슬퍼하며 울거나 싸우며 욕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었다. 욕을 듣게 되는 일도 있었다.

A: 그 사람이 운동권 1세대라고 그러더라고, 관장이란 사람이. 우리가 점심 무렵에 도착을 했는데 첫 멘트가 그거였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웃고 들어오고, 웃고 있는 얼굴을 보니까 이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희들한테.

A: 나이 든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서울에 가니까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이든, 늙은 사람들이 욕을 해요. 미친 새끼들이라고 쌍욕하고 황당했죠. 죄인이 된다. 죄인 아닌 죄인. 공인 아닌 공인. 그렇게 되요, 이 세상에서.

유가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급격하게 나빠진 데에는 2014년 9월 17일에 있었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가족대책위 임원 5명, 국회의원 김현이 대리기사를 폭행하거나 폭행에 연루되었던 이 사건이 벌어진 후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유가족과 국회의원이 생업을 하는 대리기사에게 갑질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술자리 자체를 문제시 하는 인식도 작용했다. 당시 경찰대 교수였던 표창원은 페이스북에 김현 의원을 비판하며 “우선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윤리성과 도덕성은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적었다.

이 사건 후 유가족은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행동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술자리는 가급적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고, 음주가 아니면 잠을 자기 어려운 부모는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 활동이나 행사가 끝난 뒤 익숙하게 하는 ‘뒤풀이’도 유가족에게는 금기시되었다. 웃으면 이상하다고 하는 인식과 마찬가지로 유가족은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유가족에게 어떠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D: 우리는 노래하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가 몇 개월이 안 됐으니까, 그때가 14년도 겨울쯤이었을 거예요. 이상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다고 막 우리가 좋

12) 발언을 한 당사자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구술자가 발언에 대해 오해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라 니나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가족의 음주나 노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활동 여부, 성별 차이, 직장 생활 경험 여부,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도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었다. 2014년에는 계속되는 ‘상중(喪中)’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었고,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가족도 있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강요되는 ‘피해자성’이 피해 사실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정된 ‘피해자다움’ 인식은 위험하다. 이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자답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부정적인 낙인과 가해가 벌어질 수 있다.

또한 304명의 참가 희생자와 그의 가족은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도 하다. 이들은 가족이 참가 피해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개별 단위이다. 가족들이 함께 활동을 하거나 합의된 주장을 도출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많은 논쟁과 갈등이 벌어진다. 참가 후 가족, 개인으로서의 일상은 당연히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유가족다움’은 운동의 통일성, 일관성을 필요로 할 때도 강조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의 내용과 방향은 하나의 목표와 방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가족 부모의 고통은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다. 웃거나 술을 마시거나 노래하거나 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더라도 예고 없이 분노와 슬픔이 폭발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앞으로의 삶을 ‘세월호 유가족’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유가족’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로 인해 ‘공인’처럼 살아야 한다.

A: 당연히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날 이후로는 그냥 좀 삶 자체가 자꾸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삶, 웃기는 삶이 돼가는 거죠, 점점 더. 공인도 아닌데 공인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말도 막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거 같아요, 그런 것들.

면담자 : 지금 혹시 특별히 고민되거나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A : 예, 딱 한 가지. 오래 살까봐.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오래 살까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오래 살면 좀 웃긴 거죠. 좀 약간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살아가는 방향을. 그전에는 어떻게 해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애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거 같은데, 뒷바라지 해주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거 같은데, 이제는 그런 의미가 없어, 없어져 버린 거 같아 자꾸만.

동시에 삶의 목표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많은 부모들이 하고 있다. ‘자식 먼저 보낸’ 부모가 삶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오래 살 것을 걱정하고 있기도 하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유가족 부모가 참사와 자녀를 ‘잇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20년이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어느 유가족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살아있는 자는 그 짐을 평생 지고 가는 거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짐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내년이면 괜찮아질 거다, 몇 십 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가 아닙니다. ‘몇 십 년 후에는 더 힘들어질 거다 [죽은 자가 남긴 짐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입니다.<sup>13)</sup>

13) 유가족 손상철 씨 구술, 『1995년 서울, 삼풍』, 동아시아, 2016, 198쪽.

## 5. 맺음말

유가족 부모가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진상 규명’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전 정권의 최고책임자가 물러났다고 해서 진상 규명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 의해, 법적·제도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유가족의 활동은 초기에 국가를 향한 것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가족이 구술에 참여할 때 “역사로 서술한다”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였다. 유가족에게 ‘역사’는 사실을 담는 수단이기도 하고, 참사의 진실이 남겨져야 한다는 목표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진상 규명 과정에 대한 역사에는 이러한 당사자의 생각과 마음, 결심과 욕구도 서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진상 규명’은 유가족에게 삶의 유의미함을 찾게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어느 유가족은 진상 규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활동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참사 이전에 가졌던 삶의 목표가 붕괴된 후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찾고, 스스로 애도할 수 있는 행위로서의 활동이 가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유가족 부모는 오늘도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인 추모와 슬픔은 이미 잦아든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족은 납득할만한 진상 규명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마음의 준비하고 있다. 유가족은 5.18광주항쟁의 진상 규명이 걸린 시간보다는 단축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5.18의 어머니들처럼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A: 진상규명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분명한 거죠. 근데 저는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단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나는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더 흘러야지 이거는 분명 밝혀질 거라는 생각,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욕심으로 밝혀지는 것도 아닌.

B: 가까운 미래에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진짜 많이 힘들거라 생각을 하고 5.18 광주 사건도 오랜 시간 끌었잖아요. 저희 가족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길 맞는 거죠, 그죠?

C: 오래 걸리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꼭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밝혀야 되고 부모로서. 부모로서 당연히 밝혀야 되는 일이고 ... 우리는 20년이면 되지 않을까. 제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이에요. 30년은 안 가지 않을까. 그 생각. ... 우리는 함께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 나가는 거고. 20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E: 진실 밝히는데 한발, 한발 우리가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할 때마다 부딪히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오래갈 싸움이란 건 알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 먹고, 지금 5.18 어머니들도 그렇게 해왔듯이 저 또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부모의 활동과 의지는 자신의 건강과 일상, 나아가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참사가 한국 사회의 모순의 결과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사회 변화로도모하는 운동은 피해자의 희생만으로 가능할 수 없고, 이들을 ‘세월호 유가족’으로 고립시키

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다.



2014년 4월 이후, 화인(火印)이 찍혔다. 도종환 시인의 잇구처럼 어느날 유가족으로 불리기 시작한 이들에게 “이제 사월은 옛날의 사월이 아니며, 바다 역시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화인처럼 찍혀 평생 남아 있을 아픔이며,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이다”(도종환, 2016).

안산 시민이자 마을공동체의 일원인 나는, 유가족들을 만날때마다 자연스럽게 못했다. 마을에서 밝혔던 촛불이 계기가 되어, 카페를 열고, 그 공간에서 이들과 만났다. 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다큐 상영, 음식 나눔, 안전공원관련 토론, 자수·뜨게질을 함께 할 때도 이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나누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구술기록을 통해 의미를 길어 올리는 학술대회는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토론을 위해 전달받은 두 개의 논문은 유가족 부모의 경험과 그 의미를 다루고 있다. 이에성은 ‘구술증언록을 통해서 본 4.16 유가족 부모가 경험한 상실의 의미’를, 김아람은 ‘세월호 유가족’이 된 엄마·아빠의 활동과 역사적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

이에성은 구술증언록을 통해, 416 유가족 부모의 경험속에서 상실의 다양한 차원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유가족의 ‘상실’을 크게 세가지로 유형화한다. 첫째는 자녀의 상실이다. 상실을 충분히 애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탈상(脫喪)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곡과 혼란을 경험하느라 적절한 장례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둘째는 가족 및 친족, 친구들 관계에서 오는 상실이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못해 균열이 생기게 되고, 지인들에게서 멀어지는 대신 동병상련의 유가족들과 제한적 관계를 맺게 된다. 셋째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다.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부모들은 사회를 개혁해나가려는 주체로 나서게 된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들의 상실에 머무르지 않고, 한발짝 더 나아가 유가족들이 연대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을 생성해나가고 있음으로 안내한다.

김아람은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이 되어가는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 참사직후 국가부작위 상황에서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면서 유가족임을 자각하게 된다. 또한 광화문과 국회에서 농성에 참여하며 인내와 투쟁을 반복하며 점차 강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공인’이거나, ‘피해자’, ‘죄인’ 답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회적 시선 속에 ‘유가족다움’에 갇혀버리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들을 ‘세월호 유가족’으로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를 위한 운동의 지향과 방법을 고민하며 맺고 있다.

두 연구자가 이 논문을 발표하기위해 얼마나 지난하고 진진한 시간을 관통해왔는지 경탄을 보낸다. 다만 좀 더 궁금한 것이 있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구술사연구는 정보수집(information gathering)에서 상호작용과 과정(interaction/process)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Anderson and jack 1991:23, 윤택림 외, 2012:60 재인용)이 있다. 이 구술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쳤으며, 그 과정 속에 연구자와 구술자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궁금하다. ‘상실’, 그리고 ‘유가족다움’이라는 키워드에 포박되어 유가족들의 구술-침묵까지도 포함되는-에서 다른 역동과 주체성과 미래지향성 등을 놓치거나 지나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향후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결론부분에 언급되었던, ‘상실을 새로운 사회적 관계 재구성 해 나가는 과정’과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고립에서 벗어나는 변화 과정’ 등이 보완되길 바라며 부족한 토론문을 마친다.



## 김아람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노용석

- 세월호 사건은 한국사회의 구조를 보여주는 주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과정이 사회에서 어떻게 규정화되는가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구술사 연구 과정은 중요하고 뜻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두 편의 논문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떻게 투쟁해왔으며, 또한 한국사회는 이들에게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강요'하고 있는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에게 가해지는 '유가족다움'의 논리는 마치 과거 유교 사회에서 조상이 사망하였을 때 그 유가족이 '죄인의 심정'으로 근신하고 엄숙히 행동해야 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마음이 무겁다.

- 이 토론문에서는 단지 학문적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해석이 세월호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어떤 논리나 방편으로 쓰일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든다. 지금은 수집하고 축적하고 함께 행동할 시기가 아닐는지...

- 세월호는 아직까지 시신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대표적 '비정상적 죽음'의 경우이다. 한국 사회에서 잘 알려진 비정상적 죽음은 국가폭력 및 이데올로기 문제와 결부된 경우가 많았다. 권위주의 국가통치시기의 의문사, 고문사, 그리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등이 그것이다.

- 세월호와 한국전쟁 건은 '진실규명과 현재 사건의 해결'과 '진실규명과 역사적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 약간 다른 듯하다.

- 세월호 사건은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족들과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다움'의 요구는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둘의 구조는 약간 다른 것이 사실이다. 두 사건 모두 사회구조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지만,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의 경우 '공공의 비밀(public secret)' 영역이 덧씌워져 있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 세월호 유족회에 대한 비교 연구는 오히려 일본 3.11 사태 이후의 상황과 멕시코 43명 대학생 실종사건 등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멕시코는 2014년 아요치나파에서 발생한 교육대학생 43명 실종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43명 실종자들의 부모들은 현재까지도 조직을 구성하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멕시코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담론이 존재하고 있다.

- 일본 3.11의 경우 대규모 자연재앙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국가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성하는데 큰 작용을 하였다. 여기에는 국가와 민족주의에 대한 재고, 국가의 역할과 개념에 대한 제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의 3.11이후 문학담론에서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대항담론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시민단체와 유가족의 결합, 혹은 유가족의 직접적 활동은 인식을 전환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이 유해 발굴에 참여하여 발굴을 한 경우, 그 이전과 이후의 인식이 상당히 변화한 것을 느낄 수 있다.

- 결국 세월호 구술은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재난 혹은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발생한 돌발 상황에서 대중들이 어떻게 '전체'와 '국가주의', '민족주의' 등을 재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향후 집단적 공동체를 규정하는데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